2008 SK사회공헌활동 백서

SK COMMUNITY INVOLVEMENT WHITE PAPER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기업

함께하는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

SK 사회공헌 VI

사랑의 홀씨

온 세상에 퍼져 희망을 알리는 민들레 홀씨처럼,
'사랑의 홀씨'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며
더욱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담았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

SK는 모두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2008 SK사회공헌활동 백서

SK COMMUNITY INVOLVEMENT WHITE PAPER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기업

004 **화보**

숫자로 본 SK 사회공헌

012 **회장 메시지**

014 **발간사**

1부 사회공헌활동 개관

행복나눔 경영으로 사회공헌의 새 장을 열다

018 **SK 사회공헌활동 이념**

021 **SK 사회공헌활동 발자취**

022 **SK 사회공헌활동 원칙**

024 **SK 사회공헌활동 방향과 주요 사업**

028 **SK 재단**

한국고등교육재단

행복나눔재단

032 **SK 사회공헌활동 공동 프로그램**

취약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취약계층 자립 · 자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글로벌 행복나눔

SK 구성원 자원봉사

SK 관계사의 Sharing

2부 2008 사회공헌활동 중점 방향

국경을 넘어 인종을 넘어

048 **SK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성과**

중국

베트남

몽골

페루 · 이라크

062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대내외 평가**

3부 관계사별 활동

따로 또 같이 나눔과 참여로 써 내려간 행복보고서

066 **SK주식회사**
068 **SK에너지**
084 **SK텔레콤**
100 **SK네트웍스**
108 **SK케미칼**
112 **SKC**
120 **SK C&C**
128 **SK건설**
134 **SK해운**
138 **SK증권**
142 **워커힐**
148 **SK E&S**
154 **SK가스**

4부 부록

쑥쑥 자라는 행복과 희망의 자화상

162 **2008 SK 사회공헌활동 대외 수상 현황**
164 **관계사 소개**
166 **편집후기**
168 **SK 사회공헌 관련 웹사이트**

취약청소년의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SK가 2006년부터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함께 시작한 1318 해피존은 청소년의 생애발달 주기에 맞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과 복지가 결합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30개의 1318 해피존에서 약 3,200명의 청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1318 해피존 30 개소

교육 불균형 해소 위한 1사 1교 지원

공교육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SK는 2007년 9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1사 1교 운동에 동참, 전국 8개 공립고등학교와 결연을 맺고 우수 교사를 육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92명

해피뮤직스쿨 · 해피뮤지컬스쿨 · 해피쿠킹스쿨 학생

SK텔레콤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해피뮤직스쿨 · 해피뮤지컬스쿨 · 해피쿠킹스쿨을 운영하여, 클래식음악 · 뮤지컬 · 요리에 자질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교육을 받기 힘든 영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 프로그램을 통해 총 292명을 지원했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합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SK는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장애 통합 교육보조원 파견 사업 등을 통해 6,61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05~2008년 일자리 창출 6,615개

2008년 일자리 창출 722개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68개,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32개,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131개,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411개 등 2008년엔 총 722개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1일 평균 도시락 제공 1만 2,876개

2006년 2월 서울 중구 1호점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은 2008년 12월 현재 전국 27개 행복도시락 급식센터에서 하루 평균 1만 2,876개의 도시락을 결식아동과 어르신들에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리원과 배달원 등 2008년까지 1,213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행복을 나눕니다

20대
중국 사회공헌 우수기업

SK는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국 쓰촨성 복구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00만 위안을 지원했습니다. 중국 홍십자회는 SK의 성금지원 및 재해복구활동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중국홍십자 특별훈장'을 수여했습니다. SK는 또 빈곤을 퇴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육사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 온 점을 인정받아 중국 국무원 부빈기금회가 선정하는 20대 사회공헌 우수기업에 뽑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SK텔레콤은 세민얼굴기형돕기회와 함께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사업을 전개하여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총 2,676명을 수술하는 한편, 베트남 주요 병원에 수술 및 마취 장비를 지원하여 직접 수술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IT교육센터 운영, 도서관 지원 사업, 자원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베트남 정부로부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우호훈장'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2,676명

아시아연구센터 7개국 16개 기관

SK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곧 나라를 살찌우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1974년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하고, 다양한 장학사업과 국제학술사업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국·몽골·태국·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7개국 16개 기관에 아시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아시아의 학술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행복을 극대화합니다

자원봉사단 수 425개

자원봉사단 가입률 94.5%

2004년 발족한 SK자원봉사단은 4년 동안 우리 사회 취약계층과 함께한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2008년에도 13개 주요 관계사 94.5%의 구성원들이 425개의 자원봉사팀에서 자사가 가진 핵심역량을 나누고 행복나눔을 전파하였습니다. SK 임직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봉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는 일'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봉사시간 358,668시간

1인당 봉사시간 16.1시간

지속적인 봉사활동만이 진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SK 구성원들은 2008년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16.1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총 35만 8,668시간을 사회와 나눴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SK의 행복나눔 경영을 실천하는 단위가 되었습니다.

임원 봉사시간 6,765시간

임원 1인당 봉사시간 12.1시간

CEO는 각사 자원봉사단장을 맡아 자원봉사활동에 앞장섬으로써 구성원들이 보다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복나눔 경영이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나눔의 강을 지나
행복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인류가 위대한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서로 돕고 나눌 줄 알았기에 숱한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나눔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욱 행복해지기 위해 저마다 지닌 힘과 지식을 나누는 일입니다.

SK는 지난 50년 동안 함께하는 지혜, 나눔의 지혜를 실천해 왔습니다. SK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하여 행복나눔의 길을 더욱 넓혀 왔습니다. SK는 나눔을 통해 발전했고, 발전을 통해 더 큰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SK는 최근 10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매출액과 자산규모를 비롯한 하드웨어의 성장뿐만 아니라, SK 브랜드와 기업문화 그리고 인적역량의 힘과 가치가 지속적으로 진화 · 발전했습니다. 10년 사이에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특히 2008년은 SK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지주회사체제의 정착으로 이사회중심경영, 독립경영, 투명경영이 더한층 강화되고, 39조 원의 수출로 국내 2위의 수출기업으로 도약하며, 글로벌기업으로서의 내실도 더한층 공고히 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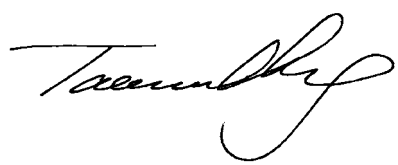
유대인의 격언 중에 "한 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작은 강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SK는 그동안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강줄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더 많은 행복을 창출하기 위해 끝없이 경쟁력을 높여 가며 혁신과 변화의 강을 만들어 왔고, 더 많은 이웃과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해 일자리 창출, 자립 · 자활, 자원봉사의 강을 비롯해 수많은 행복나눔의 물줄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SK가 일궈 온 여러 강물들이 모이고 모여 더욱 큰 강물을 이룰 때, 그 강은 대지를 보다 넓고 보다 깊게 적시는 생명의 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곳곳의 더 많은 이웃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행복의 바다'로 나아갈 때입니다. SK의 미래를 여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영의 수준을 한층 높여 세상을 넉넉히 품을 수 있도록 SK의 품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SK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SK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행복나눔의 지혜로 행복한 대한민국,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의 바다로 나아가는 SK의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나눔을 통해 스스로의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 SK 회장 **최 태 원**



힘들수록 행복나눔의 등불이 밝게 빛납니다

고객과 사회의 신뢰와 사랑 속에 성장해 온 SK는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믿음으로 사회 곳곳에서 행복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SK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교육격차 해소 사업,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행복한 변화 · 행복한 상생 · 행복한 참여'라는 SK의 사회공헌활동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08년은 SK자원봉사단이 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2007년 말에 발생한 태안지역 원유유출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SK자원봉사단은 새해 벽두부터 차가운 바닷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4월에는 자원봉사의 사각지대였던 태안군 가의도를 'SK 집중 자원봉사 지역'으로 선정하여 SK자원봉사단의 힘으로 방제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특히 자원봉사활동과 함께 최초로 'SK 태안 상품권'의 기획 및 구입을 추진함으로써 태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SK의 자원봉사의 물결은 연말에 진행된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연탄 나눔 행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은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활발히 전개했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해피쿠킹스쿨의 문을 새로 열었습니다. 해피쿠킹스쿨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1318 해피존 · 해피뮤직스쿨과 함께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활동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여 쓰촨성 대지진 피해복구 지원, 청소년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한 SK창신학교 건립 등을 통해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세계시민의 역할을 다각도로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최태원 SK 회장의 유엔글로벌컴팩트(UNGC) 이사 선임, 중국홍십자 특별훈장 수상, 베트남 국가우호훈장 수훈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그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모아 〈2008 SK 사회공헌활동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SK의 주요 13개 관계사가 '따로 또 같이'의 원칙 아래 행복나눔을 실천한 다양한 활동들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펼쳐 온 사회공헌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여 좀 더 나은 사회공헌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SK의 사회공헌활동에 함께해 주신 각계 인사들과 NGO 관계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금 먹구름이 몰려 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경제의 위기는 벌써부터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SK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을 명심하여,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활발하게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불황이 깊어질수록 SK의 행복나눔 등불은 더욱 밝게 타오를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SK는 여러분의 진정한 벗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 SK자원봉사단 단장 **김신배**

행복나눔 경영으로 사회공헌의 새 장을 열다

SK는 창립 이후 50여 년 동안 쌓아 온

인재양성의 전통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홀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변화 · 행복한 상생 · 행복한 참여는

SK가 세상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진심으로 노력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진정 어린 행복나눔 정신으로

SK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SK 사회공헌활동 이념

'행복경영'으로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고 나누다

한국 사회가 빈곤의 시대에서 벗어난 이후 SK는 교육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에 초점을 맞춰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 과정에서 '행복경영'이라는 SK만의 독특한 경영철학과 이념을 더욱 발전시켜 왔다. SK의 행복경영은 경영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객의 행복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행복을 나눔으로써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의 초석 다지다

SK는 1953년 창업 이래 인간 중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인재양성에 주력하면서 사회공헌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인재를 키우는 것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길"이라는 최종현 선대 회장의 믿음은 1973년 〈장학퀴즈〉 후원과 1974년 한국고등교육재단 설립으로 구체화되어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의 초석을 쌓았다. 특히 우수 인재의 해외유학을 지원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학자를 양성해 온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금까지 477명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한국 사회가 빈곤의 시대에서 벗어난 이후 SK는 교육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에 초점을 맞춰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행복경영'이라는 SK만의 독특한 경영철학과 이념이 탄생했으며, 이는 SK의 모든 경영활동의 기준이 되는 SK경영시스템 'SKMS(SK Management System)'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SK경영시스템 SKMS에 '행복경영' 명문화하다

SKMS는 SK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고 공유하는 경영관리체계로, 중요한 경영 원리에 대해 통일된 정의를 내리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다. SKMS는 SK의 경영철학과 이를 현실 경영에서 구현하는 방법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경영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처음 SKMS를 정립한 이유는 SK의 모든 구성원이 SKMS를 바탕으로 경영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이를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관리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대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SKMS는 SK의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어 왔으며, 이에 근간한 시스템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경영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왔다. SKMS를 토대로 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 경영의 실천과 기업문화 정착은 SK가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핵심 요소였다.

SK는 1979년 SKMS를 최초로 정립한 이래 1980년대에는 SKMS에 대한 이해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SUPEX 추구법을 도입하여 SKMS의 실천력 제고와 성과 극대화에 주력했다. SKMS는 정립 이후 시대상의 변화에 발맞춰 지금까지 총 12회에 걸친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4년 10월, 이해관계자의 가치 추구 등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향후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기법을 추가하면서 '행복경영'의 정신이 명문화되기에 이른다. "기업의 가치 추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해관계자의 행복"이라 명시하며 행복경영을 선언한 것이다.

2008년에는 다시 행복경영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실천방안을 경영 기본 이념 및 '추구 가치' 부분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기업이

추구하는 행복은 궁극적으로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가치 추구가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경영의 주체인 구성원은 행복경영의 실천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해야 함을 명확하게 하였다.

행복경영의 핵심 명제는 회사의 영속성과 이해관계자의 행복,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기업이 추구하는 행복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충분한 이윤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주체인 구성원은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지속적인 행복을 창출해야 하며, 자발적 · 의욕적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사회 전체의 행복 극대화'를 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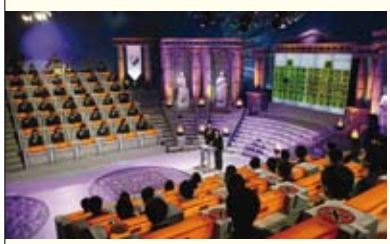
SKMS는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SUPEX를 제시하고 있다. 'Super Excellent'를 의미하는 SUPEX는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SK가 추구하는 행복경영이 단순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나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SK와 그 구성원들의 능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SK의 행복경영은 경영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객의 행복을 창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행복을 나눔으로써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요한 점은 SK의 행복경영 철학이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활동 전반을 관통하는 일관된 경영철학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행복경영 · 행복나눔의 철학에 기초하여 SK는 기업활동의 우선 가치를 기업이 속한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교육 · 장학 사업을 통한 인재양성을 사회공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취약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 사회공헌활동 발자취

SK자원봉사단 발대식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장학퀴즈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사업

울산대공원

장애청소년 IT챌린지대회(舊 장애청소년 정보검색대회)

1973 MBC 〈장학퀴즈〉 후원 시작
1974 한국고등교육재단 설립
1982 국악대공연 지원
1984 워커힐 미술관 개관
1990 서울대 SK경영관 건립 기증
1991 SK대입학력경시대회
1994 SK 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 시작
1995 SK 수원도서관 기증
강북구청 어린이집 무상 기증
1996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사업 시작
1997 울산대공원 조성 사업 시작
청소년지킴이집 운영
1998 불우아동 의료 사업 시작
이화여대 SK텔레콤관 준공 기증
KAIST SUPEX경영관 준공 기증
1999 장애청소년 정보검색대회 시작
2000 중국 〈SK장웬방〉 방영 시작
아트센터 나비(Art Center NABI) 설립
중앙아시아 국가에 의류 기부 시작
국제학술교류 사업 시작
2001 그린맵 대장정 시작
2003 행복나눔 바자회 시작
엔크린 소년소녀가장돕기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발족

2004 SK자원봉사단 출범
모바일 미아 찾기 서비스 시작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운영
베이징포럼 지원 시작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시작
2005 스피드메이트 행복날개 프로그램 시작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시작
2006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설립
울산대공원 준공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 건립
1318 해피존 설립 · 운영
행복나눔재단 출범
2007 해피뮤직스쿨 · 해피뮤지컬스쿨 오픈
중국에 SK우호림 조성
베트남 IT교육센터 설립
장례문화센터 착공
2008 태안 살리기 자원봉사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 지원
SK재활관 준공
해피쿠킹스쿨 오픈
중국 SK창신교실 건립
메자닌아이팩 · 메자닌에코원 설립 지원

SK 사회공헌활동 원칙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행복 전도사

SK는 행복경영의 철학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행복을 창출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지구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행복을 창출하고 '행복을 나누는 기업'이 되기 위한 SK의 노력은 행복한 변화 · 행복한 상생 · 행복한 참여의 세 가지 원칙 아래 행해지고 있다.

행복한 변화 | Change

SK가 추구하는 행복한 변화란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즉, 일시적인 도움이나 임시방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한다. 따라서 SK의 사회공헌활동은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장애인 · 여성가장 · 소년소녀가장 · 저소득층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나아가 전문지식 배양과 이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SK식 사회공헌 모델로 발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행복한 상생 | Together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 지자체 · NGO ·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SK는 '행복한 상생'이라는 두 번째 원칙을 이끌어 내 실천하고 있다. SK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가능케 하는 협력모델을 만들고,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협력모델의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행복한 참여 | Participation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SK의 진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SK는 땀 냄새 나는 봉사활동을 목표로 SK와 임직원들이 갖고 있는 기술 · 지식 · 인적 자산 · 인프라를 사회와 적극적으로 나누고, 자원봉사와 기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SK자원봉사단을 이루고 있는 13개 주요 관계사의 단장을 각 사의 CEO가 맡아 수행함으로써 CEO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앞선 일꾼의 모습을 보여 임직원의 생활 속에 봉사가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 SK 사회공헌활동 체계도 |

미션

행복을 나누는 기업

3대 원칙

- 행복한 변화 Change
- 행복한 상생 Together
- 행복한 참여 Participation

핵심 영역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소외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소외계층 자활·자립	SK 구성원의 자원봉사	SK 관계사의 Sharing	글로벌 행복나눔
SK 교육사업의 발전적 계승	**일을 통한 자활 · 자립**	**SK 구성원의 참여**	**SK 기술 · 지식을 사회와 나눔**	**행복날개를 세계로**
1318 해피존 소외청소년 교육 지원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등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행복나눔 계절 임직원 자원봉사 긴급구호활동	1사 1대표 프로그램	중국 등 지역별 사회공헌 국제학술 지원

SK 사회공헌활동 방향과 주요 사업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

SK는 '진정한 힘은 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부터 나온다'는 신념으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사회공헌활동의 전통을 갖고 있다. 이 전통은 지속적으로 계승 · 발전되어 사회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활동에도 녹아들어 있다. SK는 현재 사회복지, 교육 · 장학, 환경보존, 문화 · 예술 · 체육, 글로벌, 자원봉사 등 6개 부문에 걸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3개 주요 관계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동 프로그램과 관계사가 각 사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추진하는 관계사 중점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의 전통 확립

"진정한 힘은 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은 지식이지 부가 아니다. 지식이 있으면 부는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교육과 인재양성에 대한 최종현 선대 회장의 굳은 신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1970년대에 SK가 교육과 장학 사업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1973년부터 시작한 〈장학퀴즈〉 후원과 1974년에 설립한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중심으로 진행된 인재양성 노력은 이후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SK 사회공헌활동의 전통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 양성에 주력하던 SK의 교육 · 장학 사업은 2000년대 들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내용의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기존의 전통을 계승 · 발전시키는 가운데 사회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에서도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현재 SK는 취약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취약계층 자립 · 자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글로벌 행복나눔, SK 구성원의 자원봉사, SK 관계사의 Sharing 등 5개 핵심 영역에 걸쳐 교육을 통한 행복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SK식 사회공헌활동의 모델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13개 사의 '따로 또 같이'

SK는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SK의 주요 13개 관계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동 프로그램과 관계사가 각 사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추진하는 관계사 중점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각 사는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동시에 그룹의 기업문화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따로 또 같이'의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SK의 주요 13개 관계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1318 해피존, 한국고등교육재단, SK자원봉사단, 행복나눔 계절, 긴급구호활동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각 관계사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1사 1대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계사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행복 나눔

공동 프로그램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1318 해피존	한국고등교육재단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	SK자원봉사단
행복나눔 계절	행복나눔 자원봉사의 달	긴급구호활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글로벌 행복나눔

1사 1대표 프로그램

SK주식회사 행복날개 연날리기 축제	**SK에너지**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연탄 나눔	**SK텔레콤** 모바일 공익사업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일자리 창출 사업
SK케미칼 한사랑 백신 나누기 심기신수련 자원봉사	**SKC** 매칭펀드를 통한 청소년 후원	**SK C&C**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SK건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활동
SK해운 수상구조대	**SK증권** 청소년 경제교실	**워커힐** 아차산 자연보호 민속공연	**SK E&S** 우리 자녀 지킴이	**SK가스**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후원

6개 부문의 사회공헌활동

SK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복지, 교육 · 장학, 환경보존, 문화 · 예술 · 체육, 글로벌, 자원봉사 등 6개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SK는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등을 통해 2008년에도 72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2005년 이후 총 6,61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제4회 행복나눔 계절을 맞아 전 관계사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연탄 나눔, 행복나눔 바자회 등을 개최하여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교육·장학 부문

사회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교육 · 장학 사업을 통해 SK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 줬다. TV 프로그램 〈장학퀴즈〉를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SK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1318 해피존 30호점 개소, SK 행복장학금, SK 행복날개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파했다. 또한 저소득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피뮤직스쿨 · 해피뮤지컬스쿨 · 해피쿠킹스쿨이 진행되었으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SK텔레콤 장애청소년 IT챌린지와 무료 IT 특강 등이 실시됐다.

환경보존 부문

SK는 전국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는 대구시 신천 둔치에서 습지 복원 활동을 펼쳤으며, 중국 네이멍구 쿠부치사막에서 진행된 SK우호림 조성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2008년에도 계속됐다. 2008년 16회째를 맞은 'SK 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도 성황리에 치러져 국내 최대의 환경 부문 어린이 글짓기 대회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문화·예술·체육 부문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SK의 발걸음은 2008년에도 계속됐다. 울산대공원에서 펼쳐진 110만 송이 장미축제는 전국에서 찾아온 25만 명의 눈길을 사로잡아 국내 최대의 장미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각종 공연 후원과 메세나 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또한 SK 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스포츠대회를 개최했으며, 2008 베이징올림픽을 맞아 국가대표팀과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글로벌 부문

2008년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드높인 한 해였다. 특히 중국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SK우호림 조성, 희망소학교 건립 등 기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SK공익기금을 조성하여 새로운 교육사업인 SK창신교실 건립과 KAB 특강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한 쓰촨성 대지진 피해 복구에 적극 동참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베트남에서는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사업과 IT교육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으며, 몽골에서도 취약청소년 PC 기증 및 축산시범농장 개발사업을 계속했다.

자원봉사 부문

2004년 SK자원봉사단이 발족한 이래 SK 임직원들에게 자원봉사는 중요한 활동의 일부가 되었다. 2008년 말 현재 주요 13개 관계사에는 425개의 봉사팀이 조직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의 94.5%에 해당하는 2만 2,296명이 봉사팀에 가입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원유유출 피해를 입은 태안지역 복구에 역량을 집중했다. SK는 6개월간에 걸친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함께 태안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 재난구호활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신배 SK자원봉사단장이 태안 명예군민으로 위촉되었으며, 정부의 방제활동 유공자 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다.

SK 재단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행복나눔재단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SK 사회공헌활동의 두 날개다. 특히 1974년에 설립되어 인재양성과 국제학술 지원 사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은 한국에서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역사이자 산 증인이다. 세계 수준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펼친 한국고등교육재단의 다양한 교육 · 장학 사업은 국가 발전의 밑받침이 되었다. 이제 한국고등교육재단은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제2의 비상을 추진 중이다.

2006년에 설립된 행복나눔재단은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을 발판으로 행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피쿠킹스쿨과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운영 등을 통해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들이 어려움을 딛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복나눔재단은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SK 재단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사업
국제학술사업

행복나눔재단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해피쿠킹스쿨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한국의 지식 사회를 이끌어 가는 인재양성의 산실

세계적인 석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1974년 설립된 한국고등교육재단은 한국의 학문 발전을 뒷받침한 인재양성의 산실이었다. 지금까지 477명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했으며,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2,687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재단이 배출한 박사학위자들은 현재 학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지식사회를 이끌고 있다. 2000년부터는 21세기 '아시아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국제학술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출범 초기부터 백년대계에 의한 교육 ·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범 이후 약 30년에 걸친 1기에는 국내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심 목표였다. 2000년 이후 약 30년에 걸친 2기에는 기존의 국가적 인재양성 사업을 지속 · 확대시켜 나감과 동시에 국내 석학과 아시아 석학들을 연계하여 아시아의 지식사회를 선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후 제3기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인재들이 수행한 목표를 발전시켜 세계 학문과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장학사업

● **해외유학 장학제도**

1974년에 시작된 재단의 주 장학제도로서, 국내 우수 인재들을 해외 유명 대학원에 유학시켜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477명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했으며, 2008년 8월에 43명의 장학생을 새로 선발했다.

● **대학원 장학제도**

동양학과 정보통신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학제도다. 재단의 한학 연수과정 수료생과 국내 대학원의 정보통신 분야 석 · 박사 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2008년 8월에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 **대학 특별장학제도**

세계 수준의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에 따라 1978년에 시작된 장학제도다. 우수 대학생을 조기에 선발하여 학문에 전념하도록 지도하고, 대학 졸업 후 해외유학 장학제도를 통해 우수한 학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8년 3월에 45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 **한학연수 장학제도**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전공자 중 동양학 관계 연구를 원하는 대학생을 선발하여 한학 연구능력을 배양하는 3년 과정의 연수를 실시하는 제도로, 1976년에 시작되었다. 2008년 3월에 13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국제학술사업

● **국제학술교류 지원 사업**

아시아 국가의 우수한 학자들을 매년 50여 명씩 초청하여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1년간 학문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시아 각국의 학술교류와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중국 · 베트남 · 몽골 등 아시아 12개국 79개 기관에서 총 471명을 지원했다.

● **아시아연구센터**

아시아 지역의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아시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현지 학자들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각국의 학문 발전과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 몽골 · 태국 · 베트남 ·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등 7개국 16개 기관에 아시아연구센터를 설립했다.

● **베이징포럼**

한국고등교육재단과 북경대학과 베이징시 정부가 2004년부터 공동주최하고 있는 베이징포럼은 세계 저명 학자들을 초청하여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의 과제를 논의하는 세계적인 학술대회다. 2008년 11월에는 세계 각국의 학자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명의 조화와 공동번영—문명의 보편적 가치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5차 베이징포럼을 개최했다.

● **상하이포럼**

상하이포럼은 글로벌화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경제포럼으로, 2005년부터 한국고등교육재단과 복단대학이 공동주최하고 있다. 2008년 5월에는 세계 26개국 310명의 학자 · 관료 · 경제인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와 아시아의 선택—변화, 성장, 복지'라는 주제로 제3차 상하이포럼을 개최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

행복나눔재단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며"라는 슬로건 하에, 결식이웃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실직 취약계층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자립을 돕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 시작을 계기로 2006년 6월 설립되었다. 이후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 외에 대학생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에서 얻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요리를 통해 취약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해피쿠킹스쿨' 등을 운영하는 등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행복나눔재단은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을 바탕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자립 · 자활 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와 지자체 · 기업 · NGO와 함께 하는 협력모델을 제시하여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민간기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08년 한 해 하루 평균 1만 2,876개의 도시락을 결식이웃에게 전달했으며, 취약계층에게 411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690만 개의 도시락을 제공했으며, 창출한 사회적 일자리는 총 1,213개에 이른다.

또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을 통해, 방학기간 동안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사각지대 아동과 청소년들의 결식을 해소하기 위해 방학 동안 14개 지역에서 약 1,300여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 8월부터는 전국의 어린이에게 도시락과 함께 마음의 양식인 책을 전달하는 '맛있는 도시락, 행복한 책읽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몸의 양식'인 도시락과 '마음의 양식'인 책을 함께 전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어 전국 10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07년부터는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4월부터는 취약청소년들이 요리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해피쿠킹스쿨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취약계층 자립 지원 사업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협력모델을 통한 자립 지원 사업 강화

행복나눔재단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협력모델을 통한 사업 수행, 취약계층 자립 · 자활 지원, 자립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과 같이 정부 · 기업 · NGO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업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의 대외적인 확산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자립 · 자활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도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2008년까지 SK텔레콤에서 주관하던 해피뮤직스쿨과 해피뮤지컬스쿨 사업을 행복나눔재단으로 이관하여 '해피스쿨' 시리즈 사업으로 체계화할 예정이다. 해피뮤직스쿨 · 해피뮤지컬스쿨 · 해피쿠킹스쿨을 행복나눔재단에서 통합 운영하게 되면, 취약청소년의 자립 · 자활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사업 간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립 교육 강화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행복도시락 급식센터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모든 급식센터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재단 직영의 사회적기업 운영도 준비 중이다.

행복나눔재단의 상징은 민들레 홀씨다. 작은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 수많은 민들레로 피어나듯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행복나눔재단의 노력 또한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 나가 손길이 미치는 곳곳에서 행복의 꽃으로 활짝 피어날 것이다.

민들레 홀씨처럼 행복을 꽃피우는 사업

● 따뜻한 약속,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은 행복나눔재단이 운영을 맡고, SK는 시설 자금과 운영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결식아동의 급식을 위탁하여 비용을 지급하여 지역아동센터 · 노인복지시설 등의 결식이웃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질의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고, 실직자와 여성가장 등을 조리와 배송 등의 과정에 참여시켜 실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공익 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업과 정부 · 지자체 · NGO의 협력모델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전국적인 규모의 사업이 가능해졌다.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은 도시락 자체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영양사가 표준화한 메뉴와 레시피로 만들어져 영양가가 높을 뿐 아니라 식자재 입고에서부터 조리 · 포장 등의 전 과정을 식품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준해 철저하게 관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에 개설되어 있는 27개의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행복나눔재단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급식센터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급식센터들은 지금까지 정부와 SK가 지원하는 자원에 의해 고용을 창출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공급식 시장의 매출 확대, 유료사업 개발 등을 통한 수익성 확충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급식센터를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켜 사회적 공익성과 자생적인 운영 기반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키워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복나눔재단은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개설 · 운영하는 등 급식센터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요리 그 이상의 꿈, 해피쿠킹스쿨

해피쿠킹스쿨은 요리에 재능과 열정은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전문 요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통합적인 자립 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피쿠킹스쿨은 단순히 요리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이에 따라 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 조리교육뿐만 아니라 인문학 · 경제 · IT 교육 등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료생들이 대학의 관련학과에 진학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턴십과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피쿠킹스쿨은 '드림쉐프'와 '쿡&해피' 등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종임 수도요리학원장(한식), 박효남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조리상무(양식), 김태응 부다스밸리 대표(창업), 송청락 한림성심대학 교수(일식), 차영일 워커힐 조리팀 베이커리 과장(제과제빵) 등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요리를 통한 자립 지원 '드림쉐프'

드림쉐프 과정은 전문요리사를 꿈꾸는 취약청소년들에게 진로 기초교육부터 조리사 자격 취득, 자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16~24세에 해당하는 서울과 수도권지역 청소년 30명을 연 2회 선발하여 6개월간 주 3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요리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 '쿡&해피'

요리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교육 프로그램이다. 직업인 만남, 명인 특강, 직업현장 견학을 통해 요리를 즐기면서 직업과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요리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단체 20팀을 대상으로 하며, 1년간 월 2회의 교육을 실시한다.

동아리 활동비와 우수 동아리 장려금을 지급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드림쉐프 우선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SK 사회공헌활동 공동 프로그램

파트너십으로,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다

SK의 사회공헌활동은 크게 모든 관계사의 역량을 집중하는 공동 프로그램과 각 관계사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진행되는 1사 1대표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방향에 맞춰 취약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취약계층 자립·자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글로벌 행복나눔, SK 구성원 자원봉사, SK 관계사의 Sharing 등 5개 핵심 영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01 취약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 1318세대를 위한 행복공간 '1318 해피존'
- 해피뮤직스쿨 · 해피뮤지컬스쿨 · 해피쿠킹스쿨

02 취약계층 자립 · 자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 박스 제조기업 '메자닌아이팩' 설립 지원
- 블라인드 제조기업 '메자닌에코원' 설립 지원
-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03 글로벌 행복나눔

04 SK 구성원 자원봉사

- 태안지역 원유유출 방제활동 및 경제 살리기

05 SK 관계사의 Sharing

- SK주식회사 | 행복날개 연날리기 축제
- SK에너지 | 사랑의 김장 나누기, 연탄 나눔
- SK텔레콤 | 모바일 공익사업
- SK네트웍스 |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 SK케미칼 | 한사랑 백신 나누기 심기신수련 봉사활동
- SKC | 매칭펀드를 통한 청소년 후원
- SK C&C |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 SK건설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활동
- SK해운 | 수상구조대
- SK증권 | 청소년 경제교실
- 워커힐 | 아차산 자연보호, 민속 공연
- SK E&S | 우리 자녀 지킴이
- SK가스 |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돕기

01 취약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SK는 1973년부터 진행해 온 교육 · 장학 사업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인 '1318 해피존'을 비롯해 해피뮤직스쿨 · 해피뮤지컬스쿨 · 해피쿠킹스쿨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키워 사회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1318세대를 위한 행복공간 '1318 해피존'

SK는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공동으로 그동안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318세대에게 다양한 학습 · 정보 · 문화 프로그램과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인 '1318 해피존'을 설립 ·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별 프로그램 중심으로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교육과 복지를 결합하여 기초적인 생존 욕구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은 1318 해피존이 유일하다.

2006년부터 시작된 1318 해피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형과 농산어촌형으로 구분되어 전국에 30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지난 3년 동안 약 3,200명의 청소년이 1318 해피존을 이용해 왔다.

1318 해피존은 청소년을 위해 학습, 자립, 문화, 안전 및 급식,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 특화 프로그램, Skids 프로그램 등 7대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해피존에서는 영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잉글리시 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318 세대의 영어능력 향상을 꾀하고, 성적 향상 우수학생에게는 해외 단기 어학연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합격했지만 가정형편상 진학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학습과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밖에 영화 · 노래 · 요리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특기적성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해피존의 다각적인 보호와 지원을 통해 학업을 포기했던 위기의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생활을 시작하고 매년 대학 진학자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개개인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등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해피존은 129명의 전문 교사를 채용하여 청소년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325명의 열린 운영위원, 375명의 전문영역 교수, 96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결집하고 강화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해피뮤직스쿨 · 해피뮤지컬스쿨 · 해피쿠킹스쿨

SK는 음악과 뮤지컬에 대한 재능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집안 형편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해피뮤직스쿨과 해피뮤지컬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육 부문 중에서도 경제적 환경의 영향이 큰 예체능 분야에서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해피뮤직스쿨은 미국 줄리어드 음대의 MAP(Music Advancement Program)를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한 프로그램이다. 줄리어드 음대는 1991년부터 뉴욕 할렘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및 빈민가정의 문화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MAP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해피뮤직스쿨은 피아노 · 바이올린 · 첼로 등 3개 분야에서 매년 총 60명의 청소년을 선발하여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첼리스트 송영훈, 서울대 음대의 백주영 · 주희성 교수, 연세대 음대 현민자 명예교수 등 국내 정상급 교수진과 음악대학 석사 이상의 전문 연주자 13명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1대1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클래식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음악 영재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연주자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매년 8월에는 유명 연주자를 초청하여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마스터클래스 수업을 열고 있다. 2007년 마스터클래스에는 줄리어드 음대의 마틴 캐넌(피아노)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2008년에는 서울시향의 제2바이올리니스트 임가진 연주자를 비롯한 교수진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더욱 실력 있는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 2회 향상음악회 연주 기회를 제공하여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돕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해피뮤지컬스쿨은 미래의 뮤지컬 스타를 꿈꾸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남경주 씨 등 현재 활동 중인 뮤지컬 배우와 음악감독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20명의 학생들에게 춤 · 노래 · 연기에 대한 전문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2회씩 꾸준한 수업을 받고 있으며, 9월 1일에는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바탕으로 졸업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한편 2008년 6월에 새롭게 시작한 해피쿠킹스쿨은 취약계층의 청소년이 요리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조리 기초이론, 한식 · 양식 · 세계요리 명인 특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해피쿠킹스쿨은 12월 29일 1기생 22명을 배출했으며, 이들 중 11명은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서대문 1318 해피존 졸업생 **석민혜** 양

"내가 대학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해피존"

"1318 해피존은 저를 대학생으로 만들어 준 일등공신입니다. 해피존 덕분에 명문대 재학 중인 대학생 선생님들로부터 1대1 과외도 받을 수 있었고, 학자금도 탈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해피존에서 지원해 준 '고3 SOS 장학금' 덕분에 고등학교 3학년 동안 필요한 인터넷 강의를 듣고, 문제집도 살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서대문 1318 해피존을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석민혜 양은 1318 해피존에 대한 고마움부터 털어놓았다. 한창 꿈 많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가슴 졸여야 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인지 그의 생각에서는 절절함에 배어 나왔다.

"적어도 배움만큼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죠. 수십, 수백만 원을 들여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한 강좌에 10만 원에 가까운 인터넷 강의를 듣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과 오로지 학교 수업만 받으며 경쟁하기엔 솔직히 역부족인 면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은 사람을 키우는 또 하나의 어머니인 모양이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석민혜 양의 입에서는 제법 어른스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는 국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도 그중의 하나였다. 그의 거침없는 이야기는 나라에서도 못 하는 일을 1318 해피존이 대신하고 있다는 칭찬으로 이어졌다.

"목표가 대학 진학이었기에 저 같은 경우는 해피존에서 공부라는 도움을 얻었지만, 해피존의 능력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만들어 주고, 추억이 없는 아이에게는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이 모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기도 했고, 해피존에서 실시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들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해피존에서 맺은 여러 인연들 또한 우리들에겐 큰 축복이 될 거예요."

대학생이 되면 금방 어른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대학생이 되고 나니 고등학생 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며 웃는 석민혜 양. 풋풋한 대학 새내기의 모습 그대로인 그는, 1318 해피존이 이 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그 꿈을 스스로 키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아이들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데도 형편이 어려워 그 꿈을 좇을 수 없는 아이, 가정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 학교에서 소외되는 아이, 마음에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아이 등 다양한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해피존은 이러한 아이들을 모두 보듬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꿈꾸게 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 가게 하는 원동력은 어른들의 관심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interview 02.

취약계층 자립 · 자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취업의 꿈을 이뤄 준 일산 IT교육원"

SK C&C 일산 IT교육원 4기 수료생 **김후성** 씨

"일산 IT교육원 덕분에 저도 이제 당당한 사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비록 재택근무를 하곤 있지만 어엿한 직장인이거든요."

일산 IT교육원 4기 수료생인 김후성 씨는 요즘 새로운 생활의 재미에 푹 빠져 있다. 그동안 그렇게도 갈망했던 취업의 꿈을 이제야 비로소 이루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버는 재미에 일이 많아도 힘든 줄을 모른단다.

시력장애를 지니고 있는 김후성 씨가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에 첫발을 디딘 것은 2006년의 일이다. 학교 졸업 후 실업자 신세이던 김후성 씨는 기술을 배워 하루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시각특화 훈련과정 중의 홈페이지 제작 과정을 이수했다. 하지만 교육 수료 후에도 취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즈음, SK C&C 일산 IT교육원에 GVN(주)의 맞춤훈련 과정이 개설되어 그토록 바라던 직업훈련을 받게 되었다.

"맞춤훈련은 구직자에게 정말로 안정을 주는 교육과정입니다. 다른 과정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내용을 습득해야 했고, 업체에서 만나게 될 선임자가 직접 교육을 담당할 때가 많아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그것은 저에게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SK C&C의 전폭적인 지원 덕에 현장실무자의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력장애 때문에 오랫동안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는 일도 힘들었고, 매일 쏟아지는 과제를 처리하는 것도 버거웠지만 김후성 씨는 '꼭 취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육에 참가했다고 한다. 처음 접하는 포토샵은 메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알아보기조차 힘들었지만 공단에서 보조공학기기인 확대 모니터를 지원해 줘 원활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고.

"숙제를 하고 테스트를 받기 위해 함께 배우는 동료들 모두가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꼬박 공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어요. 다들 진지하게 똘똘 뭉쳐서 모르는 것을 서로 알려주며 새로운 기술들을 익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었죠."

집이 시내와 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출 · 퇴근이 어려워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김후성 씨는 메신저를 통해 회사 동료들과 대화도 하고 업무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도와준 많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김후성 씨는 사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았다.

"저를 낳아 주신 부모님,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회사의 일원으로 뽑아 주신 사장님, 그리고 일산 IT교육원의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교육을 지원해 주신 SK C&C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02 취약계층 자립 · 자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2005년부터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SK는 그동안 쌓아 온 사회공헌활동의 경험과 비전을 바탕으로 정부 · 기업 · NGO의 파트너십에 의한 효과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사업,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6,61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장애인 · 저소득 청소년 · 여성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SK에너지는 정부 · 기업 · NGO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YMCA와 함께 시간제 보육 사업인 '아가야'를 펼치고 있다. 노동부 기업연계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된 '아가야'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을 보육사로 채용하여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며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계획 중이다. 전국 16개 지역의 보육시설을 통해 이뤄지는 아가야 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2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SK에너지는 이외에도 2005년부터 3년 동안 YMCA의 24시간 보육 서비스 사업,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행복한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총 2,046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박스 제조기업 '메자닌아이팩' 설립 지원

SK에너지는 열매나눔재단과 함께 박스 제조기업 '메자닌아이팩'을 설립하여 새터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2008년 7월에 설립된 메자닌아이팩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터민 50명에게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존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사회적 서비스 중심의 인건비 보조에 집중되었다면, 메자닌아이팩과 메자닌에코원은 제조 기반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설립 초기부터 자립이 가능한 신개념의 사회적 기업 모델이다. 이 사업은 통일부와 협력하고 있다.

블라인드 제조기업 '메자닌에코원' 설립 지원

SK에너지는 열매나눔재단에 창문용 블라인드 제조기업 '메자닌에코원' 설립기금을 출연하여 새터민을 포함한 저소득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재)사회투자지원재단 · 열매나눔재단 · SK에너지가 설립 · 운영 자금을 공동출연하여 출범한 메자닌에코원은 2008년 새터민과 저소득계층 약 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메자닌에코원은 블라인드 제조기업들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제조 기반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이다. 메자닌에코원은 향후 장애인 · 노숙자 등으로 대상을 넓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결식아동 및 노인에게 안전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도시락을 무료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자립과 자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해 온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은 결식이웃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SK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다. 2006년 2

월 제1호점인 서울 중구에서 출발하여 2008년 12월 현재 27개의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를 운영 중이며, 2008년에만 411개의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했다. 2008년 한 해 동안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를 통해 결식아동과 노인들에게 배달된 도시락은 하루 평균 1만 2,876개에 달한다.

SK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을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급식센터를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08년까지 경기 포천점, 전북 진안점, 전남 순천점 등 총 18개의 행복도시락 급식센터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SK네트웍스는 2005년 12월부터 사회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아동복지시설 소년 및 저소득 청소년(18~25세)들을 대상으로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기술인의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사회 적응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원자들에게 6개월간 무료 자동차 정비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피드메이트 전국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187명의 청소년에게 자립 기회를 제공했다.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SK C&C는 IT서비스 전문기업의 특성을 살려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IT 전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교육 수료생의 취업을 알선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 6월과 2005년 10월에 각각 성남 IT교육원과 일산 IT교육원을 개원하여 지금까지 총 264명의 IT 전문 교과과정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들 수료생 중 150명은 IT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일산 IT교육원의 경우에는 총 137명의 수료생 중 116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85%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8년에는 일산 IT교육원을 통해 2기에 걸쳐 총 3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들 중 32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관사	프로그램 내용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SK에너지	저소득층 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보육교사 파견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SK텔레콤	위생과 영양을 갖춘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설립 및 지원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SK네트웍스	저소득 청소년 대상 스피드메이트 교육 및 취업 지원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SK C&C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무료 IT 교육
메자닌아이팩 · 메자닌에코원 지원	SK에너지	새터민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제조업 기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17	392	1,506	131	**2,046**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	300	502	411	**1,213**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13	30	76	68	**187**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122	92	57	32	**303**
장애통합 교육보조원 파견 사업	437	1,096	1,253	-	**2,786**
메자닌아이팩 · 메자닌에코원 지원	-	-	-	80	**80**
계	**589**	**1,910**	**3,394**	**722**	**6,615**

03 글로벌 행복나눔

SK는 국가간 장벽이 사라진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SK의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SK는 글로벌 사회공헌에서도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방향 아래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통한 행복한 변화, 정부 · IGO · NGO와의 협력을 통한 행복한 상생, 땀 냄새 나는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한 참여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이 돋보인다.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중국판 장학퀴즈인 〈SK장원방〉은 인재양성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으며, SK 장원방배 고교생 영어경시대회도 중국 최고 권위의 영어경시대회로 자리 잡았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희망소학교 건립과 연변 IT센터 건립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있다. 2008년부터는 중국광화과학기술기금회와 협력을 통해 SK공익기금을 조성하여 중 · 고생의 창의력 증진을 위한 SK창신교실과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KAB 특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2007년부터 네이멍구 쿠부치사막에 SK우호림을 조성하고 있으며,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 복구에 적극 참여했다. 또 매년 중국 현지에서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도 행복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1996년부터 시작된 베트남 사회공헌활동은 사회복지 증진과 교육격차 해소, 학술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사회복지 사업으로는 1996년부터 13년째 계속되고 있는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사업'이 대표적이다. '베트남 어린이에게 웃음을'이란 슬로건 아래 세민얼굴기형돕기회와 함께 2008년까지 총 2,676명의 어린이에게 밝은 웃음을 찾아 줬다. 교육격차 해소 사업으로는 2006년부터 시작된 SK텔레콤문고, 2007년 12월에 건립된 베트남 IT교육센터 등이 있다.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의 자원봉사활동도 매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호치민시 '청년동맹' 청년들과 한 · 베 문화교류의 시간을 갖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국제학술 지원 사업은 SK 산하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중국 · 베트남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국제협력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아시아연구센터 건립, 베이징포럼 및 상하이포럼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몽골 축산시범농장 사업을 통해 SK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7년 지진 피해를 입은 페루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건립 사업도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캄보디아 의료봉사, 이라크 난치병 어린이 치료 지원 등 SK의 사회공헌활동은 국경을 뛰어넘어 세계 속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04 SK 구성원 자원봉사

SK는 그동안 관계사별로 진행하던 사회공헌활동을 그룹 차원으로 확대 · 발전시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4년 7월 22일 SK자원봉사단을 발족했다. 이후 SK자원봉사단은 '행복은 나눌 때 더 커진다'는 믿음으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관계사 CEO들의 솔선수범 아래 '사람 냄새, 땀 냄새' 나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SK자원봉사단은 13개 주요 관계사에 425개의 봉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의 94.5%인 2만 2,296명이 봉사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봉사단 가입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직원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94.5%의 가입률은 자원봉사가 SK의 확고한 기업문화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다.

SK자원봉사단은 2008년 한 해 동안 연인원 8만 1,539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총 35만 8,668시간, 1인당 평균 16.1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CEO를 비롯한 임원들의 봉사활동이 활발한 SK의 전통을 반영하듯 임원들의 경우에도 연인원 1,285명이 참여하여 총 6,765시간, 1인당 평균 12.1시간의 봉사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집계됐다.

SK의 자원봉사팀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구성원들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매년 11월과 12월을 '행복나눔 계절'로 선포하여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연탄 나눔, SK 행복나눔 바자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행복나눔 계절 행사에는 매년 최신원 SKC 회장을 비롯한 관계사 CEO들이 대거 참여하여 직접 행복 김치를 담그고,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는 등 행복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SK자원봉사단 태안지역 원유유출 방제활동 및 경제 살리기

검은 바다에서 움튼 희망의 씨앗

SK는 2008년 한 해 동안 최악의 원유유출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태안지역에 자원봉사 역량을 결집하여 복구활동에 앞장섰다. 특히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등 입체적인 태안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재난구호활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태안지역 원유유출사고는 사상 최악의 해상오염사고로 기록됐다. 만리포 북서방 10km 해상에서 일어난 유조선과 크레인 부선의 충돌사고로 유출된 1만 2,547㎘의 원유는 서산군 가로림만에서 태안군 안면도 남단에 이르는 167km의 해안선을 순식간에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으며, 간접 피해의 영향은 멀리 제주도와 추자도에까지 미쳤다.

● 1차 긴급 방제활동

SK는 원유유출사고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하자 사고 직후부터 2008년 6월까지 주요 관계사를 중심으로 긴급재난복구작업에 발벗고 나섰다. 4,600여 명의 SK 자원봉사자들은 총 61회에 걸쳐 만리포, 모항, 구름포, 학암포, 천리포 등의 해변에서 기름제거활동을 펼쳤으며, SK에너지는 울산공장의 진공 흡입차 4대와 오일펜스를 방제활동에 지원했다. 또한 SK텔레콤은 구세군과 함께 무료급식 차량을 운영하여 23일 동안 4만 4,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했다. 사고 초기에 이루어진 SK자원봉사단과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 덕분에 태안의 검은 바다는 점차 희망의 바다로 변하기 시작했다.

● 2차 가의도 방제활동

태안의 바닷가를 뒤덮은 자원봉사의 물결이 뜸해질 즈음, SK는 다시 한 번 전사적인 차원에서 태안 살리기에 나섰다. SK자원봉사단 신임 단장으로 취임한 김신배 단장은 4월 한 달을 태안 자원봉사의 달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태안군 가의도의 복구작업에 투입했다. 가의도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원봉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생태계 회복이 더딘 곳으로, 그만큼 방제활동이 시급한 곳이었다.

김신배 단장을 포함한 100여 명의 SK자원봉사단이 4월 4일 가의도 해안에서 기름제거작업을 벌인 것으로 시작된 2차 방제활동은 임직원 988명이 참여한 가운데 6월까지 지속됐다. 태안지역 방제활동을 통해 특정 지역의 복구활동을 한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한 것은 SK가 유일하다. SK자원봉사단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덕에 가의도는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태안 살리기

SK는 방제활동과 동시에 원유유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태안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나섰다. 방제작업이 일단락된 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태안 경제 살리기는 타지인의 태안 방문 확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이 관건이었다. SK는 6월 20일 10억 원 상당의 태안사랑 상품권을 구입하여 SK 구성원의 태안 방문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침체된 태안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으로 태안 방문 붐을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또한 태안 특산물인 '6쪽 마늘 30만 상자 팔아 주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했다. 이를 통해 SK는 사고 초기의 생태 복구 작업에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재난지역 지원 모델을 제시했다.

● SK의 태안 살리기에 쏟아진 찬사들

SK의 태안지역 자원봉사활동에는 주요 관계사 및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등 임직원 5,614명이 총 81회에 걸쳐 참여하였다. 또한 SK 구성원이 여름휴가 기간 동안 태안을 방문하고, 회사 내 주요 행사와 팀별 캔 미팅을 태안에서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SK의 태안 살리기 운동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 6월 20일 김신배 SK자원봉사단장이 태안 명예군민으로 위촉되었고, 12월 10일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활동 유공자 포상'에서 대기업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속적인 방제활동과 태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SK 전 구성원이 함께 팔을 걷어붙인 것에 대한 성과이긴 하지만, 태안 살리기는 봉사활동이기 이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영원히 함께 하고픈 사랑의 마음과 밝은 미소

SK에너지 인천CLX 자원봉사를 보고-
신영애 인정재활원 팀장

"재활원 식구들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답니다. 야구장이란 곳도 난생처음 가 봤지만, 야구장 안으로 들어가서 TV에서나 보던 야구선수들을 직접 만나고, 사인을 받고, 같이 사진을 찍는 일은 아무나 체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마 원생들은 물론 교사들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인정재활원의 신영애 팀장은 그날의 기쁨을 아직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2008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SK에너지 인천CLX 구성원들은 인정재활원 정신지체장애인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원생들의 '1일 짝꿍'이 되어 야구장으로 나들이를 다녀온 것이다. 인정재활원은 SK에너지 인천CLX 구성원들이 2008년 2월부터 정기적으로 목욕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 그러니 야구장 나들이는 목욕봉사를 뛰어넘은 특별 이벤트였던 셈이다.

"야구장에 가던 날은 아침부터 원생들 얼굴에 설렘과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특히 스스럼없이 먼저 다가서는 SK에너지 봉사팀의 배려 덕분에 편안함과 포근함이 가득했던 하루였죠."

신영애 팀장은 SK에너지 봉사팀의 모습에서는 언제나 진정 어린 마음과 배려를 볼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야구에 대해 잘 모르는 원생들과 교사들에게 자상한 설명을 곁들여 줘 야구 경기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었다고.

"밤이 되니까 날씨가 쌀쌀해지더군요. 그래서 사실은 원생들이 춥지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도 잠시뿐이었어요. SK에너지 봉사팀들이 너나없이 자신의 옷을 벗어 원생들에게 입혀 주고,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더라고요. 특별히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세심하게 배려해 주어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날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SK와이번즈 선수들의 사인을 받고 함께 사진을 찍던 시간이었다고 한다. 일반인들조차 쉽게 접할 수 없는 기회였기에 그 기쁨은 아직도 진하게 남아 있다고 했다. 인정재활원 식구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추억을 만들어 준 SK에너지 인천CLX 봉사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신영애 팀장은 앞으로도 좋은 만남을 통해 뜻 깊은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원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해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하루였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밝은 웃음으로 함께 해주신 SK에너지 봉사팀을 통해 봉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 그 미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interview 04.

SK 관계사의 Sharing

"아이들의 하굣길,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 지킴이 활동
SK E&S **성지현** 매니저

"저는 서울 대법원에서 강도죄로 15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서 나마 펜을 든 것은 속죄의 다짐으로 제가 만든 범죄예방 자료를 통해 우리 자녀 지킴이 활동에 작은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2008년 6월 어느 날, SK E&S의 자회사인 영남에너지 대표이사 앞으로 청송교도소 재소자가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편지의 주인공은 지난날의 잘못으로 장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두툼한 자료를 동봉해 왔다. 자신의 범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온 각종 범죄예방 자료였다. 그는 자신이 만든 자료를 여러 기관에 보내오던 중 SK E&S의 우리 자녀 지킴이 발대식 기사를 보고 펜을 든 것이었다. 우리 자녀 지킴이 활동을 재소자까지 응원하고 나선 것이다.

SK E&S는 2008년 4월부터 우리 자녀 지킴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를 범죄의 손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 유괴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스 누수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차를 이용해 매일같이 공급권역을 순찰하는 업무 특성에 착안해 우리 자녀 지킴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 지킴이 활동은 SK E&S 자회사들의 순찰차를 이용해 어린이들의 하굣길 안전을 지키는 활동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지킴이 캠페인의 태동 과정에 대한 SK E&S CR지원팀 성지현 매니저의 설명이다. 현재 SK 관계사들은 각자의 업무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1사 1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자녀 지킴이 활동도 그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다. 재소자의 편지는 성지현 매니저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일로 기억되고 있다.

"주위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절로 힘이 납니다. 포항도시가스와 1사 1교로 안전결연을 맺고 있는 오천초등학교 이규호 교장 선생님도 '기업이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아동보호활동에 나선 데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격려해 주시더군요. 그런 격려를 접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죠."

SK E&S의 자회사는 우리 자녀 지킴이 활동을 학부모와 함께 전개하는 등 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들을 대표해 성지현 매니저는 아이들의 하굣길에 대한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우리 자녀 지킴이 활동은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입니다. 다시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05 SK 관계사의 Sharing

SK 주요 13개 관계사는 각 회사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1사 1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SK는 각 기업이 지닌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SK는 앞으로도 각 사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행복을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SK주식회사 | 행복날개 연날리기 축제

SK주식회사는 2006년부터 관계사와 함께 매년 행복날개 연날리기 축제를 개최하여, 행복나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8년에는 2월 23일 한강시민공원 여의지구에서 스턴트 연 묘기 공연, 연 싸움 왕중왕전, 록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초청해 임직원들과 함께 연을 날리는 등 행복날개 연날리기 축제를 우리 사회의 흥겨운 축제마당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SK에너지 | 사랑의 김장 나누기 · 연탄 나눔

SK에너지는 에너지회사라는 기업 특성을 살려 따뜻한 기업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침으로써 행복경영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욱 혹독할 수밖에 없는 겨울철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2004년부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2005년부터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다. 2008년에는 13만 포기의 김치와 117만 장의 연탄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SK텔레콤 | 모바일 공익사업

SK텔레콤은 앞선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미아 · 장애인 · 치매노인 찾기, 긴급 재난 문자방송 서비스, 모바일 헌혈, 청소년 모바일 상담 서비스 등의 공익사업을 실시하여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 휴대폰을 통한 기부문화(1004♥사랑나눔) 활성화,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등 다양한 모바일 공익사업을 전개하여, 이동통신기업만이 펼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SK네트웍스 |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SK네트웍스는 스피드메이트 사업장을 활용하여 아동복지시설 소년 및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스피드메이트 일자리 창출 사업을 2005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실시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 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정비교육과 정비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무료로 지원했으며, 각 지역의 스피드메이트 사업장과 연계하여 현장 실습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SK케미칼 | 한사랑 백신 나누기 · 심기신수련 봉사활동

SK케미칼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한사랑 백신 나누기는 SK케미칼의 비즈니스 역량을 활용한 것으로, 도서지역을 포함한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에게 관할 보건소를 통해 무료백신을 접종해 주고 있다. 또 서울종합장애인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심기신수련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기체조를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있다.

SKC | 매칭펀드를 통한 청소년 후원

SKC는 직원들이 기부하는 금액만큼 회사도 함께 기부하는 매칭펀드를 활용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꿈을 키우고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후원하고 있다. 1사원 1가정 후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매칭펀드를 통한 청소년 후원으로 SKC는 소년소녀가정에 생계 능력이 생길 때까지 교육비와 생필품 비용을 매달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활기차게 자랄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SK C&C |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SK C&C는 IT 서비스 전문기업의 특성을 살려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IT교육원을 설립 · 운영하고 있다. 성남과 일산에 건립된 IT교육원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전문화된 IT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업체와 연계하여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SK C&C는 무료 IT교육원을 통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6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일산 IT교육원은 137명의 수료생 중 116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SK건설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활동

SK건설은 건설회사의 전문성을 살려 2006년부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매월 전개하고 있다. 건축주택부문 C/S 본부 소속 4개 고객센터(서울, 수도권, 중부, 영남)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통해 SK건설은 취약계층 가정에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123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매월 꾸준하게 활동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 지역 복지단체 및 지역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SK해운 | 수상구조대

SK해운은 해운회사의 역량과 특성을 살린 수상구조대를 조직하여 긴급재난 구조활동, 해양 및 하천 환경보호 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는 한국해양소년단과 공동으로 청소년 해양캠프를 개최하여 어린이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8년 9월에는 한강시민공원에서 'SK해운과 함께하는 장애우 한강 수상체험활동'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에게 수상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삶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 줬다.

SK증권 | 청소년 경제교실

SK증권은 금융회사의 특성을 살려 2006년부터 청소년 경제교실을 열고 있다. 초창기에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용돈 관리 등 기초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했으나 2007년에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교안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시장경제와 기업활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한편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신정여상, YWCA,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등 각급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청소년 경제교실'을 개최, 큰 호응을 얻었다.

워커힐 | 아차산 자연보호 · 민속공연

워커힐은 2002년 '아차산을 사랑하는 모임'을 창단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자연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창립기념일을 맞아 실시되는 캠페인에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가할 만큼 전사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또한 15년 전부터 어버이날에는 인근 지역의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하여 무료로 워커힐 민속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진구청 · 구리시청과 연계해 인근 지역뿐 아니라 광역권까지 무료 공연 관람 행사를 확대하고 있다.

SK E&S | 우리 자녀 지킴이

SK E&S는 2008년 4월부터 사업장의 순찰차를 이용해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우리 자녀 지킴이'를 시행하고 있다. 매일같이 도시가스의 안전을 점검하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기획된 이 활동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SK E&S는 패트롤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으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길을 지나야 할 경우에는 직접 동행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SK가스 | 소년소녀가장 · 결식아동 돕기

SK가스는 사업장이 위치한 울산과 평택 인근의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에게는 매월 쌀과 학용품비를, 자매결연을 맺은 울산 선암초교 · 평택 원정초교의 결식아동에게는 매월 쌀과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매결연을 맺은 초등학교에는 매년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SKT-SSU
IT Trainin
Center

SK·光华创新教室
北京四中揭牌仪式

IT Training Orien
7. Dec. 2007

국경을 넘어

SK는 우리나라를 넘어 더 큰 세계, 더 넓은 세상에서

행복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국 · 베트남 · 몽골에서 페루 · 이라크까지,

빈곤과 차별의 장벽을 넘어

지구촌 여러 곳을 찾아 희망찬 행복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인종을 넘어

SK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성과

중국 · 베트남 · 몽골 · 페루 등 세계에서 행복나눔의 날개를 펴다

SK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오고 있다. 성공적인 세계화를 추진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기업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이다. 특히 글로벌화 · 현지화가 가속화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떠오름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기업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1 중국 사회공헌활동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2007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반면에 환경오염 가중,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기도 하다. 한중 수교 이전에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중국에 지사를 설립한 SK는 이미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이 될 중국을 21세기 핵심 전략지역으로 선언하고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여 왔다. 이와 함께 SK는 단순한 현지화를 넘어 중국과의 '공존과 공영'이라는 원칙 아래 인재양성 · 문화교류 · 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SK장원방(壯元榜)

SK는 인재양성이 궁극적으로 한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오랜 믿음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다양한 교육 · 장학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0년부터 시작된 〈SK장원방〉이다. SK는 단순한 스폰서십 차원의 프로그램 후원을 넘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과 청소년 캠페인을 개발하여 중국 사회의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SK는 〈SK장원방〉을 중국의 대표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중국 사회에서 호의적인 기업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중국 인재양성의 산실, SK장원방

SK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고유의 기업문화를 중국에 뿌리내리기 위해 1973년부터 35년간 장수를 누리고 있는 TV 프로그램 '장학퀴즈'를 현지화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SK장원방〉이라는 이름으로 베이징TV를 통해 방영하고 있다. 현재 베이징을 비롯한 상하이 · 톈진 등 3개 직할시와 산둥성에서 방영되고 있는 〈SK장원방〉은 중국 최고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최고의 프라임 시간대인 토요일 저녁 6시 35분부터 1시간 동안 방영되어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SK장원방〉은 초창기에 주장원 · 월장원 · 기장원에 이어 연장원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매주 우승자를 뽑고 승리를 누적하는 연승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중국 각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도시를 대표하여 자존심을 걸고 경쟁하도록 기획되어 흥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한국의 〈장학퀴즈〉와 마찬가지로 입상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주어지는데, 매주 우승자에게 3,000위안을 지급하고,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3,000위안을 누적해서 지급하고 있다. 연말에는 최다 연승자 4명이 모여 자웅을 겨루는 연장원전을 개최하여 연장원에게 4만 위안, 연차석은 2만 위안, 나머지 연장원 진출자 2명에게는 각각 1만 위안을 지급하고 있다. 연장원전에 진출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대학 진학 후에 연 단위로 지급하고 있다.

● 중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SK장원방배 고교생 영어경시대회'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이후 중국 사회에는 영어학습 열기가 뜨겁게 고조되기 시작했다. SK는 이러한 열기에 부응하여 중국 청소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장학금 지급을 통한 기업 선호도를 제고하기 위해 2001년부터 'SK장원방배 고교생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중국 교육계와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베이징과 상하이를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되고 있는 SK장원방배 영어경시대회는 현재 중국 내 최고의 영어경시대회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영어경시대회는 두 사람이 한 팀으로 참가하여 스피치(Speech), 단어 맞히기, 미니 플레이(Mini-play) 등 3가지 유형의 구두

테스트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5년부터는 대회 범위를 넓혀 중국 3대 직할시인 베이징 · 상하이 · 텐진에서 동시 개최함으로써 전국대회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의 만남, SK 한중청소년캠프

SK는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방영되고 있는 〈장학퀴즈〉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양국 우수 인재들의 교류를 통해 미래 협력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2001년부터 'SK 한중청소년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SK 한중청소년캠프'는 한국의 〈장학퀴즈〉와 중국의 〈SK장원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8박 9일 동안 두 나라를 오가며 양국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장차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교류의 장이다. 이를 통해 보다 긴밀하고 발전된 한 · 중 관계의 미래를 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 한중청소년캠프에서는 양국의 IT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향후 발전상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2008년에는 베이징올림픽의 3대 테마 중 하나인 '환경'을 주제로 양국의 환경보호 노력을 체험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중청소년 환경정상회의' 형태로 개최했다.

긴급 구호 지원

● 폭설 피해 지원

2008년 1월 중국의 20개 성과 시는 50년 만에 내린 최악의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후난(湖南)성, 후베이(湖北)성, 꾸이저우(貴州)성, 지앙시(江西)성, 안휘이(安徽)성 등의 피해가 컸으며,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베이성의 경우 경제 손실액이 82억 8,000만 위안에 달했다. SK는 2월 14일에 신헌철 부회장 명의의 위로서한을 전달하고, 후베이성과 우한시(우한국제인재교류협회)에 각각 20만RMB와 10만RMB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우한시가 주최한 설해지원행사에서 SK중국투자유한공사 임직원이 SK를 대표하여 전달한 지원금은 자연재해로 인해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 쓰촨성 지진 피해 복구 지원

2008년 5월 12일에 발생한 쓰촨성 대지진은 중국 정부가 '국가적 중대 재난'으로 선언할 만큼 막대한 피해를 기록했다. SK는 '진정한 China Insider로서 중국과 아픔을 나눈다'는 취지 아래 그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진 피해 복구활동을 지원했다. 지진 발생 후 3일 만에 전사 차원의 구호활동 지원을 결정한 뒤, 기부금(1,000만RMB)과 중국 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20만RMB)을 중국홍십자회에 전달했다. 또한 의류 6만 점(한화 약 15억 원 상당)과 도로 복구를 위한 아스팔트 1,000톤(한화 약

6억 원 상당)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들이 외국 대기업 CEO로서는 최초로 직접 재해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격려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SK는 현재 지원 방안의 하나로 쓰촨성 펑조우시에 완벽한 내진 설계를 갖춘 친환경소학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소학교가 완공되면 천막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지진 피해에 대한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SK- 광화기금회 협약 및 SK공익기금 조성

행복나눔 경영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파해 온 SK는 중국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08년 1월,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산하 중국광화과학기술기금회와 협약을 통해 'SK공익기금'을 설립했다. 향후 3년간 600만 위안을 지원하여 조성되는 SK공익기금은 중 · 고등학교의 과학 및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인 '창신교실(創新教室)'과 대학생 대상의 창업 ·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KAB(Know About Business)'를 중심으로 중국 내 교육 · 장학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중국광화과학기술기금회는 중국 청소년의 과학기술사업 지원, 청소년 성장 지원, 중화민족 과학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3년 설립된 단체로, 중국 내외의 공익성 성금 모금과 공익기금 설립, 국제협력 추진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 SK창신교실

SK는 2008년부터 중국광화기금회와 공동으로 중 · 고등학생의 창의력 증진을 위한 'SK광화창신교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SK공익기금 사업의 일환인 SK창신교실은 중국 내에서 기업이 교육에 투자하는 최초의 사례로, SK는 창신교실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커리큘럼, 교사 교육 등 과학교실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SK는 2008년 한 해 동안 북경 제4중학 등 베이징 소재 10개 학교에 창신교실을 설립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창신교실은 학교별 특성에 따라 건립되며, 10월 24일에 창신교실의 문을 연 북경 제4중학의 경우에는 인테리어와 함께 로봇 만들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2D 및 아트 디자인 등이 가능한 기자재가 설치됐다. 2008년에 SK창신교실이 설립된 학교는 북경 제4중학을 비롯 제35중학, 101중학, 제55중학, 제2중학, 회민중학, 제8중학, 문회중학, 제9중학, 제12중학 등 총 10곳이다.

● KAB(Know About Business) 특강

SK는 SK공익기금을 활용해 UN 산하 ILO(국제노동기구)와 광화기금회가 협력 프로그램으로 추진 중인 'KAB(Know About Business ; 비즈니스 이해)' 특강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의 창업 및 취업 지원 특강인 KAB는 2008년 봄학기에 복단대 · 북경

대 등 8개 대학에서 시작되었으며, 가을학기에는 북경대 · 청화대 등 22개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 혁신을 통한 성장, 리더십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2005년 9월부터 대학생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동 중인 KAB는 KAB Lecture, KAB 과정, KAB 창업응모전, KAB 창업기금 등으로 구성되며, 2006년까지 프로젝트 시범단계를 거쳐 현재 SK와 노키아 사의 지원 아래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 내 중소기업의 CEO와 임원이 강사로 참여하여 진행되는 KAB 특강은 자신의 창업 경험, 대학생 창업에 대한 조언 등 창업에 필요한 외부환경과 조건, 기업의 경영과 리더십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학술지원 사업

SK텔레콤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해 아시아 국가의 우수한 학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 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학문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국제학술교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학술교류와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학문 발전과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정치 · 경제 · 철학에서 에너지 · 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국의 경우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사회과학원 · 북경대 · 청화대 · 복단대 등 30개 대학 및 연구원의 학자 250여 명이 SK의 지원을 통해 국제교류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SK는 2001년부터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함께 아시아의 주요 대학에 아시아연구센터(Asia Research Center)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학문 발전과 상호 이해 증진,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시아 각국의 공동번영과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북경대, 청화대, 중국사회과학원, 중국 인민대, 중국전매대학, 요녕대, 복단대, 난개대, 북경 외대, 연변대 등 10곳에 아시아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SK는 각 대학의 아시아연구센터를 기반으로 학술교류 및 연구역량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의 주요 대학들이 아시아 경제권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시아연구센터는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아시아권 학자들의 학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SK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이징포럼 및 상하이포럼 지원

SK텔레콤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해 북경대학이 주관하는 베이징포럼과 복단대학이 주관하는 상하이포럼을 각각 2004년과 2005년부터 후원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문명의 조화와 공동번영 – 문명의 보편적 가치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조어대국빈관 및 북경대학에서 열린 2008 베이징포럼에는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류연동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샤 즈캉 UN 부사무총장, 쉬 즈홍 북경대 총장, 모한 무나싱히 UN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부회장, Harry T. Dickinson 영국역사협회 부회장, 고이야마 히로시 일본 도쿄대 총장, 마이 트롱 누안 베트남하노이국립대 총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등 많은 지식인들이 참석하여 동아시아 최고의 학술대회로 자리잡은 베이징포럼의 위상을 과시했다. 특히 IPCC는 2007년에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한 UN기구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협력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SK는 앞으로도 이들 포럼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세계적인 지식과 정보의 교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희망소학교 건립

SK텔레콤은 중국 정부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동참하여 2007년 신강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시에 희망소학교를 건립했다. 'SK 애심소학'이라 이름 붙여진 이 학교는 기존의 낡은 소학교 3개와 중학교 1개를 통폐합하여 새롭게 건립된 것으로, 주변 80km 이내 지

역의 학생 240여 명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교사와 학교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이중언어 교육(소수민족 언어와 한어 교육) 등 중국 정부의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SK애심소학은 지역사회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그동안 낙후된 교육 인프라로 인해 공교육에서조차 차별을 받아 왔던 자녀들이 비로소 완벽한 이중언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연변 IT센터 건립

SK텔레콤은 2007년 8월, 중국 연변에 IT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지원을 통해 세계청년봉사단(KOPION)이 건립한 연변 IT센터는 IT 교육장뿐만 아니라 북카페 · 직원 숙소 · 세미나룸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변지역은 민간은 물론 중 · 고교와 대학 등 공공 교육기관조차도 제대로 된 IT 교육시설을 갖추지 못해 정보화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IT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연변 IT센터는 연변지역 정보화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변 IT센터는 조선족 인재 발굴 사업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어 · 한국어 · 리더십 교육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한중리더십캠프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족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아시아 학술대회 참가

SK텔레콤은 2007년 7월 중국 항조우에서 열린 '동아시아사회복지학술대회'와 2007년 9월 서울에서 한 · 중 · 일 3국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3회 동아시아사회보장학술대회'에 참가하여 SK텔레콤이 전개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등 SK텔레콤이 정부 및 NGO와 공동으로 기획 ·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협력모델이 국제적으로 기업 사회공헌의 성공사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사회보장학술대회에는 중국 인민대학 사회보장연구센터, 베이징대학 등에서 50여 명의 학자들이 참가하여 중국 사회가 당면한 양극화 및 인구구조 변동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국의 사회공헌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자원봉사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는 2008년 6월 말부터 7월 8일까지 9박 11일 동안 중국 베이징과 쿤밍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먼저 중국 청화대 학생들과 함께 베이징 외곽의 농민공학교인 쩐화소학을 찾아 낙후된 교육시설을 보수하

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 체육활동 · 문화공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베이징 외곽의 '농민공학교'는 생활고로 인해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는 '농민공'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중국 정부가 제도권 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아 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중국은 성 체제로 인구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성에 살고 있는 자녀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성(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민들(농민공)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회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특히 중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또한 폭넓은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기획 과정,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수혜자가 모두 즐거울 수 있는 'Voluntainment'(Volunteering과 Entertainment의 합성어)를 추구하는 정신 등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베이징 지역 봉사활동을 마친 후에는 워크캠프 단체인 JIA(Joy In Action)와 연계된 운남대학 학생들과 함께 쿤밍(昆明) 지역의 소수민족 마을인 '소수탕 마을'을 찾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마을길 닦기, 옥수수밭 제초 작업, 마을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청화대 및 현지 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된 이 자원봉사활동은 양국 대학생들이 봉사를 통해 하나가 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SK는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문화를 활성화하고 꾸준한 문화교류를 통해 한 · 중 양국간 우호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SK에너지 희망소학교 건립

SK에너지는 중국의 '희망공정'에 동참하여 희망소학교를 건립했다. 1989년 10월부터 시작된 희망공정(希望工程, Project Hope)은 중국 정부 재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빈곤 계층의 교육문제를 사회 각계의 기부금을 유치하여 해결하기 위한 민간구조방식의 사회 공익사업이다.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소학 6년+초급 중학 3년) 단계의 학업마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극빈층 아동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신설과 교사 배치 등을 통해 빈곤 지역의 낙후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공청단 산하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China Youth Development Foundation)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사업은 주요 성과 시별로 추진 본부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희망공정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SK에너지는 우루무치시에 미화 2만

5,000달러를 기부하여 2006년 10월에 희망소학교를 준공했으며, 이어서 심양시(2006년 7월), 운남성(2006년 12월), 후베이성(2007년 6월)에 각각 미화 2만 달러를 지원하여 희망소학교를 건립했다.

SK우호림 조성 사업

SK에너지는 2007년부터 중국의 황사피해 저감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해 방사림(防沙林)을 조성하는 '한중우호녹색장성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한중우호녹색장성 사업은 한중문화청소년협회 '미래숲'과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주관 하에 2006년부터 5년 동안 총 70억 원을 투자하여 황사 주발원지인 네이멍구(內蒙古) 쿠부치 사막지역에 28km^{2}의 방사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SK에너지는 3월 17일 SK 서린사옥에서 신헌철 부회장과 권병현 '미래숲'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3억 원의 SK우호림 조성 기금을 기부했다.

2007년 5월에 123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처음 조성된 SK우호림은 85%의 활착률(심은 나무 수에 대하여 살아난 나무 수의 비율)을 보여 이 지역의 황사 피해 저감 및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했으며, 2008년에도 12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그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났다.

연변제일중학교 졸업생 장학금 지원

SK해운은 1994년 5월부터 중국 내 조선족 학생의 주요 대학 진학을 장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조선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연변제일중학교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1952년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설립된 연변제일중학교는 민족언어로 강의하는 조선족 고등학교로,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소수민족 시범학교이자 중국 교육부 선정 전국 20개 중점 중소학교 중 하나이다.

SK해운은 연변제일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북경대 · 청화대 · 복단대 등 주요 3개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4,500위안, 기타 명문대에 진학할 경우에는 3,000위안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IMF 위기 때에도 지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는 등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294명에게 340만 위안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02 베트남 사회공헌활동

Post BRICs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은 2002년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이후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SK는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하기 이전인 1996년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베트남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현지 주민들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SK텔레콤문고와 IT교육센터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사업 '베트남 어린이에게 웃음을'

1990년대 중반 베트남 사회에서는 일명 '언청이'라 불리는 얼굴기형어린이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베트남 정부는 얼굴기형어린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SK텔레콤과 세민얼굴기형돕기회(Smile for Children)가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지원에 동참하면서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사업'이 시작되었다.

'베트남 어린이에게 웃음을(Smile for Children)'이란 슬로건 아래 시작된 무료수술 사업을 통해 SK텔레콤은 1996년 193명을 시작으로 매년 200여 명의 구순 · 구개열 등 얼굴기형어린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밝은 웃음을 되찾은 어린이는 2008년까지 13년 동안 총 2,676명에 달한다.

2007년에는 호치민 주석의 고향인 응에안지역에서 28명의 한국 의료진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202명을 수술하였으며, 2008년에는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베트남 최남단 까마우지역에서 총 25명의 한국 의료진과 Sunny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181명의 얼굴기형어린이에게 무료수술을 실시했다.

SK텔레콤은 자립과 자활 등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행복한 변화'의 원칙에 따라 단순히 무료수술 사업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 스스로 얼굴기형어린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108국군병원 의료진들과 함께 수술을 진행하여 선진의료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수술과 마취 장비 · 의약품을 지원하여 독자적인 수술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108국군병원의 낡은 의료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추가 장비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하여 2008년부터 베트남 의료진의 국내 연수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사업 추진 경과

시기	장소	시술 인원
1996년	하노이	193명
1997년	후에	250명
1998년	하노이	155명
1999년	호치민	251명
2000년	하노이	197명
2001년	호치민	250명
2002년	타이응웬	240명
2003년	미토	157명
2004년	박칸	200명
2005년	박닌	200명
2006년	남딘	200명
2007년	응에안	202명
2008년	까마우	181명
총계		**2,676명**

베트남 IT교육센터 건립

SK텔레콤은 2007년 12월, 호치민시 12구 꽝쭝 특구 내에 'SK텔레콤 IT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숭실대 · SK C&C와 협력하여 'SKT-SSU IT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IT교육센터는 SK텔레콤이 사업 기획 및 예산을 지원하고, SK C&C가 교육과정 개발 및 강사 지원을 담당하며, 숭실대가 IT교육센터를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베트남은 2006년 11월 WTO 가입 이후 IT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IT 기업의 현지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계속된 IT 육성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IT 전문인력의 공급이 시장의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립된 SK텔레콤 IT교육센터는 JAVA, UNIX, ORACLE 분야의 전문 IT인력 교육을 담당하여 현지의 IT 기술 개발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5개월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SK텔레콤 IT교육센터는 2008년 상 · 하반기에 각각 31명과 39명 등 총 7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이 중 성적이 우수한 13명은 숭실대 IT대학원에서 유학과정을 밟고 있으며, 5명은 SK텔레콤의 글로벌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였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IT교육센터를 통해 배출된 우수 인력의 한국 유학과 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베트남 지역사회의 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베트남 도서관 지원 사업, SK텔레콤 문고

SK텔레콤은 NGO 지구촌나눔운동과 공동으로 2006년부터 베트남의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SK텔레콤문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문고 사업은 교육열은 높으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베트남에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베트남 주요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전문 도서 및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SK텔레콤문고는 베트남의 교육 · 장학 분야에 기여하기 위한 본격적인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06년 9월 호치민 폴리테크닉대학을 시작으로 2007년 말까지 하노이 · 호치민 · 하이퐁 등 3개 도시 주요 도서관 8곳과 호치민시 'SK텔레콤 IT 교육센터'에 전문 IT 도서관을 개설하는 등 총 9곳에 SK텔레콤문고를 설립했다. 지금까지 SK텔레콤문고가 설립된 곳은 호치민 폴리테크닉대학 도서관, 호치민 경제대학 도서관, 하노이 국립도서관, 호치민시립도서관, 하노이 외상대학 도서관, 하이퐁 시립도서관, 하노이 국립대학 도서관, 베트남 국립대학 중앙도서관, SK텔레콤 IT교육센터 도서관 등이다.

베트남 국제학술 지원 사업

SK는 2000년부터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해 아시아 국가의 학문 발전 및 상호교류를 위한 국제학술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오고 있다. 베트남은 그 주요 대상국 중 하나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매년 베트남 학자 초청 방한 연구 지원, 아시아연구센터 설립, 국제학술회의 개최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베트남 학자 초청 방한연구 지원

베트남 학자들의 학문활동을 장려하고 한국 · 베트남 간 교육 및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유망 신진학자를 한국에 초청, 1년간 국내 대학 및 연구소에서 협력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연구비 · 정착비 · 논문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평균 약 3만 달러가 지원되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강좌 · 한국문화여행 · 한국학 특강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총 37명의 베트남 학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 한국에서 협력연구를 수행했다.

● 아시아연구센터 설립 운영

베트남 학자들의 학술연구활동을 장려하여 학문 발전을 꾀하고 사회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2002년 1월 베트남 하노이국립대에 아시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아시아연구센터를 통해 베트남의 대학교수와 연구자, 학술연구단체를 대상으로 우수 연구과제 및 학술회의 · 학술출판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국제학술회의 개최 지원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 아시아연구센터가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정보통신 분야 국제학술회의인 '하노이 정보통신 테크놀로지 포럼'을 지원하여 베트남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제1회 하노이 정보통신포럼은 2007년 12월에 개최되었으며, 2008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2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자원봉사

베트남 지역사회와 상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SK의 노력은 자원봉사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5년부터 매년 1회 이상 베트남 현지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는 2008년까지 234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총 9회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2007년 1월부터는 호치민 청년동맹(Youth Union)과 협력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베트남 현지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문화전도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베트남 청년동맹의 주관 아래 매년 여름 베트남 전역에서 진행되는 자원봉사 캠페인 'Green Summer Campaign'에 참여하여 프랑스 · 미국 · 일본 ·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문화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오고 있다.

2008년에는 1월에 46명, 7월에 23명 등 총 69명의 Sunny가 베트남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베트남 전쟁 최대 피해지역 중 하나인 붕따우와 벤쩨를 방문하여 집짓기, 학교 개보수, 아동 교육, 나무심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현지 가정에서의 홈스테이를 통해 베트남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봉사활동을 마친 후에는 호치민에서 청년동맹 및 South Youth Center 회원들과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베트남 최고의 신문사인 'Tuoi Tre' 및 'Thanh Nien'을 방문하여 국내외에서 펼쳐지는 Sunny 활동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8월에는 베트남 청년 14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서울 · 인천 등지에서 Sunny와 공동 자원봉사를 펼치기도 했으며, 중 · 고교생으로 이루어진 17명의 한국청소년 자원봉사단을 파견하여 벤쩨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interview 05.

글로벌 행복나눔

SK텔레콤 베트남 IT교육센터 1기 교육생 **응오 민 찌** 씨

베트남에 피어난 IT 전문가의 꿈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연히 신문에서 SK텔레콤 IT교육센터 기사를 본 것도 그렇고, 교육생으로 뽑힌 것도 그렇고…."

SK텔레콤 베트남 IT교육센터 1기 교육생인 응오 민 찌 씨는 IT교육센터와의 인연을 '운이 좋아서'라고 표현했다. 우연한 기회에 신문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큰 이동통신기업인 SK텔레콤과 SK C&C, 그리고 오랜 역사를 지닌 숭실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곳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운이었을까.

"IT교육센터 학습과정에 지원할 때부터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리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이곳에 대한 도전은 내 생애에서 대학 입학에 이어 두 번째의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힐 수 있었죠."

운이 좋았다는 것은 결국 겸손한 표현이었다. 응오 민 찌 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IT교육센터에 지원했고, IT 전문가 교육과정을 통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교육을 수료한 지금까지도 IT교육센터는 응오 민 찌 씨의 뇌리 속에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다.

"교육센터에서의 생활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수업환경, 현대적인 시설, 열정적이고 경험 많은 강사들, 이론수업과 토론, 전문적인 영어 교재 등 모든 것이 훌륭했으니까요. 센터는 교육생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었고, 교육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크닉 · 축구 등과 같은 재미있는 과외활동도 할 수 있었죠."

베트남 IT교육센터는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온 유명 교수 및 한국 총영사의 세미나, 숭실대 대학원생들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했으며, 교육 후반에는 베트남 내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초청하여 취업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응오 민 찌 씨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 SK가 IT교육센터에 매우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IT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교육생들이 대학 졸업 후에도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팀 작업, 영어 프레젠테이션, 검색 · 정보수집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죠. SK텔레콤과 SK C&C 모두 유명한 회사라서 IT교육센터를 수료했다고 하면 취업하기도 쉬웠습니다."

응오 민 찌 씨는 IT교육센터 외에도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과 도서관 사업 등 SK가 베트남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알고 있다며, 베트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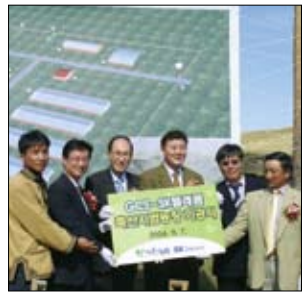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IT교육센터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다 SK! OK! SK!"

03 몽골 사회공헌활동

국가경제에서 농업과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몽골은 1992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으나 계속된 자연재해와 산업 시설의 미비로 최빈국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구리 · 석탄 · 금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5년 520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GDP가 2012년 7,000달러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SK는 새로운 엘도라도로 떠오를 몽골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몽골 축산시범농장 개발 사업

SK텔레콤은 지구촌나눔운동과 함께 2004년부터 몽골 자르갈란트 마을에 축산시범농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몽골 유목민에게 살기 좋고 소득 높은 축산시범마을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축산시범농장사업은 젖소 시범사육, 채소재배, 농축산 기술교육 등을 통한 유목민의 자립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SK텔레콤은 축산시범농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시범농장 사업은 크게 소득증대, 주민교육, 환경개선, 민간교류 등 4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소득증대 사업은 가난한 유목민에게 어린 소나 양을 대여하여 소득증대의 수단을 마련하는 가축은행 사업과 여름철에 값싼 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였다가 혹한기에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료은행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가축은행을 통해 1인당 하루 평균 소득이 1달러 미만인 최극빈층 30가정에 젖소를 지원했으며, 사료은행을 통해 6개 지역 110가정에 사료 1만 5,000묶음과 건초 100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채소재배와 젖소시범사육, 우유 생산량 증대 등의 주민교육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증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유목민 50가정에 휴대폰을 지원하는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원활한 정보교류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르갈란트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몽골 가톨릭 초등학교 건립 지원

SK에너지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몽골 내 가톨릭 초등학교 건립을 위하여 기금을 후원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몽골에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대학 교육까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몽골 정부를 통해 울란바토르에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했으며, 여기에 교실 10개를 포함 총 30여 개의 목적교실로 구성된 3층 건물의 초등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다. SK에너지가 지원한 기부금은 부지 기초공사에 쓰이게 된다.

희망의 PC 기증

SK C&C는 2007년부터 2년 동안 몽골 취약청소년의 IT 수준 향상을 위한 '희망의 PC 기증'을 실시하고 있다. 몽골 정보통신청과의 협조로 이뤄진 PC 기증 활동으로 전달된 PC는 울란바토르 시내의 학교와 병원에 전달되어 정보화에 소외된 청소년들의 IT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몽골에 위치한 SK C&C 자회사인 Sky C&C는 앞으로도 몽골에서 지속적인 IT 기반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04 페루 · 이라크 사회공헌활동

페루 재건 위한 학교 기증

SK에너지는 2007년 8월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페루 서부 이까 주(州) 싼 클레멘떼 시(市)에 '마리아 빠라도 데 베이도' 학교를 신축해 기증했다. 이 학교는 SK에너지가 페루에서 추진 중인 52개 학교 재건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실로, 9월 12일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과 한병길 주(駐)페루 대사, 이까 주지사 및 싼 클레멘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을 갖고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SK에너지는 학교 재건 외에도 의료시설 복구와 의료 기자재 공급, 지역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페루 지진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 SK에너지는 페루의 지진피해를 돕기 위해 2007년에도 성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라크 난치병 어린이 치료 후원

SK에너지는 2008년 7~8월 이라크 난치병 어린이를 한국으로 이송하여 치료하기 위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산하단체인 (사)종교평화국제사업단에 항공료와 체류 경비를 후원했다. 이라크 난치병 어린이 이송 치료는 이라크의 이슬람 최고평의회가 외교통상부에 요청하고, 외교통상부가 이라크 어린이 이송 치료 경험이 있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협조를 구하면서 진행됐다.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대내외 평가

세계가 인정한 SK의 행복나눔 경영

SK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은 대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투명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태원 SK 회장이 한국 경영인 중 최초로 '유엔글로벌컴팩트' 이사에 선임되었으며, 세계 유력 경제지 포춘은 국내 기업 중 사회적 책임도가 가장 높은 기업으로 SK를 선정했다. 또한 국내 통신기업 중 최초로 SK텔레콤이 다우존스의 지속가능지수(DJSI)에 편입되었으며, 중국과 베트남 정부로부터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수훈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SK는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세계 각지에 행복나눔의 정신을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최태원 SK 회장 UNGC 이사 선임

최태원 SK회장은 2008년 5월 한국 경영인 최초로 '유엔글로벌컴팩트(UNGC)' 이사에 선임됐다. UNGC 이사회는 노동 · 환경 · 투명경영 등 사회적 책임 활동에 공로가 있는 기업인과 시민단체, 노동단체 관계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UNGC 이사는 각종 행사에 UNGC 대표로 참석하여 투명경영 등 사회책임경영 활동을 펼치게 된다.

최태원 회장의 UNGC 이사 선임은 그동안 SK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하여 추진해 온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과 사회책임경영 활동이 국제무대에서 공식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UNGC는 2000년에 발족한 UN 산하 전문기구로 인권 · 노동 · 환경 · 반부패 등의 분야에서 기업과 단체가 지켜야 할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2월 현재 SK텔레콤과 SK에너지 등 국내 150여 개 기업과 단체를 포함하여 130여 개 국가의 6,700여 개 기업이 UNGC에 참여하고 있다.

포춘 선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국내 1위

SK가 포춘 '글로벌 100대 기업'에 포함된 국내 기업 중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SK는 2008년 11월 유력 경제전문지인 포춘(FORTUNE)이 영국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기관인 어카운터빌리티, CSR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한 글로벌 100대 기업의 책임감 지수 평가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은 51위를 차지했다. 1위는 영국의 이동통신기업인 보다폰이 차지했으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60위) · 현대(61위) · LG(68위) 순으로 평가됐다.

포춘의 책임감 지수는 기업이 사회적 · 환경적으로 얼마나 책임 있게 경영활동을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기업경영에서 ▲사회적 · 환경적 책임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지역사회 · 직원 · 주주 · NGO 등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SK는 2007년 11월에 발표된 평가 결과에서도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은 44위를 기록한 바 있다.

SK텔레콤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 편입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Member 2008/09

SK텔레콤이 국내 통신기업으로는 최초로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DJSI)에 이름을 올렸다. 다우존스와 SAM사는 2008년 9월 국내 68개 상장사를 비롯해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된 전 세계 2,540여 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최상위 12.6%에 해당하는 25개국 320개 기업을 'DJSI 편입기업'으로 선정 · 발표했다. 1999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DJSI는 각 산업별로 80~120개 지표를 사용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경제 · 환경 · 사회적 관점에서 엄격하게 평가하여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DJSI 편입을 위해

서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지수 편입만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기업임을 세계적으로 공인받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2008년 DJSI에 편입된 국내 기업은 SK텔레콤을 비롯해 삼성SDI, 포스코 등 3개 기업이다.

중국홍십자 특별훈장 수상

SK가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홍십자 특별훈장을 수상했다. 7월 29일 중국홍십자 총회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쓰촨성 대지진 후 재해복구활동에 적극 참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우수자원봉사자, 재난복구선진개인 및 선진집체, 특별지원상, 특별공헌상 등을 수여했다. 특별훈장은 1,000만 위안 이상의 성금을 지원한 22개 기업에게 수여되었으며, 한국 기업 중에서는 SK 등 3개사가 수상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학교 건설을 약속하는 등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적 ·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부빈기금회 주최 사회공헌 우수기업상 수상

SK가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중국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국무원 산하 '부빈기금회'가 주최한 '2008 사회공헌활동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SK를 비롯 아리바바(阿里巴巴), P&G 등 중국 및 외국기업 20개사가 선정됐으며, 한국 기업도 2개사가 포함됐다.

부빈기금회 측은 선정 이유에서 "빈곤 퇴치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사업에 꾸준히 투자해 온 점,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에 앞장서 온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지진 당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그룹의 최고 경영진들이 직접 대사관에 마련된 빈소와 재해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국 기업시민'으로서 보여 준 진정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부빈기금회는 중국 국무원이 1989년 빈곤 해소와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로, 매년 중국 내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평가해 상위에 오른 50여 개 기업을 표창하고 있다. 2008년 사회공헌 우수기업 선정에서는 빈곤 해소와 인재양성 활동 외에도 쓰촨성 대지진 구호활동에 대한 공로 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김신배 부회장 베트남 국가우호훈장 수훈

김신배 전 SK텔레콤 사장(현 SK C&C 부회장)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가우호훈장'을 수여받았다. 베트남에는 10여 종의 훈장이 있으나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은 노동훈장과 우호훈장이 전부이며, 특히 우호훈장은 주로 임기를 마친 주요국 대사에게 수여되는 것이 관례여서 이번처럼 기업인이 받은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이번 김신배 전 사장의 수훈은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을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활동, IT교육센터 등의 교육사업 지원, 자원봉사, 빈곤층 지원활동 등 현지에서 펼치고 있는 SK텔레콤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공로를 베트남 정부가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6월 19일 하노이 시내 국방부 호텔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응웬 티 조안 국가부주석이 참석하여 훈장을 수여했다.

2008 SK 텔레콤
11.27

따로 또 같이, 나눔과 참여로 써 내려간

행복을 나누는 일에 너와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론 혼자서, 때론 여럿이 함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사회복지에서 교육·장학, 환경보존, 문화·예술·체육, 글로벌, 자원봉사에 이르기까지

나눔과 참여를 통해 써 내려간 SK 주요 13개 관계사의 행복보고서.

SK 구성원의 따뜻한 손길에서 희망과 행복이 시작됩니다.

행복보고서

SK 주식회사

SK주식회사는 SK를 대표하는 지주회사로서 관계사 공동 프로그램에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는 한편, 단일회사로서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임직원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년 5월 자원봉사단을 창단하여 본격적으로 자원봉사하는 기업으로 활동을 시작,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킨 동시에 전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냈다.

문화·예술·체육 부문

행복날개 연날리기 축제 개최

SK주식회사와 SK 주요 관계사들은 2월 23일 한강시민공원 여의지구에서 '행복날개 연날리기 축제'를 열고 새로운 한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날개 연날리기 축제는 행복나눔을 실천하고 동시에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3년째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08년 행복날개 연날리기 축제는 SK 관계사 임직원과 가족 4,000여 명, 비즈니스 파트너와 일반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스턴트 연 묘기 공연, 연 싸움 왕중왕전, 전통문화공연, SK 관계사 록밴드의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특히 축제에 초청된 다문화가정

SK주식회사는 연초마다 행복날개 연날리기 축제를 개최하여 어린시절의 향수와 더불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 행복나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어린이들은 최태원 회장을 비롯 임직원들과 함께 소망을 적은 연을 날려 보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또 SK 글로벌 인턴십 과정 해외인력과 한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 200여 명이 참가해 자국의 연을 선보여 인기를 얻었다. SK주식회사는 앞으로도 행복날개 연날리기 축제를 통해 행복나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원봉사 부문

‘SK가 드리는 행복한 점심’ 행사

SK주식회사 박영호 사장과 임직원 150명은 5월 28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 서울 · 경기지역 2,5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SK가 드리는 행복한 점심’ 행사를 갖고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SK주식회사 임직원들은 급식과 설거지, 구두닦기, 안경세척, 물품 및 식재료 정리 등 평소에 어르신들이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도와주는 맞춤형 봉사를 펼쳤다. 또한 급식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컴퓨터 20대를 무료로 설치했다.

SK주식회사 박영호 사장과 임직원들은 ‘SK가 드리는 행복한 점심’ 행사에 참여, 2,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배식 봉사를 비롯한 맞춤형 봉사를 펼쳤다.

사랑의 연탄 나눔 자원봉사

SK주식회사 박영호 사장은 11월 11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박영호 사장과 임직원 22명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산동네를 찾아 기초생활수급자 13가구에 가구당 300장씩 총 3,9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산동네의 좁은 골목길에서 5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굵은 땀방울을 통해 행복나눔의 가치를 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SK주식회사 박영호 사장과 임직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동네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3,9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아주 특별한 송년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복나눔 계절을 맞아 SK주식회사는 송년회 대신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개최했다. 12월 20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박영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92명이 참가해 서울 · 경기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1,200포기의 행복김치를 직접 담갔다. 또한 어르신들이 점심식사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떡과 빵 등의 간식 2,500세트도 함께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전달했다.

SK주식회사는 행복나눔 계절에 동참하기 위해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가하여 김치를 담그고,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SK 에너지

사회복지 부문
교육 · 장학 부문
환경보존 부문
문화 · 예술 · 체육 부문
글로벌 부문
자원봉사 부문

SK에너지는 재정적 지원과 자원봉사의 병행이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되, 일회성 행사와 형식적인 봉사활동은 지양하고 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

이사회 내에 사회공헌위원회 신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상장회사 중 최초로 이사회 내에 전문위원회인 사회공헌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순 · 한영석 · 김준호 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사회 내 사회공헌위원회 신설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대내 · 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실무적 차원이 아닌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 GE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사회책임위원회를 두고 있고, 일본의 도요타는 CEO 직속으로 CSR위원회를 설치 · 운영 중이다. 반면 SK에너지처럼 전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사항을 점검하는 국내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SK에너지는 국내 상장회사 최초로 이사회 내에 사회공헌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종합적 ·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K에너지는 통일부·열매나눔재단과 함께 박스 제조기업 메자닌아이팩을 설립하여 새터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SK에너지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사회투자지원재단 및 열매나눔재단과 공동으로 블라인드 제조기업 메자닌에코원을 설립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SK에너지는 저소득층 여성을 보육사로 채용하여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가야' 사업을 3년째 지원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자립·자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앞장서 온 SK에너지는 2008년에도 새터민 지원 사업, 시간제 보육 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쳤다. 특히 기존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인건비 보조에 집중되었다면, SK에너지가 지원하는 제조 기반의 사회적 기업 '메자닌아이팩'과 '메자닌에코원'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숙련기술자를 배출하고 노숙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까지 고용 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으로, 한 단계 진보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새터민 일자리 창출 위해 '메자닌아이팩' 설립 지원

SK에너지는 새터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박스 제조기업인 '메자닌아이팩' 설립을 지원했다. 7월 9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열린 설립 행사에는 노동부 장관, 통일부 차관, SK에너지 신헌철 부회장, 새터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메자닌아이팩은 정부(통일부)·기업(SK에너지)·NGO(열매나눔재단)의 파트너십으로 설립된 박스 제조기업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연대에 따르면 2008년 6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새터민은 1만 3,000명을 넘어섰으나 구직자의 취업률은 12.7%로 극히 저조하고, 그나마 첫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5.8개월에 불과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새터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새터민 50명을 고용하고 있다.

저소득계층 일자리 창출 위해 '메자닌에코원' 설립 지원

SK에너지는 열매나눔재단이 추진 중인 창문용 블라인드 제조기업 설립기금을 출연했다. 정부(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사회투자지원재단)·NGO(열매나눔재단)·기업(SK에너지)이 설립·운영 자금을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블라인드 제조기업 '메자닌에코원'은 새터민을 포함한 저소득계층 약 30명에게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드림 및 헌터 더글라스 등 국내·외 최고의 블라인드 제조기업들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어서 설립 초기부터 자립이 가능한 신개념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다.

YMCA 시간제 보육 사업 지원

SK에너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YMCA가 추진 중인 시간제 보육 서비스 '아가야' 사업을 지원했다. 2006년부터 노동부의 기업 연계형 사업에 선정되어 3년째 실행 중인 '아가야'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을 보육사로 채용하여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008년 전국 16개 지역에서 131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YMCA는 아가야 사업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SK에너지는 2005년부터 3년 동안 YMCA의 24시간 보육 사업인 '마을과 아이들'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지원

SK에너지는 2005년 3월에 정계·관계·재계·시민단체가 체결한 투명사회협약 실천방안의 하나로 시행 중인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을 단독 지원했다. SK에너지가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 사업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은, 보육시설 퇴소자 및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교육훈련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1년 동안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현장 실습을 거쳐 스피드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참가 대상자는 한국아동복지연합회에서 선발한다.

SK에너지는 2011년까지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정비교육 수료생을 기준으로 총 18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SK에너지는 신헌철 부회장, 조순 · 한영석 · 오세종 사외이사를 비롯하여 각 시도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48개 지역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진행했다.

사회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SK에너지는 매년 10월 말에서 이듬해 2월 초까지를 '행복나눔 계절'로 선포하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연탄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5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SK에너지는 한국YMCA와 함께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 · 부산 · 인천 · 울산 등 전국 48개 지역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어, 지난해보다 3만 포기 늘어난 총 13만 포기의 김치와 무 2만 개를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11월 18일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열린 서울지역 행사에는 신헌철 부회장과 조순 · 한영석 · 오세종 사외이사를 비롯, 한국YMCA 전국연맹 이학영 사무총장과 SK에너지 자원봉사단,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기업과 NGO가 이웃사랑의 한마음으로 김치를 담그는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담근 1만 포기의 김치는 서울노인복지센터 · 화성영아원 · 서울SOS어린이마을 등 사회복지단체에 전달됐다.

울산CLX는 11월 28일 구성원과 가족 250여 명을 비롯 시민봉사자 · 울산적십자사 · 울산여성봉사회 등 지역 사회단체에서 200여 명 등 총 4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동천체육관 앞 광장에서 1만 5,000포기의 김치와 무 4,000개를 담가 총 75개 지역 사회단체에 배달했다. 이 김치는 독거어르신과 지역 취약계층 3,000여 세대에 전달됐다.

제4회 사랑의 연탄 나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하나인 SK 사랑의 연탄 나눔 프로그램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행되었다. SK에너지는 4년째 (사)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4,126가구에 117만 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사랑의 연탄 배달부를 자청하고 나선 각 사업장별 자원봉사자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봉사활동에는 관계사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약 1,400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SK에너지 임직원이 봉사활동으로 직접 전달한 연탄은 총 6만 장에 이른다.

SK에너지 울산CLX는 구성원과 가족, 시민봉사자 · 울산적십자사 · 울산여성봉사회 등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김치를 담가 독거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SK에너지 인천CLX는 약 18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8,500포기의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SK에너지 임직원과 가족들은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부로 활약했다.

SK에너지는 국가유공자 부부 등 60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행복로맨스 행사를 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SK에너지는 소외아동 1,050명을 초청하여 행복캠프를 개최하여 레크리에이션 · 물놀이 · 영어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SK에너지는 독거어르신과 무의탁어르신들을 위해 SK행복효도잔치를 열고 워커힐 공연단의 특별공연 관람과 건강마사지 등으로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SK에너지는 행복나누미 행사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이웃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캐럴 합창 및 마술 공연 등의 행복나눔 시간을 가졌다.

SK에너지는 쉐라톤 워커힐호텔 제이드가든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 50쌍의 합동결혼식을 진행하여 참석자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했다.

제5회 행복나눔 초청행사 개최

국가유공자 부부 위한 '행복로맨스' 개최

SK에너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부부 등 60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행복날개가 전하는 행복로맨스' 행사를 마련했다. 1박 2일 동안 어게인 프러포즈, 부부행복로맨스, 부부 나들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따뜻한 행복나눔을 실천했다.

소외아동을 위한 SK에너지 행복캠프 개최

SK에너지는 원유유출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태안지역 소외아동 100명을 비롯하여 거주지역 소외아동 115명, 지방 사업장의 추천을 받은 소외아동 등 총 1,050명을 초청, 8월 4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총 7회에 걸쳐 SK에너지 행복캠프를 개최했다. 참가한 아동들은 행복 레크리에이션과 물놀이도 즐기고, 영어캠프에도 참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SK행복효도잔치 개최

SK에너지는 원유유출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태안지역 소외아동 100명을 비롯하여 거주지역 소외아동 115명, 지방 사업장의 추천을 받은 소외아동 등 총 1,050명을 초청, 8월 4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총 7회에 걸쳐 SK에너지 행복캠프를 개최했다. 참가한 아동들은 행복 레크리에이션과 물놀이도 즐기고, 영어캠프에도 참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행복나누미 행사 진행

SK에너지는 소외된 이웃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행복나누미' 행사를 12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했다. 전국의 아동센터 · 장애인시설 ·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가족과 복지사 210명을 초청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의 행복나눔에 대한 성과를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겨울용품과 간식이 담긴 행복 전파 선물을 직접 만들어 국립서울병원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등 11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전달하고, 캐럴 합창 및 마술 공연 등의 행복나눔 행사를 가졌다.

2005년부터 시작된 행복나누미 행사는 소외아동 · 장애인 · 노인 등 그동안 SK와 함께 행복을 나눈 사람들이 직접 선물을 만들어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행복을 전파하는 뜻 깊은 행사다.

제4회 장애인 합동결혼식 · 허니문 개최

SK에너지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와 가족 등 400여 명을 초청하여 10월 18~19일 이틀 동안 '행복 허니문'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초청된 50쌍의 장애인 부부들은 10월 18일 쉐라톤 워커힐호텔 제이드가든에서 열린 합동결혼식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으며,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는 워커힐 쇼를 관람하는 등 1박 2일의 허니문을 만끽했다.

합동결혼식은 SK에너지 조순 사외이사의 주례와 탤런트 박상원 씨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SK에너지 임직원과 가족 25명, OK웨딩클럽 웨딩플래너 15명, 대학생 50명 등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거동이 불편한 참가자들의 이동과 웨딩촬영 등을 도왔다. SK에너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4회에 걸쳐 200쌍의 장애인 부부들에게 결혼식과 허니문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앞서 6월 8일에는 SK에너지 울산CLX가 마련한 행복결혼식이 울산대공원 장미원 이벤트 마당에서 열렸다. '울산대공원 장미축제'의 특별행사로 열린 이날 결혼식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키워 온 2쌍의 장애인 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었다.

인천 서구 복지기관에 행복나눔 물품 지원

SK에너지 인천CLX 자원봉사단은 지속적인 정기 자원봉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낙원양로원 · 예향원 · 인정효행원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기관들이 평소 필요로 하는 쌀, 재활운동 보조기구, 세제, 기저귀 등의 물품을 전달하고 행복을 나누었다.

SK에너지 인천CLX는 서구지역 사회복지시설 3곳에 쌀, 재활운동 보조기구, 세제, 기저귀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SK 제주 행복날개기금 전달

SK에너지 신헌철 부회장은 8월 1일 제주도청을 방문, 제주도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해 'SK 제주 행복날개기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금은 제주도 내 저소득층 유소년 축구 지망생과 소외아동 260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SK에너지는 2006년부터 'SK 제주 행복날개기금'을 통해 제주지역 소외아동의 문화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축구꿈나무 육성사업을 통해 제주도에 축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신헌철 부회장은 제주도 유소년 축구와 행복나들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청을 방문, 행복날개기금을 전달했다.

제주 시각장애인복지관 지원

SK에너지 제주물류센터와 FC마케팅TF 및 프로축구단 구성원 10명은 11월 19일 제주 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 저소득층 시각장애인을 위한 급식비를 전달하고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제작,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지원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전달된 급식비는 신헌철 부회장을 비롯한 SK에너지 구성원들이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모금한 마라톤 성금의 일부다.

마라톤 완주를 통해 소외이웃 돕기 진행

SK에너지는 2004년부터 신헌철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매년 마라톤 완주를 통해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2008년에는 상반기 보스턴마라톤과 동아마라톤, 하반기에는 경주마라톤 완주를 통해 총 1억 7,0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하고, 이와 동일한 금액을 매칭펀드로 조성하여 총 3억 4,000만 원의 성금을 SK에너지 자원봉사단인 천사단을 통해 자원봉사활동과 더불어 소외이웃을 위해 활용했다. 한편 영화 '말아톤'의 실제 주인공 배형진 씨, 영화 '맨발의 기봉이'의 실제 주인공 엄기봉 씨와 그가 재학 중인 와수초등학교에도 각각 성금을 전달했다.

신헌철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보스턴마라톤 · 동아마라톤 · 경주마라톤을 완주하고 매칭펀드로 조성한 성금을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했다.

부산 해운대 · 기장지역 저소득층 지원

SK에너지는 2009년 1월 16일, 부산 해운대와 기장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대상의 무료급식소에 총 420만 원 상당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에 지원된 무료급식소는 해운대지역 운화교회 · 신성교회 · 제일교회와 기장지역 기장교회 및 월내교회 등 5곳이다. SK에너지는 부산시 해운대구 내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195가구에 20kg 쌀 1포대씩을 지원했으며, 11가구에는 연탄 300장씩 총 3,300장을 지원했다.

SK에너지는 부산 해운대 · 기장지역의 무료급식소 5곳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배식 봉사활동으로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SK에너지 경영지원부문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둔리와 1사 1촌을 맺고 일손을 돕는 한편 농산물을 구입하여 자원봉사단 봉사처에 전달했다.

SK에너지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산하 행복나눔터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그곳에서 신현철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독거어르신들에게 전달할 김치를 담갔다.

SK에너지 인천CLX는 경영정상화를 성원해 준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품을 지원했다.

SK에너지는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으로 마련한 성금을 자원봉사단인 천사단과 한국컴패션을 통해 국내·외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했다.

SK에너지 울산CLX가 울산대공원에서 개최한 'SK행복나눔 장애인 가요제'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관람객까지 어우러져 흥겨운 마당을 연출했다.

울산시각장애인 쉼터 지원

SK에너지는 10월 24일 (사)울산시각장애인선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쉼터의 이전에 따른 내부 공사비용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2008 경주마라톤대회 성금으로 마련됐다.

1사 1촌 어둔리 마을 농산물 구매

SK에너지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1사 1촌을 맺고 있는 어둔리 마을에서 재배한 옥수수를 구입,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이는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둔리 마을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구입한 옥수수는 SK에너지 자원봉사단과 연계된 봉사처에 전달됐다.

제주시 독거어르신을 위한 김치 담그기

SK에너지는 제주도 내 독거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지원하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산하 행복나눔터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8월 1일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행복나눔터에서 열린 봉사활동에는 제주물류센터와 프로축구단, FC마케팅TF 소속 구성원 약 15명이 참가하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를 담근 후 110가구의 독거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사랑의 손길' 물품 지원

SK에너지 인천CLX는 한가위를 맞아 인근지역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인천 서구청에 쌀 4,000kg을 전달했다. 이 쌀은 SK에너지 인천CLX의 경영정상화를 성원해 준 지역주민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인천CLX 인근지역 기초생활수급자·독거어르신·중증장애인세대 등 저소득가정에 전달됐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랑의 점심 나누기'

2000년부터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점심 나누기'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SK에너지는 2008년에도 울산CLX와 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각 지역의 물류센터 인근에 있는 40개 초등학교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2억 7,000여 만 원을 전달했다. SK에너지는 2008년까지 사랑의 점심 나누기 사업에 약 22억 원을 지원하여 결식아동을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친밀감을 극대화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을 통한 행복 전파

SK에너지는 2007년부터 시작한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에 2008년 2,016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매월 총 1,100만 원의 성금을 급여 이체로 마련했다. 이 성금은 SK에너지 자원봉사단 천사단을 통해 취약계층을 돕는 데 활용하는 한편, 한국컴패션에도 전달하여 세계 빈곤국가의 대학생 학비 지원 및 백혈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에 사용했다.

SK 행복나눔 장애인 가요제 개최

SK에너지 울산CLX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4월 19일 울산대공원 SK광장에서 'SK 행복나눔 장애인 가요제'를 개최했다. SK 행복나눔 장애인 가요제는 예심을 거쳐 최종 본선에 진출한 12개팀을 비롯하여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소속 회원과 가족 등 500여 명과 주말 울산대공원을 찾은 많은 관람객으로 성황을 이뤘다. 식전 관람객 이벤트로 풍선 터뜨리기 게임, 응원전, 현장 막춤 대결, 장기자랑 등 관람객인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불우 어린이 초청 행복잔치 개최

SK에너지 울산CLX는 5월 10일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공동으로 울산대공원 옥외공연장 일대에서 'SK에너지 ·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함께하는 행복잔치'를 개최했다.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 30여 명과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 440여 명, 동반가족 등 총 530여 명이 참가하고 SK에너지 구성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소풍마당, 체험행사 및 레크리에이션, 문화예술행사 등을 즐기면서 흥겹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SK에너지는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공동으로 행복잔치를 개최, 소아암 환자 30여 명과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었다.

제7회 SK에너지 아동 여름캠프 개최

SK에너지 윈드서핑동호회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울산 해양인명구조대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아동 30여 명을 초청하여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서 '제7회 SK에너지 아동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SK에너지 울산CLX 홍보영화와 전시관 관람, 공장 투어를 비롯하여 울산의 대표적 명소인 간절곶과 왜성 탐방에 이어 카누 타기 등 즐거운 물놀이 시간을 가졌다. 이 캠프에는 SK윈드서핑동호회원, SK자원봉사단원, 울산 해양인명구조대 대원들이 진행 및 안전요원으로 활동했다.

SK에너지 윈드서핑동호회는 제7회 SK에너지 아동 여름캠프를 개최하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행복한 여름을 선물했다.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SK재활관 준공

SK에너지 울산CLX가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재활훈련과 특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7년 11월 태연재활원 안에 착공한 SK재활관이 1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12월 12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SK재활관은 SK에너지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8억 원 중 1억 원을 지원하여 건립한 시설이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재활훈련과 특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SK재활관이 12월 12일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장학 부문

〈장학퀴즈〉 후원

SK에너지는 SK의 대표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장학퀴즈〉에 장학금을 후원했다. 1973년 MBC에서 시작한 〈장학퀴즈〉는 1997년부터 EBS로 자리를 옮겨 학교 대항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SK에너지는 승리한 학교의 연승 여부에 따라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2008년에는 33개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센인 환자 및 자녀 학자금 지원

SK에너지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센인들을 돕기 위해 SK행복날개기금을 전달했다. 6월 13일 전남 고흥의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SK에너지 신현철 부회장, (사)참길복지 이재우 대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송영수 전남지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진료장비 구입과 정착촌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 2~3세의 학자금으로 사용되어 총 650여 명이 혜택을 입었다. SK에너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센인들을 위한 지원기금을 전달했다.

SK에너지 신현철 부회장은 국립소록도병원의 한센인 환자와 그 자녀들을 돕기 위해 SK행복날개기금을 전달했다.

자원봉사단, 초등학생 에너지교실 개최

SK에너지 인천CLX 자원봉사단은 10월 1일부터 인근지역 4개 초등학교(신현초 · 신현북초 · 가현초 · 신석초) 약 1,000명의 어린이들을 인천CLX로 초청하여 '석유의 생성부터 일상의 활용까지'를 주제로 한 에너지교실을 열었다. 약 7일 동안 개최된 에너지교실은 어린이들에게 에너지 퀴즈, 정유시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청각자료를 통해 원유의 생성 · 정제 · 제품 소비 과정의 이해를 돕고,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SK에너지 인천CLX는 인천 4개 초등학교 학생 1,000명을 초청하여 '석유의 생성부터 일상의 활용까지'를 주제로 한 에너지교실을 열었다.

SK에너지는 새빛 요한의집에 보스턴마라톤대회 성금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PC를 전달했다.

울릉도 지역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자랄 수 있도록 SK에너지는 울릉도 6개 초등학교에 도서 700권을 기증했다.

SK에너지는 공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1사 1교 운동'에 동참, 2008년 3개 학교에 후원금을 지원했다.

SK에너지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출연한 기금 일부를 활용, 지금까지 420명의 학생에게 행복장학금을 전달했다.

시각장애인용 PC 지원

SK에너지는 보스턴마라톤대회 성금을 활용하여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새빛 요한의집'에 시각장애인용 PC를 구입 · 전달했다. 새빛 요한의집에 전달된 PC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울릉도 초등학교에 도서 기증

SK에너지는 5월 10일 울릉도를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울릉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6개 초등학교에 700권의 도서를 전달했으며, 울릉청년단과 함께 울릉도 저동항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한국고등교육재단 후원

SK에너지는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후원했다. 1974년에 설립된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사회과학 · 순수자연과학 · 동양학 ·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수한 학자를 양성하여 학문의 발전을 꾀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학재단이다. SK에너지는 2007년에도 한국고등교육재단에 후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1사 1교 운동 후원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1사 1교 운동'에 적극 참여해 온 SK에너지는 2008년에도 울산중앙고 · 부산영도여고 · 제주서귀포여고에 후원금을 지원했다. 1사 1교 운동은 우수 교사 육성과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가구 소득에 따른 교육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SK에너지는 2007년에도 1사 1교 운동을 통해 후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울산지역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

SK에너지 울산CLX는 2월 24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 1억 3,600만 원의 결식학생 급식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급식비는 울산지역 11개 학교의 결식학생 524명의 점심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SK에너지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만 3,800여 명의 결식학생들에게 총 11억여 원의 급식비를 후원해 오고 있다.

울산지역 초 · 중 · 고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

SK에너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꿈나무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SK에너지 울산CLX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월 6일 울산시교육청에서 SK에너지 행복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행복장학금은 2003년 SK에너지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출연한 10억 원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4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산업수도인 울산의 미래를 선도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울산대에서 추천하는 우수 학생 5명에게 산학협동 장학금을 연 2회 지급, 지금까지 145명을 지원했다. 아울러 2008년 한 해 동안 85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1970년대부터 고교생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생 대상 경제교실 봉사 참여

SK에너지는 울산지역 기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청소년경제교육 법인단체인 JA(Junior Achievement) 코리아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경제교실'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07년에 이어 2회째인 2008년에는 SK에너지 울산CLX 임직원 20여 명이 강사로 나서 야음초등학교와 여천초등학교 학생 600여 명에게 경제교육을 진행하였다. 생활경제교실은 초등학생들에게 경제 개념을 쉽게 이해시킴으로써 시장경제체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업경영과 국제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리더십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청소년을 양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또한 본사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20명 내외의 임직원들이 경제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SK에너지는 초등학생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2008년에도 JA코리아와 함께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환경보존 부문

환경의 소중함 일깨우는 'SK에너지 환경사랑 글모음 잔치'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994년부터 실시하여 16회째를 맞은 'SK에너지 환경사랑 글모음 잔치'는 국내 최대 환경 글짓기 공모전으로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매년 5월~6월 사이 개최되는 이 행사는 첫해 6,700여 명의 참여로 시작된 이후 꾸준한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2008년에는 약 7만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자리 잡았다. SK에너지는 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수상작을 모은 단행본 〈파란나라 푸른세상〉을 제작하여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전국 환경운동단체에 무료로 기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시상식 이후 진행되는 2박 3일간의 환경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SK에너지는 40년간 환경산업을 선도해 온 기업으로서 환경글짓기대회, 울산CLX 환경시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환경 관련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 행사를 더욱 확대 실시하여 대표적인 환경 관련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08년으로 16회를 맞은 'SK에너지 환경사랑 글모음 잔치'는 7만 5,0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환경 글짓기 공모전으로 자리 잡았다.

SK에너지는 SK텔레콤과 함께 충남 연기군에 장례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2009년 말 행복도시 건설청에 무상으로 기증할 계획이다.

SK에너지는 '한·중우호녹색장성' 사업을 지원, 중국의 사막화와 황사를 방지하는 SK우호림을 조성했다.

SK에너지 인천CLX 신입사원들은 인천 서구 수해지역을 찾아 복구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SK에너지 울산CLX는 5월 29일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울산지역 주민들의 휴식처인 선암수변공원 주변을 청소했다.

충남 연기군에 장례문화센터 건립

SK에너지는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문화로 유도하고, 미래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장례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장례문화센터는 SK텔레콤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2007년 말 착공하여 200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을 비롯하여 화장장, 납골시설, 추모탑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중국 쿠부치사막에 사막화 방지를 위해 SK우호림 조성

SK에너지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한·중우호녹색장성 사업을 위해 (사)한·중문화청소년협회(이하 미래숲)에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지원했다. 한·중우호녹색장성 사업은 한국의 미래숲과 중국의 공청단·내몽고 다라터치 인민정부 주관으로 2006년부터 5년간 황사 주 발원지인 네이멍구(內蒙古) 쿠부치사막에 28㎢의 방사림(防沙林)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림사업을 통해 황사 피해를 줄이고 사막화를 방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SK에너지는 산림청과 함께 이 사업을 후원하여 2008년에도 120만 그루를 식수함으로써, 황사 피해를 줄이는 한편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전문기술직 신입사원, 인천 수해지역 복구활동

8월 20일 SK에너지 인천CLX 신입사원 49명은 태풍 '갈매기'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수해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신입사원들은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통해 SK의 경영이념인 행복나눔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선암수변공원 환경정화활동

SK에너지 울산CLX는 5월 29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선암수변공원 주변의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지역주민과 기업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최된 이 행사에 울산시 남구청장과 SK에너지 홍보·총무실장을 비롯 야음동·장생포동·선암동 지역의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자연보호협의회, 여성자원봉사회 등의 단체에서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대표적 명소인 선암수변공원의 산책로를 따라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정비했다.

문화·예술·체육 부문

울산대공원을 활용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2006년 울산대공원을 울산시에 무상으로 기부한 SK에너지는 공원이라는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과 기업 메세나 행사를 펼쳐 공원 기증자로서의 명예 지속 및 기업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시즌 이벤트로 기획된 '제3회 110만 송이 행복만발 장미축제'는 아름다운 야간개장 경관조명과 만개한 장미꽃, 장미 스크래치, 사랑과 소망의 리본 달기 등 각종 체험행사, 매일 밤 펼쳐지는 세계 각국의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5월 30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부산·경주 등 전국 각지에서 약 25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감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최대 규모의 장미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장미축제 마지막 날인 6월 8일에는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 씨가 지휘하는 유라시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화려한 클래식 향연이 펼쳐져 장미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8월 5일부터 6일간 개최된 '울산대공원 자연과학교실'에서는 지역 과학교사들이 실험을 통해 빛의 세계, 진자운동 등 과학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며 곤충교실, 태화강 민물고기전, 비눗방울 체험교실 등 다양한 행사를 제공하여, 불야성을 이룬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단풍이 절정을 이룬 가을에는 '청소년 가을소풍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3일간 6,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내가 스타 짱, 선생님과 함께하는 커플게임, 즉석퀴즈 등을 통해 소풍장소로 울산대공원을 찾은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소풍의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그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다.

한 해의 끝자락 12월에는 울산대공원 내 풍요의 못 일대 느티나무 산책로와 풍차·인공섬을 아름다운 조명으로 장식하는 'Happy Christmas & Happy New Year' 행사를 열었다. 약 2개월간 계속된 야간 은하수조명 점등을 통해 연말연시 울산대공원을 찾은 연인,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연말연시의 행복을 선사했다.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제1회 사회공헌문화제 개최

SK에너지 울산CLX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울산대공원 SK광장 일원에서 제1회 사회공헌문화제를 개최했다. 울산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12개의 복지기관 및 단체, SK에너지 동호회와 임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SK스포츠센터 문화교실, 울산대공원 아티스트 등 총 30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사회공헌문화제는 시민들에게 사회공헌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나눔의 기쁨과 행복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K에너지는 울산시에 기부한 울산대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공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미축제, 청소년 가을소풍 한마당 축제 등의 풍성한 행사를 주최했다.

SK에너지 울산CLX는 제1회 사회공헌문화제를 열어 시민들에게 사회공헌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대한핸드볼협회 지원

SK에너지는 핸드볼 메이저 스폰서 사로서, 비인기종목인 핸드볼 관계자와 선수들을 격려하고 사회와 여론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후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8년에는 대한핸드볼협회의 핸드볼 인의 밤 지원,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인 핸드볼꿈나무 김아름 양 격려금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 2008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한 핸드볼 국가대표팀을 성원하는 의미에서 남자대표팀과 여자대표팀에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펼친 국가대표팀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8월 27일 워커힐호텔에서 올림픽 선수단 환영행사를 가졌다.

군 장병에 장애인전문잡지 〈열린지평〉 구매 · 기증

SK에너지는 계간 〈열린지평〉을 분기별 7,000부씩 1년분(2007년 겨울호, 2008년 봄 · 여름 · 가을호)을 구매하여 국방부에 기증했다. 〈열린지평〉은 장애인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전문잡지로, 판매수익금은 장애인들의 재활비 및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국방부에 기증한 잡지는 군 장병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심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구독비용과 발송비용은 SK에너지를 비롯하여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 E&S, SK가스, SK케미칼, SK C&C가 분담했다.

글로벌 부문

한국컴패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후원

교육사업을 통한 인재양성에 주력해 온 SK에너지는, NGO인 한국컴패션이 진행하는 빈곤국가 대학생 후원 프로그램(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국컴패션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 아프리카 · 중남미의 빈곤국가 대학생과 일대일 결연(30만원/인 · 월)을 통해 장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SK에너지는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과 별도로 임원 성금을 통해 55명의 대학생과 결연을 맺고 후원하고 있다.
한국은 컴패션 최초의 수혜국(1952~1993년)이었으며, 2003년 한국컴패션이 설립되어 10번째 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캄보디아 의료봉사 지원

SK에너지는 사회복지법인 '평화를이루는사람들'의 캄보디아 의료봉사단을 지원했다. 1월 8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 바탐방에서 펼쳐진 의료봉사는 21명의 가톨릭병원 소속 의료진과 지원인력이 참여하여 저소득층 마을주민 · 교도소 재소자 약 2,000명에게 내과 · 소아과 · 이비인후과 · 피부과 · 치과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몽골 가톨릭 초등학교 건립 지원

SK에너지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몽골지역 내 가톨릭 초등학교 건립을 후원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몽골지역 내 가톨릭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양질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대학 교육까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몽골정부를 통해 울란바토르에 소재하는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했으며, 여기에 교실 10개를 포함 총 30여 개의 교실이 있는 3층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다. SK에너지의 기부금은, 부지 기초공사에 쓰일 예정이다.

이라크 난치병 어린이 치료 후원

SK에너지는 이라크 난치병 어린이를 한국으로 이송하여 치료하기 위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산하단체인 (사)종교평화국제사업단의 항공료와 체류경비를 후원했다. 이라크 난치병 어린이 이송 치료는 이라크의 이슬람 최고평의회가 외교통상부에 요청하고, 외교통상부가 이라크 어린이 이송 치료 경험이 있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협조를 구하면서 진행됐다.

SK에너지는 외교통상부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함께 이라크 난치병 어린이를 한국으로 이송 치료하는 데 항공료와 체류경비를 후원했다.

페루 재건 위한 학교 기증

SK에너지는 2007년 8월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페루 서부 이까 주(州) 싼 클레멘떼 시(市)에 '마리아 빠라도 데 베이도' 학교를 신축해 기증했다. 이 학교는 SK에너지가 페루에서 추진 중인 52개 학교 재건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실로, 9월 12일 신현철 SK에너지 부회장과 한병길 주(駐)페루 대사, 이까 주지사 및 싼 클레멘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이 열렸다. SK에너지는 학교 재건 외에도 의료시설 복구와 의료 기자재 공급, 지역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페루 지진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 SK에너지는 페루의 지진피해를 돕기 위해 2007년 3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페루를 돕기 위해 52개 학교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SK에너지는 2008년 그 첫 번째 학교를 신축해 기증했다.

자원봉사 부문

최태원 회장, 서울시립소년의집 지원

SK 최태원 회장은 9월 9일 서울시립소년의집을 방문하여 떡과 추석 선물을 전달하고 아동생활관의 낡은 침대 30개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최태원 회장은 직접 침대를 조립하고, 화단 가꾸기와 벽화 그리기에 참여하는 등 행복전도사로서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영호 사장, 카라이프(Car Life)사업부, 기업문화본부 소속 임직원 등 약 40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행복나눔을 실천했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소년의집은 0~17세의 보호 아동들에게 생활 · 교육 · 의료 ·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SK에너지 임직원들이 4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최태원 회장이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시립소년의집을 찾아 시설 아동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 중증장애아동 초청행사 개최

SK 최태원 회장은 성탄절을 맞아 장애아동재활시설인 가브리엘의집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아동 34명과 교사들을 서울 서린동 SK 본사로 초청했다. 2003년부터 해마다 추석 또는 성탄절이 되면 가브리엘의집에서 봉사활

최태원 회장은 성탄절을 맞아 2003년부터 봉사활동을 해 온 가브리엘의집 중증장애아동들을 SK 본사로 초청하여, 산타 복장을 하고 아이들과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동을 해 온 최태원 회장은 2008년 성탄절에도 중증장애아동들을 본사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 나누고, 산타 복장으로 분장하여 운동화·티셔츠·자전거 등 선물을 전달하고 마술시범을 관람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SK에너지 신헌철 부회장은 임직원과 함께 화성영아원을 찾아 공부방 시설을 교체하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함께 화단을 가꾸는 등의 봄단장을 했다.

신헌철 부회장, 소외아동과 함께 봄맞이 봉사활동

SK에너지 신헌철 부회장은 4월 8일, 부모가 없거나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소외아동 5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화성영아원을 찾아 공부방의 책상과 의자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아이들과 어울려 화단을 가꾸는 등 복지시설에서 봄맞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새봄과 새학기를 맞아 복지시설의 어린이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이날 봉사활동에는 임직원 자원봉사자 15명이 함께 했다. 마라톤 경영인으로 널리 알려진 신헌철 부회장은 평소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SK에너지는 원유유출 피해를 입은 태안지역을 돕기 위해 방제활동뿐만 아니라 태안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태안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소비를 촉진시켰다.

태안지역 경제 살리기

SK에너지는 원유유출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태안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태안지역 주요 해수욕장 근처의 펜션들과 계약을 맺어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추첨을 통해 선발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여름휴양소를 운영했다. 또한 태안지역의 식당·주유소·상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SK 태안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다. 태안사랑 상품권은 태안지역에서의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에 앞서 SK에너지는 원유유출사고가 발생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750명의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방제활동을 벌였다.

SK에너지 울산CLX는 장애인의 발이 되고 눈이 되어 동행하는 등반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의 가치를 온몸으로 깨우치는 기회를 가졌다.

장애인 등반대회 개최

SK에너지 울산CLX는 10월 29일 울산지역 장애인 70여 명이 참가하는 장애인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5회째를 맞은 장애인 등반대회에는 SK에너지 자원봉사단 70여 명이 장애인들의 도우미가 되어 울주군 등억리 소재 간월재를 함께 올랐다. SK에너지 자원봉사단원들은 2인 1조가 되어 휠체어를 밀면서 이날 하루 지체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는 등 모처럼 사랑의 땀을 흠뻑 쏟은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SK에너지 상반기·하반기 자원봉사 사례발표회에서 각각 우수사례 및 모범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랑스러운 얼굴들이 무대에 섰다.

2008 자원봉사 우수사례 및 모범자원봉사자 선정

SK에너지는 구성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1일과 12월 16일에 각각 상·하반기 자원봉사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봉사팀과 모범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우수봉사팀 및 모범자원봉사자는 주관조직의 예심을 거쳐 참여도, 연속성, 독창성, 회사 공헌도, 사외표창, 월별 우수 봉사팀 및 봉사팀원 선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2008년 우수 봉사팀 및 모범자원봉사자는 아래와 같다.

2008 우수 봉사팀

구분	봉사단	봉사팀명	코디네이터	소속
상반기	본사	화학천사단	권대은	중국사업개발담당
	울산CLX	파워	박충실 선임대리	동력기술·관리팀
		신바람	손익수 선임대리	품질관리1팀
	인천CLX	기쁨향기	신동철 선임연구원	Polymer Lab
	물류	달구벌천사단	김영철	대구물류센터
하반기	본사	화학2팀	권소영	Global화학사업개발팀
	울산CLX	한마음	김종찬 선임대리	No.1FCC공장
		창조	김수상 선임대리	Aromatic공장
	인천CLX	해피라이더	이흥천 과장	재무·기획팀
	물류	제주물류천사단	김유신	제주물류센터

2008 모범자원봉사자

구분	봉사단	봉사팀명	모범자원봉사자	소속
상반기	본사	SOS어린이봉사대	허윤경	Netruck사업팀
	울산CLX	우리하나	조현국 선임대리	HOU공장
	기술원	기쁨향기	한택규 수석연구원	Polymer Lab
	물류	사랑나눔봉사대	정동화 대리	대전물류센터
하반기	본사	아침이슬	김재연 부장	윤활유기술운영팀
	울산CLX	행복	정수탁 선임대리	안전 · 환경관리팀
	기술원 · 인천CLX	그루터기	박성열 기술감독	생산관리팀
	물류	인천물류천사단	이인홍 대리	인천물류센터

노사가 함께하는 행복나눔

SK에너지 울산CLX 임직원 20여 명은 5월 14일 북구 중산동에 위치한 메아리복지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날 봉사활동은 신임 노동조합위원장과 임원들이 참여하여 노사가 함께한 뜻 깊은 행복나눔의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3개조로 나뉘어 재활관 도배, 복지관 주변 화단조성, 지적장애인의 제과실습 보조 등 봉사활동을 한 후 청각장애인들과 제과실습 때 만든 쿠키를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7월 9일에는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에 있는 혜진원을 방문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이어 나갔다. 혜진원은 중증장애아동들이 재활교육 및 치료를 받고 있는 복지시설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원 및 노동조합 집행부는 지적장애체험, 휠체어농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했으며, 장애인들과 함께 압화 공예작업, 아동방 청소,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SK에너지 울산CLX 임직원과 노동조합 집행부는 중증장애아동 재활시설인 혜진원을 방문하여 노사가 함께 따뜻한 사랑의 활동을 펼쳤다.

울산CLX 신입사원의 행복 나누기

SK에너지 울산CLX는 3월 28일 25명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 자원봉사활동은 회사의 새로운 얼굴인 신입사원들에게 행복나눔 경영의 참뜻을 체험하게 하고, 울산지역의 자원봉사활동 환경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입사원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며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

SK에너지 울산CLX 신입사원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나눔 경영의 참뜻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직원 자녀 자원봉사활동

SK에너지 울산CLX 구성원 자녀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1월 24일 구성원 자녀 160여 명은 아버지와 함께 출근하여 회사 본관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의 기본 소양과 환경보존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울산대공원으로 이동하여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했다. 봉사활동을 마친 후에는 각자 소감문을 작성 · 발표하여 자원봉사의 참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4일과 25일에도 총 180여 명의 구성원 자녀들이 사전 교육 후 들꽃학습원과 정신장애 복지시설인 성애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SK에너지 울산CLX는 임직원 자녀들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해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켜 가고 있다.

'부모님의 날' 행사 후원

SK에너지 인천CLX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20일 인천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서구 '부모님의 날' 행사를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서구 관내 어르신들이 참석해 각종 문화공연과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인천CLX는 행사 진행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과 함께 참여한 어르신과 봉사자 모두에게 중식을 비롯 기념품과 간식을 제공했다.

SK에너지 인천CLX는 인천 서구자원봉사센터가 후원한 '부모님의 날'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문화공연, 무료 건강검진, 중식과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

원주물류센터와 동해물류센터는 평창 엘리에셀에 가스레인지와 컵소독기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장애인시설 평창 엘리에셀 봉사활동

SK에너지 원주물류센터와 동해물류센터는 장애인시설인 평창 엘리에셀에서 4월 29일 고구마 모종 심기를 비롯한 이발봉사, 약품(농약) 증정, 시설 주변의 잡초제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가을에는 석유운영본부장과 2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가스레인지와 자외선 컵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봄에 심은 고구마 수확작업과 이발봉사, 진입로 보수 및 축대 쌓기, 주변정리 활동을 전개했다.

SK에너지 동해물류센터 임직원들이 중증치매어르신 보호시설인 이레마을을 방문하여 청소를 하고 있다.

중증치매어르신 보호시설 봉사활동

SK에너지 동해물류센터는 동해시 만우동에 있는 중증치매어르신 보호시설인 이레마을을 매월 방문하여 사랑의 이발봉사, 요양원 내·외부 청소, 어르신 말벗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SK에너지 제주물류센터 제주천사단은 제주애덕의집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사회시설을 체험하는 나들이 활동을 실시했다.

장애인 행복나들이 봉사활동

SK에너지 제주천사단은 2005년부터 봄·가을에 중증장애인시설인 '제주애덕의집'을 찾아 행복나들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한림공원·표선민속촌·소리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들에게 사회시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대구 달구벌천사단은 활동이 불편한 신안사랑마을 중증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나들이 행사를 실시했다.

대구 신안사랑마을 어르신 나들이 봉사활동

SK에너지 대구 달구벌천사단은 신안사랑마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구 팔공산 인근 송림사로 나들이 행사를 다녀왔다. 신안사랑마을은 치매와 중풍 등의 중증노인성질환으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입소해 있는 시설이다.

SK 텔레콤

사회복지 부문
교육 · 장학 부문
환경보존 부문
문화 · 예술 · 체육 부문
글로벌 부문
자원봉사 부문

SK텔레콤은 교육격차 및 정보격차 해소 사업,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의 특성을 살린 모바일 공익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정부 및 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자립 · 자활

SK텔레콤은 직접 고용을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라는 판단으로 정부 · NGO와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2006년 2월 서울 중구 신당점에서 시작된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는 2008년 12월 현재 27개로 늘어났으며, 2008년에만 411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를 통해 결식아동과 노인들에게 배달된 식사량은 하루 평균 1만 2,876식에 달한다.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 기업 · NGO가 하나가 되어 협력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은 행복나눔재단이

결식이웃에게 전달되는 행복도시락에는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취약계층의 자립에 대한 꿈이 담겨 있다.

총괄업무를 맡고 있으며 SK와 노동부가 비용과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결식아동과 독거어르신에게 안전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식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게 자립과 자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해 온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은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완전한 자립을 위해 다양한 수익 기반을 확충하고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행복도시락 급식센터의 내실을 꾀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말까지 총 18개 급식센터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나머지 급식센터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이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바리스타 교육비와 매장 운영을 지원하는 공정무역커피전문점 '카페 티모르' 남대문점이 개업식을 갖고 있다.

취약계층 자활 프로젝트 공정무역커피전문점 '카페 티모르'

SK텔레콤과 YMCA·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지원하는 공정무역커피전문점 '카페 티모르'가 속속 희망의 문을 열었다. 3월 10일 서울 남대문 인근에 2호점이, 7월 13일에는 이화여대 앞에 3호점이 각각 문을 열고 행복한 커피향을 선사하고 있다. 카페 티모르는 청소년·여성가장·미혼모·장기실업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자립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바리스타 실무교육 및 창업 지원을 통해 배출된 졸업생들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다. 특히 공정무역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구매한 품질 좋은 제3세계 커피를 제공하여 소비자와 함께 커피 한잔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사업을 통해 바리스타 교육비와 매장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전문가 지원

SK텔레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성과 사회적기업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SK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행복나눔재단은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2006년 12월 숭실대에 국내 최초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한 데 이어 2007년 3월에는 부산대에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열어, 사회적기업 현장 관리자·실무자들의 경영마인드, 리더십, 조직운영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는 16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SK는 이와 더불어 2008년 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총괄기구로 선정된 함께일하는재단을 후원하여, 사회적기업 현장의 다양한 니즈(needs)를 반영한 통합적인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19개 과정에서 660여 명이 수강했다.

'사회적기업은 우리 손으로!' 행복나눔재단은 사회적기업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사업

SK는 행복나눔재단 · 함께일하는재단이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해외연수 지원사업'과 '열린포럼'을 지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현장활동가와 관련 전문가에게 해외 사회적기업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형 사회적기업 발전전략 수립과 전문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글로벌 감각 제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2008년 총 9개팀 56명(참여기관 34개)의 해외연수(단기 · 장기 · 기획 연수)를 지원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열린포럼을 통해서는 국회 · 정부 · 학계 · 언론 · 시민사회 · 현장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총 10회의 포럼(열린포럼 · 참여포럼 · 공유포럼)을 진행했다.

취약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SK는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 복지가 결합된 1318 해피존을 비롯하여 해피뮤직스쿨 · 해피뮤지컬스쿨 · 해피쿠킹스쿨 교육 등을 통해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충남 아산에 1318 해피존 30호점 개소

SK와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1318 해피존 30호점이 탄생했다. 6월 20일 충남 아산시 권곡동에 문을 연 '희망꿈열기터'가 그 주인공. 온천으로 유명한 아산지역은 향락산업이 기형적으로 발달하여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1318 해피존에 거는 지역주민들의 기대도 큰 편이다. 1318 해피존은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318세대에게 학습 · 정보 · 문화 프로그램과 급식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다. 희망꿈열기터는 건전한 놀이문화와 동아리 활동, 방과후 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1318세대의 30번째 행복공간인 희망꿈열기터의 실질적인 운영은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아동들을 6년간 돌봐 오면서 지역사회 아동복지 네트워크를 주도해 온 구세군아산지역아동센터가 담당한다.

최경주 선수, 1318 해피존 건립기금 기부

PGA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가 1318 해피존 건립 기금을 기부했다. 4월 15일 인천

1318세대에게 학습 · 정보 · 문화 프로그램과 급식을 제공하는 1318 해피존 30호 '희망꿈열기터'가 아산시 권곡동에 문을 열었다.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후원해 온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는 SK텔레콤 행복기금 전달식에 참석하여 1318 해피존을 위한 건립기금을 기부했다.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클럽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SK텔레콤 행복기금 전달식'에서 최경주 선수는 SK텔레콤이 최경주재단에 기부한 행복기금 1억 7,500만 원을 SK와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공동 운영하는 1318 해피존 건립기금으로 내놓았다. 이 기금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들어설 1318 해피존 건립에 쓰일 예정이다. 최경주 선수는 2006년부터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해 왔으며 '사랑의 버디기금'을 조성하여 빈곤아동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

모바일 공익사업

SK텔레콤은 이동통신기업의 역량을 살려 모바일을 통한 미아·장애인·치매어르신 찾기를 펼쳐 현재까지 19명을 찾는 성과를 거뒀다.

모바일 미아·장애인·치매어르신 찾기

SK텔레콤은 2004년 5월 경찰청·한국복지재단과 협정을 맺고 GPS와 모바일 방송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미아 찾기'를 실시하고 있다. 휴대폰 고객들이 SK텔레콤이 송출한 미아를 발견했을 때 경찰청과 한국복지재단에 신고함으로써 미아를 찾는 서비스로, 2005년부터는 서비스 대상을 장애인과 치매어르신으로까지 확대했다. 현재까지 345명의 정보를 발송하고 19명을 찾았다.

긴급재난문자정보

SK텔레콤은 소방방재청과 공동으로 2005년 4월부터 재난·재해 발생 시 그 지역의 상황을 고객에게 전달하여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재난문자정보를 NATE Air 단말기 보유 고객에게 송출하고 있다.

119 긴급구조서비스

SK텔레콤은 2005년 4월부터 119 긴급구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함께 하는 이 서비스는, 휴대폰 이용자가 119로 전화를 걸면 이동통신사가 위치확인시스템을 활용, 소방방재청 상황실에 고객 위치를 자동으로 알려 주기 때문에, 화재나 심각한 부상으로 자신이 있는 장소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구조대가 구조 요청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K텔레콤은 응급수혈이 필요할 때 휴대폰으로 헌혈 참여 메시지를 발송하는 모바일 헌혈 서비스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모바일 해외안전서비스

SK텔레콤은 외무부와 협정을 체결하여 2005년 5월부터 해외 위급 상황에 대한 안내와 긴급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모바일 해외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헌혈 서비스

SK텔레콤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정을 맺고 2007년 1월부터 긴급 수혈환자가 발생했을 때, SK텔레콤에 가입한 등록 헌혈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헌혈 참여를 권유하는 모바일 헌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응급수혈을 요청하는 메시지와 함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가까운 적십자사 산하의 헌혈의 집을 알려주어 헌혈을 돕고 있다.

SK텔레콤은 국가청소년위원회·(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와 함께 청소년들이 무료 문자메시지를 통해 24시간 고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 서비스

SK텔레콤은 2007년 4월 18일부터 국가청소년위원회·(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와 공동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청소년 모바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신변노출의 부담 없이 무료 문자메시지를 통해 24시간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08년에는 전용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다운받아 컴퓨터 채팅을 하듯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수신번호를 #1388로 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언제든지 고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심층 상담이 필요할 경우는 전국 142개 지원센터와 연계한 전문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에 소요되는 문자메시지 요금 등 모든 통신

요금은 SK텔레콤이 무료로 지원하며, 전문 상담원들의 인건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시스템 개발 및 사업 운영은 사업주체인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가 담당하고 있다. 2008년 말 기준 40명의 상담원이 하루 평균 300여 명의 청소년을 상담하고 있다.

모바일 기부프로그램 '1004 사랑나눔'

SK텔레콤은 2005년부터 모바일 기부프로그램인 '1004 사랑나눔'을 통해 휴대폰으로 현금이나 OK캐쉬백 포인트, 레인보우 포인트 등을 모금해 각종 사회봉사단체 등에 기부하는 등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2005년 이래 2억 6,500여 만 원이 모금됐으며, 현재 20여 개 NGO가 이를 모금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행복천사 캠페인

SK텔레콤은 행복나눔재단과 함께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고객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인 행복천사(Happy1004) 캠페인으로 모금한 금액을 시민단체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행복천사 캠페인은 소액기부 프로그램인 '행복나눔'과 콘텐츠 구매형 기부 프로그램인 '뮤직나눔' 으로 구성된 고객참여형 기부프로그램으로 결식아동과 청소년을 후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금액은 결식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도시락과 책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구세군 모바일 기부

SK텔레콤은 2008년 12월 3일부터 31일까지 구세군 대한본영과 함께 진행한 모바일 자선냄비 캠페인 '사랑 On°(온도)를 높여라'를 통해 모금한 1,700만 원을 포함한 총 5,000만 원을 2009년 1월 29일 구세군에 전달했다. '사랑 On°(온도)를 높여라' 는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각종 포인트로 1회당 1,000원부터 1만 원까지 후원금을 내면 고객이 후원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SK텔레콤에서도 기부하는 매칭펀드 형식의 캠페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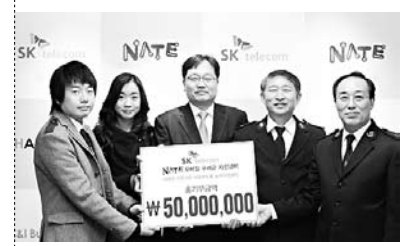
새터민 휴대폰 활용 교육

SK텔레콤은 2008년부터 통일부 산하 새터민 국내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과 함께 8주간 입소교육 중인 새터민을 대상으로 휴대폰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사기 가입, 국제전화 과다요금,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적 사례교육과 에티켓 등 올바른 휴대폰 사용문화 소개 등이다.

영토 수호의 의지를 다진 대학생 독도탐방

전국의 대학생 기자들로 구성된 독도수호국제연대의 '독도아카데미 6기' 대학생 117명은 10월 27일 '독도탐방' 행사를 갖고 소중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SK텔레콤과 국제구호단체인 굿네이버스가 지원한 이 행사에는 전국 대학의 신문사·방송국 기자 117명이 참가해 체험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팀별로 독도수호와 관련된 UCC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앞으로 각 대학 언론매체를 통해 독도가 처한 현실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전할 계획이다. 또한 굿네이버스와 연계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초·중·고생들에게도 올바른 독도수호 교육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고객참여형 기부프로그램인 행복천사 캠페인으로 모금한 금액을 굿네이버스를 통해 결식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지원했다.



SK텔레콤은 모바일 기부 캠페인 '사랑 On°(온도)를 높여라'를 통해 모금한 성금을 포함해 5,000만 원을 구세군 대한본영에 기부했다.

독도수호국제연대의 독도아카데미 6기 대학생들은 독도수호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SK텔레콤·굿네이버스의 지원으로 10월 27일 독도를 탐방했다.

교육·장학 부문

2008 SK텔레콤 장애청소년 IT챌린지 대회에 참가한 한 학생이 혀를 이용하여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다.

2008 SK텔레콤 장애청소년 IT챌린지

SK텔레콤이 'I can do IT !!'이라는 슬로건으로 199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장애청소년 IT챌린지'는 단순한 정보검색대회 차원을 넘어서, 장애청소년들이 전반적인 IT 활용 능력을 겨루고 즐기는 문화축제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2008년 제10회를 맞은 SK텔레콤 장애청소년 IT챌린지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 부산 · 광주 · 대구 · 전남 · 경북 · 제주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펼쳐진 예선전에는 1,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본선에는 예선을 통과한 260명의 장애인이 참가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이번 장애청소년 IT챌린지는 참가자를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체장애 · 지적장애 등 4개 장애영역별로 구분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IT 활용능력을 겨루는 장애청소년 대상 'e-Life 챌린지'와, 온라인게임대회인 'e-Sports 챌린지'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장애영역별 우승자에게는 Best Challenger상이, 준우승자에게는 Excellent Challenger상이 각각 수여되었으며, 부상으로 장학금과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다.

SK텔레콤 구성원들을 위한 문화공연 '퍼너자이저'에 해피뮤직스쿨 재학생들을 초청하여 공식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9월에 열린 해피뮤지컬스쿨 1기 학생 작품발표회에서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고 있다.

문화 · 예술 인재 육성하는 해피뮤직스쿨 · 해피뮤지컬스쿨

2007년 시작된 해피뮤직스쿨은 SK텔레콤과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전문 클래식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총 32주)하는 한편, 음악 영재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연주자로 키워 내기 위한 클래식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재능 있는 청소년에게 전문 교수진의 1대1 레슨을 제공하고, 향상음악회를 통해서 무대 경험과 향상된 실력을 보여 주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8월에는 국내외 유명 음악가를 초청하여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강의를 진행하는 마스터 클래스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초대 음악감독은 첼리스트 송영훈 씨가 맡고 있으며, 서울대 음대 백주영 교수(바이올린)와 주희성 교수(피아노), 연세대 음대 현민자 명예교수(첼로)가 악기별 파트장을 담당했다. 이외에도 음악대학 석사 이상의 전문연주자로 구성된 13명의 강사가 개인 및 그룹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해피뮤직스쿨 마스터클래스에서 수혜아동이 서울시향의 임가진 연주자에게 1대1 레슨을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또 미래의 뮤지컬 주역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사)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함께 해피뮤지컬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재능과 열정은 뛰어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춤·노래·연기 등을 지도하는 해피뮤지컬스쿨은 현재 활동 중인 뮤지컬 배우와 음악감독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20명의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연기·음악·무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적인 수업을 받아 온 1기 해피뮤지컬스쿨 학생들은 9월 1일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바탕으로 멋진 공연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또 12월 23일에는 '남경주의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공연에 해피뮤지컬스쿨 1기·2기 학생들이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와 함께 공연하는 기회를 가졌다.

해피뮤지컬스쿨은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 등 유명 연기자와 전문강사가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해피쿠킹스쿨 1기 졸업생 22명 배출

SK텔레콤이 지원하고 있는 해피쿠킹스쿨이 12월 29일 22명의 제1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해피쿠킹스쿨은 요리에 소질과 꿈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요리교육을 받기 힘든 청소년들을 위해 개설된 전문 교육프로그램이다. 2008년 6월 2일 첫수업 시작 이후 매주 2회에 걸쳐 수도요리학원에서 조리 기초이론, 한식·양식·세계 요리, 명인 특강 등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힘입어 1기 졸업생 중 11명이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요리사의 꿈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었다. SK텔레콤은 해피쿠킹스쿨 졸업생을 위해 인턴십을 통한 취업을 지원하고 조리전문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입학장학금을 지원했다.

가정형편으로 요리교육을 받기 힘든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요리교육 프로그램 해피쿠킹스쿨이 제1기 졸업생 22명을 배출했다.

'사랑의 힘'으로 장애의 벽을 넘는 사랑나눔캠프

SK텔레콤은 8월 9일부터 '사랑의 힘'이라는 부제로 전북 익산 원광대와 함께 제7회 2008 사랑나눔캠프를 열었다. 이번 캠프는 전국에서 모인 자폐 유·아동 150명과 부모150명, 캠프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예술치료사 150명, 전문 교수진 및 의료진 40명, 자원봉사자 50명 등 총 5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광대 캠퍼스에서 5박 6일 동안 진행됐다.

1998년부터 시작된 사랑나눔캠프는 2005년부터 대상을 자폐아동으로 변경하여 장애 유아·아동들에게 다양한 예술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정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예술치료 프로그램이다. 캠프에 참가한 예술치료사들은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사전에 보호자 상담 및 심리검사, 아동 신체검사 등을 거쳐 장애 유아·아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내린 뒤 가장 적합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캠프가 끝난 후에도 부모 교육과 상담을 통해 예술치료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7회째를 맞이하는 2008 사랑나눔캠프에 참가한 장애아동들이 밀가루 반죽을 통한 예술치료를 받고 있다.

환경보존 부문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대구 습지 조성활동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는 람사르 총회 한국 개최를 앞둔 8월, 대구시 북구 침산동 신천 동편 둔치에서 습지 조성활동을 벌였다. 이곳은 대구 시내를 가로지르는 신천과 대구의 젖줄인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야생조류가 서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최근 생태환경의 변화로 조류를 비롯한 동식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친환경적인 신천 개발사례를 만들고 있는 '대구 에스파스' 사업팀의 자문을 받아 8월 11일부터 2주 동안 펼쳐진 이 활동에는 Sunny 35명이 참여하여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Sunny는 약 1,300㎡의 부지를 70~80cm 깊이로 판 뒤 그 위에 방수용 천을 깔고 다시 20cm 가량을 흙으로 채운 다음, 나무와 수생식물을 심은 후 남은 공간을 금호강의 물을 채워 습지를 만들어 나갔다. 활동 마지막 날인 8월 22일에는 대구·경북 지역 곳곳에서 조난당한 채 발견돼 치료를 받아 온 오리·황조롱이·왜가리 등 물새 10여 마리를 습지에 방사하는 것을 끝으로 2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는 신천과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의 습지를 조성하기 위해 습지 주위에 울타리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SK텔레콤은 집에서 잠자고 있는 휴대폰을 수거하여 매각대금으로 환경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SK텔레콤은 친환경경영의 일환으로 '장롱폰' 수거 캠페인을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는 전국 4,000여 초·중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13만 대의 폐휴대폰을 수거하고 매각대금으로 환경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어 참가 학교에 배포했다. 2008년에는 환경부·이동통신사·제조사와 공동으로 수거 캠페인을 전개하여 30만 대의 폐휴대폰을 수거했다.

문화·예술·체육 부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예술지원 프로젝트 '프로젝트 아이'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은 강원 고성분교 학생들이 악기 합주를 맞춰 보고 있다.

'프로젝트 아이' 작품 전시회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예술지원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아이'의 작품 전시회가 2008년 1월 한 달 동안 아트센터 나비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에는 막걸리통으로 만든 타악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전시작품들이 창작과정을 보여 주는 영상과 함께 소개되었다.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2007년 경기 광주와 양주를 비롯해 포천·춘천·울산 등 5개 지역에서 55명의 공부방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 아이' 교육을 통해 만들어졌다. 참가 아동들은 디지털 튜너를 이용한 악기 연주, 영상드라마 제작법 등을 교육받은 후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도움을 받아 약 4개월간 창작 작업을 해 왔다. SK텔레콤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디지털 카메라·캠코더·소모품 등 미디어 매체를 제공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작품 출전, 견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 문화예술의 육성에 이바지하는 메세나 지원

SK텔레콤은 클래식·뮤지컬 등 우수 공연의 개최를 후원하고 문화예술단체 홍보 담당자에게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내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메세나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 월드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협찬

SK텔레콤은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주최한 '2008 월드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을 협찬했다. 2008년, 금난새 씨의 지휘 아래 아시아·미주·유럽 등 세계 20여 개국의 직업 오케스트라에서 활동

SK텔레콤은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 80명이 참여하고 금난새 씨가 지휘를 맡은 '2008 월드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을 협찬했다.

중인 연주자 50여 명과 경기필하모닉 · 유라시안필하모닉의 국내 연주자 30여 명이 모여 창단한 월드심포니오케스트라는, 다양한 국가의 연주자들이 음악을 통해 '세계는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해피뮤직스쿨 · 해피뮤지컬스쿨 · 1318 해피존 등 SK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300여 명의 학생들이 초청되어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예술단체 비즈니스 실전 워크숍 개최

SK텔레콤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술단체 및 공연장 마케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메세나협의회와 공동으로 '예술단체 비즈니스 실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기업의 기획 · 홍보 · 마케팅 전문가를 초청하여 선진경영기법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비즈니스 워크숍은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교육함으로써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예술단체 비즈니스 실전 워크숍은 단순 후원금 전달에서 벗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과 PR 관련 역량을, 문화예술단체에 교육을 통해 전달하는 SK텔레콤의 메세나 활동이다.

'실전 고수들에게 마케팅 비법을 배운다.' 예술단체 마케팅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단체 비즈니스 실전 워크숍'은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08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

SK텔레콤이 주최하고 대한장애인농구협회가 주관하는 '2008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가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렸다. 1997년 '회장기 전국휠체어농구대회'로 시작된 이 대회는 2002년부터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로 대회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국에서 15개 장애인 팀과 7개의 비장애인 팀 등 총 22개 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예선 리그전을 거친 후, 8강 토너먼트와 순위 결정전 순으로 진행됐다.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는 국내 휠체어농구대회 중 유일한 기업 후원 대회로서 회장기배와 더불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11월에 열린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국내 휠체어농구대회 중 유일하게 기업이 후원하는 대회다.

NGO · 복지기관 · 문화예술단체 협찬 · 기부

SK텔레콤은 행복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문화 · 예술 · 체육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NGO · 복지기관 · 문화예술단체에 지속적으로 협찬과 기부를 하고 있다. (재)사회투자지원재단 · 한국메세나협의회 · (사)세계걷기운동본부 등에 협찬하는 한편, (사)뷰티플마인드 · 한국문화표현단 ·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 2008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후원금을 기부했다.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방정환재단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홀트일산복지타운 등에 성금을 지정 기탁했다. 2008년에 후원한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문화외교 자선단체 (사)뷰티플마인드 지원 △(주)캐주얼클래식 주관 2008 서울뮤직페스티벌 청소년음악회 후원 △태안 소년소녀가장 돕기 신춘음악회 후원 △(사)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 한국과학문화재단 주최 제2회 노벨과학에세이대회 후원 △(사)한국문화표현단 주관 제3회 한국독립문화 기행 지원 △윤봉길 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 제10회 추모음악회 후원 △(사)세계걷기운동본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최 88서울올림픽 20주년 기념 국민화합걷기축제 후원 △세계사회체육연맹 주관 2008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후원 △방정환재단 주관 어린이 미디어 대전 후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8 레저버디 후원 △홀트장애인합창단 세계합창올림픽대회 출전 지원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SK 행복나눔 야구교실 후원 △한국아시아이주민센터 주관 다문화가정 아동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레저활동을 함께 즐기는 레저버디가 베이징에 진출했다. 9월에 열린 2008 베이징 패럴림픽에서 레저버디 서포터즈가 한국팀을 응원하고 있다.

글로벌 부문

중국 사회공헌활동

SK텔레콤은 중국에서도 행복나눔의 정신을 전파하고 있다. 2008년부터 새롭게 SK창신교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도 중국을 방문,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SK 창신교실

SK는 10월 22일, SK차이나 김태진 대표, 중국광화과학기술기금회(이하 광화기금회) 허쥔커(賀軍科)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최고 명문 중학으로 꼽히는 북경 제4중학에서 'SK광화창신교실 건립식' 행사를 가졌다. 2008년부터 북경 제4중학을 비롯 북경 101중학 · 문회중학 등 베이징 소재 10개 중 ·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SK광화창신교실은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해 중국 광화기금회와 SK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교육사업이다.

또한 SK공익기금을 활용해 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와 광화기금회가 협력 프로그램으로 추진 중인 'KAB(Know About Business; 비즈니스 이해)' 특강을 지원했다. 대학생의 창업 및 취업 지원 특강인 KAB는 2008년 봄학기에 복단대 · 북경대 등 8개 대학에서 진행된 바 있으며, 가을학기에는 북경대 · 청화대 등 22개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 혁신을 통한 성장, 리더십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베이징포럼 및 상하이포럼 지원

SK텔레콤이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해 후원하는 베이징포럼과 상하이포럼이 11월과 5월에 각각 개최됐다. 한국고등교육재단과 북경대, 베이징교육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제5차 베이징포럼에서는 '문명의 조화와 공동번영-문명의 보편적 가치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인류 문명의 발전과 공동번영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조어대국빈관과 북경대에서 열린 베이징포럼에는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 류연동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Sha Zu Kang UN 부사무총장, 쉬즈홍 북경대 총장, 모한 무나싱히 UN IPCC 부회장, 해리 T. 디킨슨 영국역사협회 부회장, 고이야마 히로시 일본 도쿄대 총장, 마이 트롱 누안 베트남 하노이국립대 총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 등 세계 각국에서 300여 명의 지식인들이 참가했다.

이보다 앞선 5월에는 '경제 글로벌화와 아시아의 선택-변화, 성장, 복지'를 주제로 한국고등교육재단과 복단대학이 공동주최한 제3차 상하이포럼이 세계 26개국 310명의 학자 · 관료 · 경제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젠 창의력도 SK가 책임집니다." 중 · 고생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해 건립된 중국 SK창신교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최고의 명문 중학으로 꼽히는 북경 제4중학에서 SK광화창신교실 건립식 행사가 열렸다.

SK텔레콤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해 베이징포럼 · 상하이포럼을 후원하여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꾀하고 있다.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회원 22명은 중국 베이징과 쿤밍 지역 아이들에게 학습지도를 하고 시설보수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Sunny 회원들은 베이징 외곽의 쩐화소학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문화공연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봉사활동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회원 22명은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쿤밍 지역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Sunny 단원들은 중국의 청화대 학생들과 함께 베이징 외곽의 농민공학교인 쩐화소학을 찾아 낙후된 교육시설을 보수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체육활동, 문화공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베이징 봉사활동을 마친 후에는 워크캠프 단체인 JIA(Joy In Action)와 연계된 운남대 학생들과 함께 쿤밍(昆明) 지역의 소수민족 마을인 '소수탕 마을'을 찾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마을길 닦기, 옥수수밭 제초작업, 마을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베트남 사회공헌활동

SK텔레콤은 베트남에 진출하기 전인 1996년부터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대학생 자원봉사단 파견 등 활발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사업 13년

SK텔레콤은 세민얼굴기형돕기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베트남 최남단의 까마우지역에서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사업'을 시행했다. 2008년 무료수술에는 한국 의료진과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총 25명이 참가하여 181명의 얼굴기형어린이에게 밝은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SK텔레콤은 2007년에도 호치민 주석의 고향인 응에안 지역을 방문, 202명의 얼굴기형어린이에게 무료수술을 실시한 바 있다.

'베트남 어린이에게 웃음을(Smile for Children)'이란 슬로건 아래 1996년부터 시작된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사업은 매년 200명 내외의 얼굴기형어린이에게 새 삶을 선사하고 있다. 2008년까지 13년 동안 무료수술을 받은 어린이는 총 2,676명이다.

SK텔레콤은 무료수술 사업과 함께 베트남의 주요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여 베트남 스스로 얼굴기형어린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술 장비와 의약품의 추가 지원, 베트남 의료진의 한국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민얼굴기형돕기회와 함께 펼친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사업은 13년 동안 2,676명의 어린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줬다.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는 7월에 베트남 벤쩨에서 학교를 개보수하는 한편 아이들의 교육을 돕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봉사활동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는 2005년부터 매년 1회 이상 베트남을 방문하여 행복나눔 정신을 전파하고 있다. 2008년에는 1월에 46명, 7월에 23명 등 총 69명의 Sunny가 베트남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베트남전쟁 최대 피해지역 중의 하나인 붕따우와 벤쩨를 방문하여 집짓기, 학교 개보수, 아동교육, 나무심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봉사활동 기간 동안 현지 주민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베트남 문화를 체험했으며,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는 호치민에서 청년동맹 및 South Youth Center 회원들과 문화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김신배 부회장 베트남 국가우호훈장 수훈

김신배 전 SK텔레콤 사장(현 SK C&C 부회장)은 6월 19일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 훈장인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가우호훈장'을 받았다. 이 수훈은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IT교육센터 운영, 대학생 자원봉사, 빈곤층 지원 등 베트남에서 펼치고 있는 SK텔레콤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의 공로를 베트남 정부가 인정한 결과로 평가된다.

SK텔레콤은 베트남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아 베트남 정부로부터 국가우호훈장을 받았다.

베트남 IT교육센터 전문인력 양성

SK텔레콤 IT교육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베트남 내 IT 분야 인재양성 및 기술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2007년 12월, 호치민시 꽝쭝 특구 내에 설립된 SK텔레콤 IT교육센터는 6월 5일 1기 교육생 31명이 졸업한 데 이어 12월 10일 2기 교육생 39명을 배출하여 총 70명의 IT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이 중 성적이 우수한 13명은 숭실대 IT대학원에서 유학 과정을 밟고 있으며, 5명은 SK텔레콤의 글로벌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다.

IT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베트남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설립된 IT교육센터는 SK텔레콤이 사업 기획 및 예산을 집행하고, SK C&C가 교육과정 개발 및 강사 지원을 담당하며, 숭실대가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5개월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JAVA, UNIX, ORACLE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베트남의 IT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IT교육센터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베트남 지역사회의 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베트남 IT교육센터가 교육생을 배출하며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1기 수료생들의 환한 웃음 속에 베트남 IT산업의 미래가 영글고 있다.

몽골 축산시범농장 개발 사업

SK텔레콤은 지구촌나눔운동과 함께 2004년부터 몽골 자르갈란트 마을에 축산시범농장 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유목인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축산시범농장 사업은 젖소 시범 사육, 채소재배, 농축산 기술교육 등을 통한 유목민의 자립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소득증대사업의 하나인 가축은행을 통해 1인당 하루 평균 소득이 1달러 미만인 최극빈층 30가정에 젖소를 지원했으며, 사료은행을 통해 혹한기에도 안정적인 사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채소재배와 젖소시범사육 등의 주민교육 사업을 통해 소득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유목민 50가정에 휴대폰을 지원하여 원활한 정보교류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르갈란트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8년에는 18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유치원과 소학교 학생 58명에게 학용품과 생필품, 어린이 비타민과 옷 등을 전달했다.

SK텔레콤은 유목민의 소득증대 및 역량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범농장 사업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범적인 모델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몽골 축산시범농장 사업을 통해 젖소시범사육, 채소재배를 교육하는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다.

자원봉사 부문

SK텔레콤 자원봉사단

SK텔레콤 자원봉사단은 '나눔'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는 목표 아래 2004년 발족하여 2008년 총 53개 봉사팀, 4,931여 명의 봉사자가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2008년 12월 기준 자원봉사단 가입률은 92%이며, 8만 4,32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1인당 봉사시간은 17.1시간이다.

SK텔레콤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봉사에 대한 보람과 함께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이를 함께 공유하여 고유의 기업문화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피투게더 멘토링 프로그램

SK텔레콤은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함께 1318 해피존의 청소년 17명과 SK텔레콤 구성원 17명이 각각 멘토와 멘티로 연결되어 활동하는 해피투게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 학습지도나 일회성의 만남이 아니라 최소 1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며 진로지원과 적성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성원들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지식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 모델링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진로를 결정하고 미래를 계획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테마별 자원봉사

SK텔레콤은 월별 테마를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주제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4월 장애인의 달, 5월 가정의 달, 6월 환경의 달, 7월 환경개선의 달, 8월 가족캠프의 달, 9월 추석명절의 달, 10월 노인의 달, 11월~12월 행복나눔 계절 등 매월 이슈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임직원 해외자원봉사

SK텔레콤 임직원들은 2008년 1월과 2월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인도네시아 빙푹성 지역에서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빈민가정 아동과 나환자촌의 집 리모델링 활동을 하는 한편, 한국문화를 전하고 아이들과의 교류활동을 펼쳤다.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활동이 펼쳐진 인도의 깔리안뿌리 지역에서는 도시빈민촌 무료급식 및 운동회를 개최하고, 도시빈민학교를 방문하여 벽화 그리기 등의 환경 개보수 활동 및 음악·미술·체육 등의 교육봉사를 실시했다.

또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우수 자원봉사 활동자들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떠이성을 방문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음악·미술 등의 예체능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인도 푸네를 방문하여 도시빈민촌의 아동에게 무료급식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주민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다문화가정 자원봉사

SK텔레콤 미래나눔회는 이천과 여주 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위해 명랑운동회·FMI(SK텔레콤 미래경영연구원) 초청 문화행사 등을 개최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많아 다문화가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진정성 있게 전개한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미래나눔회는 7월 1일 중앙일보에서 주최한 제15회 자원봉사대축제에 기업 부문으로는 최고상인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SK텔레콤 53개 봉사팀은 2008년 1인당 평균 17.1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이웃과 더불어 행복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월별 테마별 자원봉사의 하나로 임직원들이 추석맞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은 테마를 선정, 전국적으로 동일한 주제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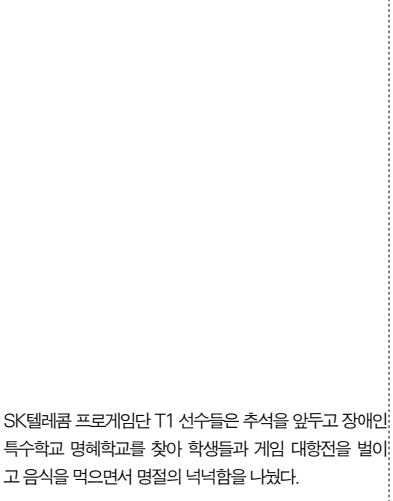
SK텔레콤 임직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봉사활동으로 우의를 다진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미래나눔회가 이천·여주 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위해 개최한 명랑운동회에서 참가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SK텔레콤 임직원들의 12월은 봉사활동 스케줄로 가득하다. 행복나눔 계절에 열린 행복나눔 바자회에 참가한 임직원들이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SK텔레콤 기업문화실 경영지원팀이 1팀 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한드미마을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

SK텔레콤 김신배 전 사장과 임직원들은 각 종단 대표와 함께 2008 행복나눔 김장행사에 참여하여 5만 5,000포기의 김치를 담갔다.



SK텔레콤 프로게임단 T1 선수들은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 특수학교 명혜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게임 대항전을 벌이고 음식을 먹으면서 명절의 넉넉함을 나눴다.

행복나눔 계절 자원봉사

SK텔레콤은 11월~12월을 행복나눔 계절로 선포하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각 봉사팀별로 연계되어 있는 사회복지기관 100여 곳에 3,500여 명의 구성원이 크리스마스 행사, 송년잔치, 김장 나누기, 연탄 나눔, 난방유 지원 등 120여 개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팀 1촌 자원봉사

SK텔레콤 기업문화실 경영지원팀은 충북 단양의 한드미마을과 1팀 1촌 자매결연을 맺고 분기별 1회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고추밭 정리 · 머루나무 가꾸기 · 감자 캐기 · 독거어르신 댁 연탄 배달 등 노동력 제공과 경로잔치 · 전문가에 의한 웃음치료 · 어린이 미술치료 및 마스크테라피(분장 및 패션쇼) · 노래자랑 · 중계기 설치를 통한 통화품질 향상 등 니즈(needs) 파악에 의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통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 봉사자들도 삼굿구이, 두부만들기, 친환경액자 만들기, 무공해 김장 담그기 등을 체험하며 팀워크가 강화되고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자매결연 자원봉사는 모두가 윈윈 하는 봉사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기업 지원 전문 자원봉사

SK텔레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시범활동을 실시했다. 이 활동은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능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2개월 동안 7명의 구성원이 마케팅, 네트워킹, 상품개발 및 기획 등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했다. 2009년에는 전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나눔 김장행사

한국기독교장로회 · 대한성공회 · 대한불교조계종 등이 소속된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는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서 행복김치 5만 5,000여 포기를 담그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열린 '2008 행복나눔 김장행사'에는 김신배 전 사장과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한 SK 임직원 300여 명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와 자원봉사자, 56사단 군인 등 모두 800여 명이 참여했다.

프로게임단 SK T1, 안산 명혜학교 봉사활동

SK텔레콤 프로게임단인 T1 선수단은 추석을 앞둔 9월 11일, 경기도 안산시의 장애인특수학교 명혜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박용운 감독, 최연성 · 박용욱 코치를 비롯해 박태민 · 박재혁 · 윤종민 · 권

오혁 · 고인규 · 박대경 · 손승재 등 선수단 일행은 명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송편과 과일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게임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박용욱 코치가 '프로게이머에 대하여'라는 특강을 했으며, 특강 이후에는 학생과 선수가 한 팀이 되어 팀 대항전 경기를 진행했다.

노인의 날 맞이 자원봉사

SK텔레콤의 53개 자원봉사팀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관내 저소득층 및 독거어르신 등을 찾아 무료 급식, 휴대폰 무상 AS, 나들이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미래사업개발 1본부 브라우니봉사단은 9월 26일 동대문 치매주간보호센터 어르신 30여 명과 함께 광릉수목원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SK텔레콤 53개 자원봉사팀은 노인의 날을 맞아 저소득 어르신 및 독거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수도권마케팅본부 나눔누리 봉사단 봉사활동

SK텔레콤 수도권마케팅본부 임직원 자원봉사단 '나눔누리'와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는 12월 18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교남어유지동산의 지적장애인 41명과 함께 놀이동산 나들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놀이동산 나들이는 2006년부터 매년 겨울에 진행되어 온 프로그램으로, 2008년에는 나눔누리 봉사단원 10명과 SK텔레콤이 운영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10여 명, 교남어유지동산 장애인 41명 등 총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용인 에버랜드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놀이기구와 눈썰매를 타며 장애인들에게 아름다운 겨울날의 추억을 선사했다.

경기도 파주시 교남어유지동산의 장애인들과 함께 용인 에버랜드 나들이에 나선 수도권마케팅본부 나눔누리 봉사단과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회원들.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발전 기여라는 SK사회공헌 자산을 계승하기 위해 2003년부터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를 운영하고 있다. '선한이'라는 의미의 Sunny는 패기와 열정을 갖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소양교육과 자원봉사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선한이'란 의미의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는 봉사를 통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고 있다.

하이티처

2004년부터 시작된 하이티처(Hi-teacher)는 보육원 및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매주 1회 방문하여 1대1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봉사 프로그램이다. 현재 Sunny와 결연을 맺은 전국 69개 아동시설에서 480명의 하이티처들이 학습 · IT · 예체능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하이티처는 매년 3월과 8월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활동 기간은 16주이다. 2008년 8월에 실시된 하이티처 모집에는 480명 정원에 3,040명이 지원하여 평균 6.74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의 아동보육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하이티처 사전 워크숍에서 Sunny 학생대표가 선서를 하고 있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가 '날아라 슈퍼 Sunny'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 포이동에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Sunny의 베트남 봉사활동에 대한 화답으로 남부베트남청년동맹 회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인천시에서 함께 담도색작업을 했다.

Sunny는 어르신들에게 휴대폰 기능 사용법을 알려 주는 활동에 동참해 세대간의 벽을 허물고 행복한 모바일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내 고장의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Sunny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날아라 슈퍼 Sunny (Fly Super Sunny)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가 자신의 전공이나 특기를 살려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으로 공연 · 리모델링 · 캠핑 운영 등의 재능을 발휘하여 소아병동 · 보육원 · 경로당 등에서 이웃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 슈퍼 Sunny 자원봉사자 12명은 8월 28일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의 판자촌을 방문하여 흉물스런 마을의 벽을 아름다운 벽화로 치장하고, 마을 어귀에 평상을 제작해 주는 등 환경개선활동을 벌였다. 9월 2일에는 Sunny 12명이 남부베트남청년동맹(South Youth Center) 회원 12명과 함께 인천시 동구 자활센터 옆 담에 벽화를 그리는 '해피 체인지' 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SYC 회원들은 매년 베트남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Sunny의 노고에 화답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행복한 모바일 세상 만들기

Sunny는 SK텔레콤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어르신 휴대폰 활용 교육'에 교육도우미로 참여하여 세대간 장벽이 없는 행복한 모바일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섰다.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동노인종합복지회관, 부산 중구노인복지회관, 인천 동구노인복지회관, 대구 노인복지회관, 광주 공원노인복지회관 등 9개 지역 10개 기관에서 진행된 어르신 휴대 활용 교육에는 4기에 걸쳐 총 8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은빛 모바일 세대로 거듭났다. 교육도우미로 참여한 Sunny 자원봉사자들은 1대1 맞춤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문자메시지 보내는 방법, 사진 촬영하는 방법 등 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는 휴대폰 기능을 교육했다.

지역 봉사활동 프로그램

전국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이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Sunny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의 SK텔레콤 구성원 자원봉사단, NGO 및 복지기관, 지자체와의 연계활동을 통해 봉사활동 효과를 높이고 있다.

SK 네트웍스

사회복지 부문
교육 · 장학 부문
환경보존 부문
문화 · 예술 · 체육 부문
글로벌 부문
자원봉사 부문

SK네트웍스는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는 일이 고객에 대한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믿음으로, 대고객 봉사활동은 물론 경제적 · 정신적 · 육체적으로 봉사활동이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구호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

SK네트웍스는 2005년 12월부터 사회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아동복지시설 소년 및 저소득가정 청소년(18~25세)들을 대상으로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문기술인의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사회 적응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원자들에게 6개월간 무료 자동차 정비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피드메이트 전국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187명의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업이 종료된 2009년 2월까지 저소득 청소년에게 자립 기반을 제공했다.

SK네트웍스는 스피드메이트 청소년 행복날개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과 함께 취업을 지원했다.

스피드메이트 장애인차량 무상점검행사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는 장애인주간을 맞아 각 지역별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차량점검과 간단한 소모품 보충 및 교환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서울지역 장애인 운전차량을 대상으로 무상점검 및 워셔액·오일류 무상 보충, 정비공임 20% 할인혜택 제공 등의 행사를 펼쳤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경정비 무상 지원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협약을 맺고 전국 600여 개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 경정비를 무상 지원했다. 이에 따라 전동휠체어가 고장 나도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 정비가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스피드메이트 매장을 찾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스피드메이트는 장애인의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볼트 및 나사 조임, 녹 제거, 펑크 수리, 전기배선 수리 등에 대한 정비를 지원했다.

SK네트웍스 경영서비스컴퍼니는 1사 1촌을 맺은 경기도 가평군 엄소리에서 총 2,090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물품을 지원하며 농촌사랑의 의미를 실천했다.

1사 1촌 가평군 엄소리 봉사활동

SK네트웍스 경영서비스컴퍼니는 농촌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1사 1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15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봄·가을 농번기에 제초작업, 모내기, 농산물 수확활동 지원, 볏짚 묶기, 가평군 농업인 한마당 참가 등 209명의 임직원들이 총 10회에 걸쳐 2,090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엄소리 마을회관과 화재 피해를 입은 가정에 TV 2대(42인치 PDP, 32인치 LCD)·노래방 기기·컨테이너 박스를 기증하는 한편, 1촌의 소득 증대를 위해 쌀 20kg 80포대를 구입하여 탈북자 교육기관 여명학교에 기증했다.

사랑의집 후원

SK네트웍스는 경상북도 청소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집 원아들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월 1회 정기적인 방문과 봉사활동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 시설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원아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랑의집 원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극 관람, 우방랜드 방문, 각종 박람회 참관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

살레시오의집 후원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서부지사는 연말에 제주도 장애인보육단체 살레시오의집을 방문, 3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성애원 후원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부산지사는 연말을 맞아 아동복지시설 성애원을 찾아 3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내부 생활시설 보수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중구청 위탁가정과 자매결연

SK네트웍스 네트워크기술본부 인터넷기술팀은 서울시 중구청 위탁가정 2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팀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회사 행사에 초청하는 등의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

복지관 아동 초청 행사

SK네트웍스 네트워크사업부문 서부지사는 사회복지시설 형제사 어린이들과 함께 눈썰매장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8월 24일에는 광주박물관 견학 행사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김치 담그기·청소 등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촌사랑 봉사활동

SK네트웍스 에너지마케팅부문 호남본부는 '자연사랑 농촌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계마을과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교류를 이어 가고 있다. 호남본부 임직원들은 송계마을 인근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농작물 수확 등을 도왔다.

극빈층 생계비 지원활동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사업본부는 지역사회 저소득층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스피드메이트봉사단 헌혈 캠페인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봉사단은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에서 헌혈 봉사를 시행했다. 봉사단은 서울 강남역 일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헌혈 권유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시에 헌혈의집 내 헌혈자 안내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가정 대상 사랑의 연탄 지원

SK네트웍스 에너지마케팅부문 호남본부는 호남지역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가정 400여 가구에 8만여 장의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교육·장학 부문

EBS 〈장학퀴즈〉 후원

SK네트웍스는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EBS 〈장학퀴즈〉 프로그램에 아이겐포스트 상품교환권 · 스마트 학생복 · 문화상품권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후원 활동

SK네트웍스 에너지마케팅부문 호남본부는 한국복지재단 관할의 광주 · 목포 지역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 오고 있다. 후원금은 본부 임직원과 지역 주유소 운영인들의 성금을 모아 조성하고 있다.

환경보존 부문

지역사회 환경정화활동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부산지사는 대천공원과 성지곡 수원지에서 쓰레기를 줍고 주변 지역을 청소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관악산 환경정화활동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수도권지역과 강남지사 임직원들은 관악산 등산로의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는 등 관악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전 SK네트웍스 사장(현 SK텔레콤 사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최악의 원유유출피해를 입은 태안을 찾아 기름제거작업을 펼쳤다.

SK네트웍스 네트워크기술본부는 남산한옥마을과 남산을 청소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펼쳤다.

남산한옥마을 환경정화활동

SK네트웍스 네트워크기술본부는 남산한옥마을에서 쓰레기 수거 및 주변 청소를 실시했다. 또한 나무 옮겨심기, 미관 해치는 바위 옮기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자연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삼청공원 환경정화활동

SK네트웍스 통신서비스사업본부는 삼청공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계룡산 환경정화활동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중부지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계룡산국립공원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에도 계룡산 입구에서 남매탑까지 주요 등산로 구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SK네트웍스 부산경남본부 구성원들은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I love clean 강남

SK네트웍스 에너지마케팅부문 스피드메이트봉사단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지역의 환경정화를 위해 삼성동 거리와 공원 인근에서 쓰레기 수거 등의 활동을 벌였다.

양재천 환경지킴이 활동

SK네트웍스 에너지마케팅부문은 서울시 강남구 양재천·탄천 일대의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강남구와 서초구 시민들의 휴식처인 양재천과 탄천 주변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 및 오물을 수거하고 생태계에 유해한 식물을 제거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청계산·문수산·진하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SK네트웍스 S-Movilion본부는 청계산 등산로 및 주변의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함으로써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꿔 나가는 일에 동참했다. 또한 경기도 김포의 문수산, 울산 진하해수욕장에서도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광주역·광주천 환경정화활동

SK네트웍스 윤활유영업팀 호남본부는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광주역과 광주천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하는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섰다.

갑천 환경정화활동

SK네트웍스 유통사업본부는 갑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광덕산·우암산·태조산·용봉산, 무심천, 산당산성 환경정화활동

SK네트웍스 대전충청본부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산과 하천을 비롯 관광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사업장 인근의 광덕산·우암산·태조산을 비롯하여 홍성 용봉산 등지에서 등산로를 청소하고 주변의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했다. 또한 무심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하는 한편, 산당산성을 찾아 주변 환경을 청소하는 활동을 벌였다.

모악산 · 황방산 · 황방산공원 · 은파공원 · 배산공원 환경정화활동

SK네트웍스 호남본부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명소에서 다양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김제 모악산 · 여수 황방산 등산로의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했으며, 여수 황방산공원 · 군산 은파공원 · 익산 배산공원 산책로를 청소했다. 또 진도 관매도해수욕장과 목포 해양축제 일원인 평화광장을 찾아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문화 · 예술 · 체육 부문

창덕궁 문화재 지킴이 활동

SK네트웍스 상사컴퍼니는 4월 21일 7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창덕궁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은 창덕궁 '인정전'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되는 날이어서,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보호의식을 다시 한 번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SK네트웍스 상사컴퍼니는 창덕궁 인정전이 일반에 최초 공개되던 4월 21일, 창덕궁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실시하며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글로벌 부문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지원

SK네트웍스 중국 내 직원들은 쓰촨성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사내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5월 12일 쓰촨성을 강타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망자와 피해가 발생하자, SK네트웍스 중국지역의 투자유한공사 · 중국본부 · 각 지사 및 투자사들의 직원들은 자체 모금활동으로 모은 성금을 베이징 적십자사(SK차이나를 통해 전달), 지역모금 조직, 피해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차이나패션(China Fashion) 법인은 쓰촨성 지진 이재민들에게 아이겐포스트 상품을 구호물품(6만 269개, 원화 55억 원 약 4,000만RMB)으로 기증했다.

SK네트웍스 중국 내 직원들은 사내에서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모은 성금을 쓰촨성 지진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중국투자유한공사 양로복리원 봉사활동

2005년 9월 설립된 SK네트웍스 중국투자유한공사는 2006년 1월부터 중국 심양시 황고구의 양로복리원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양로복리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으로 현재 13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곳에서 임직원들은 청소 · 세탁 · 생활용품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K네트워크 중국투자유한공사는 설립 이듬해인 2006년부터 심양시 양로복리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스마트 학생복 기증

SK네트웍스 학생복 브랜드 스마트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이란 · 방글라데시 · 베트남 등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의류지원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스마트는 의류지원사업 외에도 결식아동 돕기 · 불우학생 장학금 지급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 부문

사랑의 찐빵 나눔

SK네트웍스 임직원들은 매월 1 · 3주 토요일에 양로원 등을 순회하며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찐빵을 직접 만들어 함께 나누는 '사랑의 찐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찐빵 나눔 활동에는 현재 1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라파엘의집 봉사활동

SK네트웍스의 봉사활동 동아리 라파엘의집 봉사단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식사를 보조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인복지기관 지원

SK네트웍스 네트워크사업부문 대구지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영락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청소 · 목욕봉사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네트워크사업부문 서부지사도 영락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주변 청소 및 환경미화활동을 도왔다.

SK네트웍스 네트워크기술본부 기술계획팀은 요양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요셉의집 봉사활동

SK네트웍스 네트워크기술본부 기술계획팀은 요셉의집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요셉의집은 서울 방학동에 있는 지체장애인요양시설로 기술계획팀 임직원들은 청소, 목욕, 화단 가꾸기, 김장철 일손 돕기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 기증품 정리활동

SK네트웍스 네트워크기술본부 망관리센터는 아름다운가게의 일손돕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로 기증된 물품을 각 지역별 매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재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에 기증된 물품이 각 지역별 매장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재정리하는 작업에 SK네트웍스 임직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농촌일손돕기

SK네트웍스 통신서비스사업본부는 충북 옥천군을 방문해 모내기 일손을 도왔다. 농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바쁜 일손을 돕고, 과수원에서 복숭아나무 가지치기와 솎아주기 작업도 함께 했다.

밥퍼나눔 봉사활동

SK네트웍스 무역부문은 노숙자와 저소득층 이웃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밥퍼나눔'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모은 '밥퍼' 저금통과 겨울 방한복을 밥퍼나눔운동본부에 기증했다.

우성원 봉사활동

SK네트웍스 무역부문은 정신지체장애인의 보호와 의료재활 및 직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우성원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재활 및 직업교육 활동을 보조하는 한편 자립훈련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다.

SK네트웍스 무역부문 임직원들은 정신지체장애인시설 우성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온달의집 봉사활동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중부지사는 사회복지시설 온달의집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온달의집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통신유통사업본부 중부지사 구성원들은 2008년에도 격월 1회 이곳을 방문해 생활관 및 식당 청소 · 식사 보조 · 목욕봉사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생활물품을 지원하고 성탄절에는 산타 이벤트를 마련해 선물을 증정했다.

복지관 자원봉사

SK네트웍스 부산경남본부는 독거어르신 가정과 양로원을 방문해 노력봉사를 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SK네트웍스 임직원들은 복지시설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력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인요양원 어르신들과 나들이

SK네트웍스 네트워크사업부문 부산지사는 혼자서는 바깥활동이 어려운 애광노인요양원 어르신들과 함께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를 방문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요양원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교남소망의집 봉사활동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수도권지역은 월 1회 교남소망의집을 방문해 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을 돕고 있다. 동반 외출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응 능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터에서 작업을 보조하기도 했다.

독거어르신 가정 재가봉사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수도권지역은 월 1회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청소 및 생필품 지원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관 소속 어르신들의 생일잔치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있다. 또 기술연구소 연구1팀은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도배와 지붕 수리 등 환경미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신유통사업본부 서부지사는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목욕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사랑공동체 봉사활동

SK네트웍스 강남지사는 서울 신림동의 주사랑공동체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사랑공동체는 장애아동 및 고아를 위한 보호시설로, 강남지사 구성원들은 이곳에서 목욕 · 세탁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있다.

재한몽골학교 봉사활동

SK네트웍스 네트워크사업부문 전략본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재한몽골학교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식재료 제공 · 식사 조리 · 배식 등의 활동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보육원 · 용진육아원 봉사활동

SK네트웍스 통신유통사업본부 서부지사는 제주보육원과 용진육아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나들이 행사, 생일잔치 개최, 선물 증정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복지관 반찬 및 도시락 배달

SK네트웍스 통신서비스사업본부는 매주 화요일 3~4명씩 참여하여 무의탁 독거어르신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부산경남본부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재가세대에 밑반찬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남산원 봉사활동

SK네트웍스 네트워크기술본부 전송기술팀은 서울시 중구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인 남산원의 식목행사 · 여름캠프 · 바자회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독거어르신 도시락 · 반찬 배달

SK네트웍스 서울봉사단원들은 서울시 양재동 인근의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도시락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단순히 도시락 전달로만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고충사항을 듣고 복지관에 전달하여 고충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도 겸하고 있다. 서울봉사단은 지속적인 활동에 힘입어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장 표창장을 받았다.

전 SK네트웍스 사장(현 SK텔레콤 사장)은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참석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배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행복온도를 높였다.

구룡마을 연탄 지원

SK네트웍스 서울봉사단은 서울시 포이동 구룡마을 150가구에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연탄 200장씩을 지원했다.

상록보육원 · 화성영아원 봉사활동

SK네트웍스 무역부문은 상록보육원과 화성영아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음식과 선물을 준비하여 나눠주고 1일 아빠 · 엄마 대행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다. 2008년 2회에 걸쳐 총 51명이 참여했다.

식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활동

SK네트웍스 에너지마케팅부문 서울봉사단은 매주 3회 서초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및 설거지, 식당청소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매주 금요일에는 가양동에 위치한 기쁜우리복지관에서 장애인들에게 점심식사 등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경영지원부문 봉사단도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SK네트웍스 임직원들이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을 위해 구두를 닦아 드리고 있다.

SK케미칼

사회복지 부문
환경보존 부문
자원봉사 부문

SK케미칼은 '자연스런 기업, 자연스러운 사람들'을 테마로 하여 본사(정밀화학 · 생명과학부문)와 울산, 수원, 연구소 등 사업장별로 각각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과 '친인간'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

한사랑 백신 나누기 활동

SK케미칼은 취약계층과 및 특수 직군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접종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SK케미칼의 사회복지 부문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한사랑 백신 나누기 활동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해당 전문의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질환의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취약계층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감안해 시작되었다.

2008년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린이 백신 무료접종,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등을 의사협회와 함께 진행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큰 호평을 받았다.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에는 의사협회 · 개원의협의회 등과 함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0만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군 장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행사도 국방부 기부위원회를 통해 해마다 이어가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3년 연속 북한주민 항생제 지원

SK케미칼은 제약협회 및 남북의료협력재단과 공동으로 북한주민을 위해 의약품 세파클러캅셀을 3년째 지원했다. 북한주민 의약품 지원은, 2006년 말에 북한 동해안 및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장티푸스 · 성홍열 · 파라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발생해 청진 · 원산 등 동해안 지역과 해산 등 북부지역에까지 성홍열이 확산된 것을 돕기 위해 시작됐다. SK케미칼이 지원하는 세파클러캅셀은(cefaclor 250mg)은 광범위 항생제로서 적절한 항생제 투여 시기를 놓쳐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등의 위험을 큰 폭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다.

SK케미칼이 린보사업(낙후된 특정지역에서 위생 · 보건 · 의료 · 교육 등의 활동을 돕는 주민복지향상사업)의 일환으로 기증한 의약품들은 남북의료협력재단을 통해 북한의 조선적십자병원에 지원되고 있다.

SK케미칼은 의약품이 부족하여 고통받는 북한주민을 돕기 위해 3년 연속 의약품 세파클러캅셀을 지원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SK케미칼 수원공장과 SKC 수원공장은 수원시 정자1동의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와 공연이 있는 경로잔치를 열었다.

수원 정자1동 어르신 위한 경로잔치 개최

SK케미칼 수원공장은 SKC 수원공장과 함께 2005년부터 SKC 수원공장 주차장에 임시 공연장을 설치, 인근 지역(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에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95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과 선물로 즐거운 시간을 나눴다.

오산지역 어르신 · 장애인과 함께 행복나들이

SK케미칼 오산공장 사회봉사단은 2007년부터 오산종합사회복지관과 공동으로 관내 어르신 및 장애인과 함께 행복나들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근 공원에서 진행된 2008년 행복나들이에는 오산공장 봉사자와 몸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 약 30명이 참가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환경보존 부문

서호천 정화활동

SK케미칼 수원공장은 정자1동 주민센터와 함께, 공장 인근의 서호천이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호천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년에는 정자1동 주민센터와 함께 서호천변을 정비하고 꽃씨를 파종하여 아름다운 꽃길을 가꾸었다. SK케미칼은 또한 기업 이념인 '인간과 환경의 행복한 조화'를 실천하기 위해 매년 지역주민과 함께 서호천 야생화 심기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처용그린공원 정화활동

SK케미칼 울산공장 경영지원팀 · 안전환경팀은 처용그린공원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처용그린공원 정화활동은 2006년 울산시 남구청과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여 2006년부터 매월 1회 펼치고 있는 활동으로 2008년에도 오물청소, 진입로 주변 정리, 잡초제거 작업 등을 실시했다.

SK케미칼 울산공장은 공장 인근 처용그린공원의 환경 가꾸기를 통해 환경보호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자원봉사 부문

심기신수련 자원봉사

SK케미칼은 2004년부터 서울종합장애인복지관에서 SK심기신수련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심기신수련 자원봉사에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김창근 부회장이 함께하여, 고 최종현 회장이 창안한 심기신수련법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심기신수련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이어 주는 기의 순환을 도와 주는 체조로, 육체적 · 정신적 치유 효과가 있어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SK케미칼은 중증장애인들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창근 부회장과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심기신수련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

SK케미칼은 김창근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11월 28일 서울시 고덕동 소재의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했다. 5년째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김창근 부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더 힘든 우리 이웃들이 많아졌는데 이럴 때 함께 하는 마음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인근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전달됐다.

SK케미칼 김창근 부회장은 5년째 서울종합장애인복지관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하여 저소득가정을 위한 김치를 담갔다.

'아름다운 이웃, 오산사랑' 봉사활동

SK케미칼 오산공장 사회봉사단은 2007년부터 오산시청 앞 운암근린공원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이웃, 오산사랑'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2008년 봉사활동에는 수원공장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먹거리장터에서 음식을 판매했으며, 여기서 거둔 수익금은 지역 독거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전달됐다.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SK케미칼 오산공장 사회봉사단은 오산시 거주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08년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도배와 장판 등을 교체해 주는 활동을 진행했다.

안산 선심노인의집 봉사활동

SK케미칼 안산공장은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선심노인의집을 방문해 식재료와 생필품 지원, 어르신들의 활

SK케미칼은 독거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선심노인의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식재료와 생필품 제공을 비롯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SK케미칼 울산공장 유화생산팀은 내와동산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에 밀착된 활동을 전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다.

동 보조,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선심노인의집은 독거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보호시설로, 안산공장은 2005년 12월부터 이곳과 결연을 맺고 분기마다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명원 봉사활동

SK케미칼 울산공장은 시각장애인보호시설 광명원을 방문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과 시각장애인들의 식사 및 외출 보조 활동을 펼쳤다. 또 울산공장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받은 쌀 10포대를 광명원에 전달했으며, 울산공장 마라톤동호회도 달리기 모금액을 광명원에 기부했다.

내와동산 봉사활동

SK케미칼 울산공장은 노인장애요양원 내와동산에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건물 청소, 잡초 제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SKC

사회복지 부문
교육 · 장학 부문
환경보존 부문
문화 · 예술 · 체육 부문
자원봉사 부문

SKC는 기존의 단순 기부와 협찬 위주의 사회공헌활동을, 2003년부터 본격적인 직원 참여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체제로 전환하여 조직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회에 공헌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업무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지역사회와 어려운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

SKC 매칭펀드 조성을 통한 아동 · 청소년 후원

SKC의 '매칭펀드를 통한 청소년 후원'은 취약계층 중 가장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돕고 그들의 경제적 · 문화적 환경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을 돕자는 취지 아래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1사원 1세대 자매결연 형태로 아동 ·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주로 아이들의 교육비로 쓰이고 있다.

SKC 임직원은 1사원 1세대 자매결연을 통해 저소득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후원하고 있다.

최신원 회장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최신원 SKC 회장이 대기업 회장 중 처음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최신원 SKC 회장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3억 3,200만 원을 기부하여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정식 회원이 되었다.

(Honor Society)' 회원으로 정식 가입했다. 최신원 회장은 12월 17일 서울시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마을'을 방문하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가졌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고액기부자의 모임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개인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에 만들었다. 최신원 회장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억 900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했으며, 2008년에도 1억 2,300만 원을 기부, 6년 동안 총 3억 3,2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인 최고기부자 4위에 해당되며, 현직 기업인으로는 최고액이다.

2000년부터 SKC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는 최신원 회장은 2008년 성실납세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으며, 소년소녀가장돕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연탄 나눔 등의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또한 선경최종건재단을 통해 매년 2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남다른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최신원 회장과 SKC · SK텔레시스 임원진들은 육군 제1사단을 방문하여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부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국군장병 위문

최신원 회장을 비롯한 SKC 및 SK텔레시스 임원진 20여 명은 1월 15일 육군 제1사단을 방문하여 3,000만 원의 기부금과 1,5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최신원 회장은 9월에도 건국 60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성남 서울공항을 방문하여 1억 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무료급식 봉사

SKC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경기도 성남시 중동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본사 재무지원실이 시작한 이 활동은 점차 타 본부의 구성원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총 32회에 걸쳐 96명이 참여했다.

국립현충원 묘역정화활동

SKC는 5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국립현충원을 찾아 묘비 닦기, 묘비글씨 덧쓰기, 잡초 제거, 헌화 교체 등의 활동을 벌였다. 또한 SKC 창립 32주년 기념일인 10월 15일에는 최신원 회장과 박장석 사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립현충원과 지속적인 묘역정화활동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고, 연 2회 헌화를 기증하고 상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SKC는 국립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상시적으로 묘비 닦기, 묘비글씨 덧쓰기, 헌화 교체 등의 묘역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연탄 나눔 봉사활동

SKC와 비즈니스 파트너 임직원 50명은 12월 15일 서울시 관악구 상도동을 방문하여 취약계층 11가구에 총 1,1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연탄은 SKC가 (사)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에 기부한 5,000장 중 일부다.

SKC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서울 상도동 11가구에 1,100장의 연탄을 배달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왔다.

사랑의 김치 담그기 및 연탄 기부

SKC와 SK텔레시스는 12월 3일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치 담그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경기도 양평의 가루매 농촌체험마을에서 열린 봉사활동에는 최신원 회장을 비롯한 양사 임직원 150여 명이 참가하여 약 3,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날 담근 김치는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등에 전달되어 취약계층 아동 급식시설과 복지단체 등에 전해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사랑의 열매에 연탄 구입비용 1,500만 원을 전달했다.

최신원 회장과 SKC·SK텔레시스 임직원들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여, 3,000포기의 김치를 담갔다.

온누리아동센터 체험학습

SKC 수원공장 김형욱 공장장은 2월 26일 임직원 10여 명과 함께 봄방학을 맞은 수원시 장안구 소재 온누리아동센터(구 홈스쿨) 어린이 32명을 초청하여 에버랜드 나들이에 나섰다. 이날 야외 체험학습에 참가한 아동들은 눈썰매와 각종 놀이기구를 타며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 수원공장은 이외에도 지역어린이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SKC 수원공장 임직원과 함께한 에버랜드 나들이는, 봄방학을 맞은 온누리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는 신나는 방학선물이 되었다.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물품 제작 기증

SKC 수원공장 한마음봉사단은 1월 25일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불용자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물품 적재대를 지원했다. 물품 적재대는 온갖 용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 요양원 창고를 정리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한마음봉사단은 이외에도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나들이 도우미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수원시 정자1동 관내 노인정 의료봉사활동

SKC 수원공장 안전환경팀은 매월 정기적으로 수원시 정자1동 관내 노인정 7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혈압·당뇨 검사 및 노인성 질환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SKC 수원공장 한마음봉사단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인 재활 지원

SKC 수원공장 한마음자원봉사단은 수원시 이목동에 위치한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인 바다의별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방문하여 재활 및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제품 조립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쌀과 세탁기 등의 물품을 기증했다.

어르신들에게 경로잔치 개최 및 김장김치·쌀 지원

SKC 수원공장은 SK케미칼 수원공장과 공동으로 매년 5월 정자1동 경로잔치를 SKC 수원공장 주차장에서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SKC 최신원 회장이 기증한 선물세트 1,000개를 경로잔치에 참석한 95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11월에는 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어르신을 돕기 위해 120여 가구에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했으며, 정자1동 주민센터에 20kg 쌀 50여 포대를 기증했다.

SKC 수원공장은 SK케미칼 수원공장과 함께 정자1동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SKC 울산공장은 매월 2회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을 찾아 시설 청소와 정비 등의 노력봉사를 비롯하여 목욕봉사, 간식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립노인요양원 봉사활동

SKC 울산공장은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을 매월 2회 방문하여 시설청소, 목욕봉사, 간식보조, 말벗되어 드리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은 65세 이상의 치매환자, 거동 불편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실비 부담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2008년에도 임직원 144명이 이곳을 찾아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 드렸다.

SKC 울산공장 조병수 공장장과 간부 38명은 송년회를 겸한 봉사활동으로, 울산양육원에서 청소를 하는 한편 중식으로 자장면을 제공했다.

자장면 중식 제공

SKC 울산공장 조병수 공장장을 비롯한 차장급 이상의 간부 38명은 12월 20일 울산양육원에서 송년회를 겸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봉사활동은 두 팀으로 나뉘어 시설 청소와 중식으로 자장면을 제공하는 일을 분담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준비해 간 과자와 과일을 먹으면서 원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원유유출 피해를 입은 태안지역 고등학생 50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최신원 SKC 회장이 태안교육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교육·장학 부문

태안지역 학생 50명에 장학금 지원

최신원 SKC 회장은 선경최종건재단을 통해 원유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태안지역 고등학생 50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경최종건재단은 SK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2004년에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매년 1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2008년부터는 태안지역 학생 50명을 추가하여 총 17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태안교육청은 2월 27일 장학금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최신원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SKC 울산공장은 4년째 울산시의 기관들로부터 추천받은 모범청소년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모범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SKC 울산공장은 매년 12월에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교육청 · 자매결연학교에서 문화예술 · 과학기술 · 사회봉사 · 자기계발 분야의 모범청소년 10명을 추천받아 SKC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4회째를 맞은 2008년에도 모범청소년 1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환경보존 부문

1사 1하천 1산 1공원 1문화유산 가꾸기

SKC 수원공장은 환경보존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장이 위치한 정자동을 중심으로 지역 가꾸기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광교산 · 서호천 · 만석공원 및 화성행궁 등의 환경보호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SKC 수원공장은 문화유산을 가꾸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화성행궁을 비롯 광교산 · 서호천 · 만석공원 등지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한강 잠원지구 환경정화활동

SKC 본사 임직원은 5월부터 매달 1회씩 한강 잠원지구에서 담배꽁초와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한강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태화강 정화활동

SKC 울산공장은 태화강을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강으로 복원하기 위해 매월 1회씩 총 12회에 걸쳐 289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봉사활동을 펼쳤다. 울산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태화강은 SKC 울산공장의 1사 1하천으로, SKC 울산공장은 6년 전부터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울산 시가지를 흐르는 태화강 정화활동을 6년째 펼쳐 온 SKC 울산공장은 2008년에도 12차례에 걸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산수리 입구 화단조성과 환경개선

SKC 청원공장은 3월부터 5차례에 걸쳐 공장 주변지역, 특히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 입구의 미화작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산수리 입구는 통행차량 증가로 사람들의 보행이 줄어들면서 쓰레기가 방치되었던 곳으로, 이곳의 미화작업은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될 정도였다. SKC 청원공장 자원봉사자들은 이 지역을 청소하고 철쭉화단을 조성하여 마을주민들의 숙원을 풀어 줌으로써 봉사활동의 보람을 만끽했다. 조성된 화단은 SKC 청원공장 구성원들이 계절마다 꽃나무를 가꾸고 주기적으로 잡초와 쓰레기를 제거하는 한편, 단풍나무를 옮겨 심는 등의 노력으로 예쁜 화단으로 유지되고 있다.

SKC 청원공장은 오랫동안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던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 입구를 청소하고 화단을 조성했다.

금강지류 미호천 정화활동

SKC 청원공장은 금강지류의 미호천 주변 모래사장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물속 오물을 제거하는 정화활동을 하절기에 2차례 실시했다. 미호천은 청원군민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러 오는 곳으로, 이곳을 청소함으로써 환경개선은 물론 SKC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기여했다.

SKC 청원공장은 청원군민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휴식처인 금강지류 미호천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SKC 청원공장은 청원군의 명산으로 꼽히는 양성산에서 등산로와 문의문화단지 주변을 청소했다.

청원군 양성산 문의문화단지와 등산로 정화활동

SKC 청원공장은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양성산 문의문화단지와 등산로 주변을 청소했다. 양성산은 역사와 전설이 깃들어 있는 청원군의 명산. SKC 청원공장 봉사자들은 소중한 문화단지와 등산로를 청소하는 활동을 통해 깨끗한 문화환경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성과를 얻었다.

은적산 단군성전 가꾸기

SKC 청원공장은 공장 인근 은적산 정상에 있는 단군성전 주변을 청소하고 잡초 등을 제거했다. 의미 있는 관광자원임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적어 잡풀 등이 무성했던 단군성전 주변은 SKC 청원공장의 연 2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깨끗한 성지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SKC 청원공장은 공장 인근 은적산 정상의 단군성전 주변을 청소하여 관광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문화·예술·체육 부문

수원 장안구 만석거축제 협찬

SKC 수원공장은 수원시 장안구 주민축제인 제1회 만석거축제에 떡을 협찬했다. 또한 SKC 자원봉사단원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하여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풍년굿 재현 공연장에서 참가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다.

SKC 수원공장은 수원시 장안구의 주민축제인 제1회 만석거축제에 떡을 협찬하여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자원봉사 부문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시설물 정비

SKC 수원공장의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아우름자원봉사단은 자신들의 특기를 살려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에어컨 점검, 식당 공조필터 세척, 작업대 정리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요양원 노인들의 식사 도우미, 발마사지, 말벗 되기, 산책 보조 등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원공장이 지난 5년간 추진한 에너지 절감활동을 통해 터득한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요양원에 전수했다.

SKC 수원공장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아우름봉사단은 전문성을 살려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활동을 했다.

성가복지병원 봉사활동

SKC 필름사업부문 정보전자소재판매팀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서울 종암동 성가복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가복지병원은 무의탁 어르신 · 노숙자 등 빈곤계층의 환자들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봉사단은 식사 준비 · 배식 · 주방 청소를 비롯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식사 도우미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바다의별 봉사활동

SKC 수원공장 한울타리봉사단은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인 바다의별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재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기부품 조립 작업에 대규모 인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4일 동안 집중적으로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한울타리봉사단은 2006년부터 바다의별에서 청소 · 장애인 재활 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서호천 자연생태계 보호 활동

SKC 수원공장 자원봉사단은 인근에 있는 서호천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물고기 방생, 물길 바로 잡아주기, 장마에 떠내려 온 각종 생활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가꾸기 활동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광교산 약수터 환경미화 및 등산로 보수

SKC 수원공장 한마음봉사단은 수원시의 주산이자 수원공장의 1산인 광교산을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약수터 주변 청결활동, 손실된 등산로 보수,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울산 선암동 · 상개동 독거어르신에 사랑의 도시락 배달

SKC 울산공장은 울산시 남구 선암동 · 상개동 독거어르신 15세대에 매주 목요일, 총 49회에 걸쳐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했다. 독거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할 때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동자치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는 '말씀의 배달부'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SKC 수원공장 한울타리봉사단은 2006년부터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인 바다의별을 방문하여 노력봉사를 펼치는 한편 재활 보조 활동을 하고 있다.

SKC 수원공장은 공장 인근 서호천을 지키기 위해 물고기 방생을 비롯하여 쓰레기 제거 활동을 펼치고 있다.

SKC 수원공장 한마음봉사단은 1사 1산인 광교산을 매월 방문하여 약수터와 등산로 정비 및 청소를 하고 있다.

SKC 울산공장은 울산시 선암동 · 상개동 독거어르신들에게 매주 목요일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수연재활원 · 남구노인복지회관 봉사활동

SKC 울산공장은 10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 8차례에 걸쳐 수연재활원과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수연재활원은 발달장애 · 지체장애 어린이들의 생활교육시설로, SKC 울산공장은 시설청소 · 입소아동 목욕 · 제초작업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남구노인복지회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취미생활과 오락게임 · 침치료 · 중식 등을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SKC 울산공장 자원봉사단은 어르신들이 깨끗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리했다. 수연재활원과 남구노인복지회관의 봉사활동에는 총 238명이 참여했다.

사랑의 연탄 나눔

SKC 울산공장은 울산 남구 선암동 · 야음동 · 삼호동의 저소득가정 16세대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사랑의 연탄 6,400장을(400장/세대)을 배달했다. 11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조병수 공장장을 비롯한 62명의 울산공장 봉사단은 리어카와 릴레이 배달 방법을 동원하여 저소득가정에 세대별로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다.

SKC 울산공장은 선암동 · 야음동 · 삼호동 저소득가정 16세대에 각 400장씩, 총 6,400장의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여 온정을 나누었다.

작은마을복지재단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SKC 울산공장은 작은마을복지재단을 위해 김장김치 2,500포기를 담그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작은마을복지재단은 노인전문요양원인 성모의집과 성인 중증지체장애인이 생활하는 빛둘레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SKC 울산공장 임직원들은 작은마을복지재단의 김장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2,500포기의 배추 나르기, 양념 나르기, 김장김치 저장고에 나르기 등의 활동을 도왔다.

SKC 울산공장은 작은마을복지재단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하여 2,500포기의 김치를 담그고 김장 비용을 지원했다.

SK C&C

사회복지 부문
교육 · 장학 부문
글로벌 부문
자원봉사 부문

SK C&C는 개별기업이나 소수가 주도하는 활동으로부터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제도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의 전환을 위해 회사와 전 임직원, 나아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또한 사회와 기업과 구성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

2008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SK C&C가 5월 20일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8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정보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향신문이 주관하는 사회공헌대상은 총 11개 부문에 걸쳐 시상되는데, SK C&C는 IT 전문기업의 특성과 역량을 살려 전문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SK C&C는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한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여름방학 IT 특강, IT 전문봉사단 등을 운영하며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SK C&C는 IT 전문기업의 특성과 역량을 살린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2008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정보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장애인 먼저 실천상 '대한적십자상' 수상

SK C&C는 12월 16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장애인 먼저 실천상에서 '대한적십자상'을 수상

SK C&C는 장애인 무료 IT교육원을 통한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 활동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아 장애인 먼저 실천상 '대한적십자상'을 받았다.

했다. 이번 수상은 SK C&C가 2004년 4월 자원봉사단을 발족한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 무료 IT교육원을 통한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 활동과, 전 구성원이 참여해 지속적으로 펼친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이 중 성남과 일산의 장애인 무료 IT교육원은 지금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26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 중 159명은 IT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

13회째가 되는 '장애인 먼저 실천상'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을 먼저 배려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21세기 선진복지공동체를 가꾸어 가자는 취지로 1996년 제정되었다.

SK C&C 윤석경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부부동반으로 '행복나눔 김장 대잔치'에 참가하여 2,500포기의 김치를 담가 성남지역 500여 가정에 전달했다.

임원 부부가 함께하는 '2008 행복나눔 김장 대잔치' 개최

SK C&C는 성남지역 독거어르신과 저소득가정에 전달할 김치를 마련하기 위해, 10월 21일 YMCA와 함께 행복나눔 김장 대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2008년 4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에는 윤석경 대표이사 부부를 포함한 52명의 임원 부부, 직원 130명 등 총 182명이 참가하여, 이웃들의 행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500포기의 김치를 만들 양념을 만들고, 절인 배추의 물을 짜고, 배추속을 넣는 전 과정을 함께 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성남지역 500여 세대의 가정을 임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전달했다. SK C&C 경영층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부부 동반 임원 봉사활동은 임직원의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SK C&C 임직원들은 11월 4일부터 5일까지 펼쳐진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해 서울 노원동과 망원동 30여 가구에 총 1만여 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SK C&C는 취약계층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11월 4일부터 5일 양일간 사랑의 연탄 나눔을 펼쳤다. 총 1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상계동과 마포구 망원동의 저소득가정 30여 가구에 300~400장씩, 연탄 하나 하나에 이웃들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총 1만여 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SK C&C는 우리 주위의 그늘진 이웃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서울 주몽재활원의 뇌병변 장애아동 61명과 함께한 코엑스 아쿠아리움으로의 봄나들이는 SK C&C 임직원에게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뇌병변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SK C&C 임직원은 4월 17일 장애인의 날을 즈음하여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주몽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뇌병변 장애아동 61명을 초청하여 코엑스 아쿠아리움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날 뇌병변 장애아동들은 아쿠아리움의 동굴도 체험하고 상어와 돌고래, 열대어, 식인물고기 등 신기한 수중생물들을 구경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SK C&C는 이외에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소망재활원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명랑운동회, 성인 장애인을 위한 농장체험, 장애아동 요리체험 등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예그리나봉사단은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 운현궁에서 천사의집 아동 27명이 전통예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복지시설 아동 대상 정서지원 프로그램 도입

SK C&C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바른 몸가짐과 마음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SK C&C 예그리나봉사단은 4월 12일 서울 종로구 운현궁에서 천사의집 아동 27명에게 한복입기, 절하기 등 전통예절교육을 하며 색다른 봉사활동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천사의집은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 32명이 생활하고 있는 곳. 참가자들은 전통예절교육에 이어 다도예절교육, 제기와 매듭 목걸이 만들기 체험, 민속놀이 등을 하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이날의 예절교육은 상대방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예그리나봉사단은 4월의 전통예절교육에 이어 7월 해병대 극기훈련 캠프, 9월 안전체험관교육, 12월 행복 김장 김치 담그기 체험 등 4회에 걸쳐 정서지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어르신을 위한 효마당 '은빛사랑 대축제'

독거어르신과 SK C&C 임직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SK C&C 효마당 '은빛사랑 대축제'가 5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솔마을 야외무대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지역 독거 어르신 600명을 비롯해서 SK C&C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 총 900여 명이 참가했다. SK C&C는 독거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

고 어르신 노래자랑, 장구를 이용한 길놀이 행사, 민속춤, 미니바자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여 신명나는 축제의 한마당을 연출했다. 특히 다양한 먹을거리와 함께 사내 전문 봉사단이 지원하는 행복한 포토샵, 신나는 페이스페인팅, 캐릭터 풍선아트 등을 체험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테마파크를 마련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열린 축제의 공간에서 SK C&C는 그동안 성남지역에서 펼친 사회공헌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성남시장이 수여하는 '우수봉사단체 성남시장 감사패'를 받았다.

SK C&C는 이외에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아동을 위한 행복한 운동회 '장애아동 큰잔치', 장애청소년을 위한 남이섬 가족여행, 맹아원생들을 위한 허브 체험 행사, 장애인을 위한 인천 자유공원 및 차이나타운 봄나들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SK C&C는 효마당 '은빛사랑 대축제'를 개최하여 독거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발달장애 청소년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년식

SK C&C 임직원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성모자애복지관 산하 성모재활 및 레포츠대학(미인가) 소속 학생 중 2008년 성년이 되는 지적·발달장애 청소년 16명을 학교 선배들과 함께 초청하여 '2008 행복한 성년식' 행사를 개최했다. 5월 22일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에서 열린 성년식에서 이날의 주인공들은 SK C&C 임직원과 학교 선배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으며 성년의 기쁨을 만끽했다. 특히 성년이 된 장애학생과 학교 선배, SK C&C 임직원 등 4~5명이 한 조가 되어 남이섬 곳곳을 누비며 '밝은 미소 성인 사진 찍어 오기',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김치움에 대해 배워 보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성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이 되었다.

SK C&C는 지적·발달장애 청소년 16명의 성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춘천 남이섬에서 '2008 행복한 성년식'을 개최했다.

독거어르신을 위한 가을운동회 개최

SK C&C는 10월 노인의 달을 맞이하여 독거어르신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효마당 어르신들의 가을운동회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능골공원에서 개최했다. 성남지역 독거어르신 800여 명과 임직원 및 참여봉사자 등 총 1,000명이 어우러져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및 전통놀이를 함께 하고, 사물놀이·에어로빅·댄스 한마당·장기자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SK C&C는 이 행사 외에도 장애아동을 위한 운동회인 '장애아동 큰잔치', 장애청소년을 위한 '볼링게임 지도', 맹아원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노인의 달을 맞아 성남지역 독거어르신을 위해 개최한 가을운동회는,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즐거움과 공감을 이끌어 냈다.

제4회 행복나눔 가족봉사캠프

SK C&C는 무연고 장애아동들을 위한 '제4회 SK C&C 행복나눔 가족봉사캠프'를 8월 8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에서 개최했다. 임직원 33가족 180여 명은 이틀 동안 서울 강동구 주몽재활원에서 생활하는 무연고 장애아동 33명을 위한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 나섰다. 첫째 날 임직원 가족들은 장애

주몽재활원의 무연고 장애아동 33명은 SK C&C 행복나눔 가족봉사캠프에 참여한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 가족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행복을 체험했다.

아동 한 명을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해 가족앨범 만들기, 발 씻겨 주기, 가족사랑 선서, 가족 장기자랑, 마술공연 등의 이벤트를 통해 가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둘째 날에는 장애로 인해 수영장에 가본 적이 없었던 아동들과 함께 다양한 물놀이를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행복나눔 가족봉사캠프는 무연고 장애아동들에게 가정의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 동시에, 임직원 가족들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장학 부문

일산 IT교육원 7기 교과과정 개강

2005년 10월에 문을 연 성남 IT교육원과 일산 IT교육원을 통해 22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그중 127명이 IT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

SK C&C가 운영하고 있는 일산 IT교육원의 제7기 장애인 무료 IT교육과정 개강식이 2월 18일 열렸다. 지체장애 1~6급 7명, 정신장애 2~3급 3명, 뇌병변 5급 · 청각장애 3급 · 신장장애 5급 각 1명 등 25세~37세의 장애인 13명으로 구성된 7기 교육생은 6월 20일까지 4개월 동안 취업에 필요한 IT 전문교육을 받았다.

SK C&C는 IT서비스 전문기업의 특성을 살려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IT 전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 6월과 2005년 10월에 각각 성남 IT교육원과 일산 IT교육원을 개원하여 지금까지 총 264명의 IT 전문 교과과정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들 수료생 중 150명은 IT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 자립과 자활을 위한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일산 IT교육원의 경우에는 총 137명의 수료생 중 116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85%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성남지역 저소득층에 행복장학금 및 교복 전달

SK C&C는 성남지역 저소득가정 학생들을 위해 6,700만 원의 행복장학금과 600만 원 상당의 교복을 전달했다.

SK C&C는 성남지역 저소득가정의 학생들에게 총 6,700만 원의 행복장학금과 600만 원 상당의 교복을 전달했다. 정철길 SK C&C 경영지원부문장과 김경우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월 27일 성남시 분당구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67명의 학생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이들 중 26명의 중 ·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을 전달했다. 이번에 지원된 7,300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교복은 지난 한 해 동안 1,000여 명의 SK C&C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 중 일부를 성금으로 기탁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들로서, 성남시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SK C&C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63명의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청소년 복지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능 마친 고3 학생 대상 유비쿼터스 특강

사회 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유비쿼터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남과 서울 일대의 고교 30곳에서 '찾아가는 유비쿼터스 특강'을 실시했다.

SK C&C는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의 수업 공백을 해소하고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가는 유비쿼터스 특강'을 진행했다.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주 동안 성남 일대 고교와 서울시 일대의 고교 30곳에서 1만 2,000명의 고3 학생들에게 '미리 보는 유비쿼터스 세상'이란 주제로 IT 특강을 실시,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IT에 기반한 유비쿼터스가 만들어 갈 10년 후 혹은 20년 후의 삶과 사회환경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970년대 〈장학퀴즈〉 등 고교생을 위한 교육 및 장학 사업을 진행해 온 SK 사회공헌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IT 특강은, 2007년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학생들과 학교의 반응이 좋아 2008년에 30개 학교로 확대되었다.

여름방학 무료 IT 특강 '나도 UCC 스타'

SK C&C가 성남지역 저소득층 자녀들을 초청하여 열고 있는 '저소득가정 자녀 여름방학 무료 IT 특강'이 8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성남의 SK C&C에서 열렸다. 2008년 5회째를 맞이하는 무료 IT 특강에는 2월에 행복장학금과 교복을 지원받은 28명의 학생을 포함하여 총 41명의 중·고등학생이 참가했다. 특히 2008년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UCC 동영상 제작법을 교육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무비메이커 등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간단하게 멋진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법, 배경음악과 자막·타이틀 만들기, 사진 클립 편집 등 동영상 제작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진행했다. 또한 참가자들이 스스로 정한 주제에 따라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UCC를 직접 만들어 발표하고, 이를 UCC 사이트에 올려 보며 즐거운 여름날의 추억을 만들었다.

저소득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된 여름방학 무료 IT 특강은 청소년들이 관심 많은 UCC 동영상 제작법을 교육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글로벌 부문

몽골 꿈나무에 희망의 PC 기증

SK C&C는 6월 17일 몽골 청소년들의 IT 수준 향상을 위해 '희망의 PC 기증식'을 갖고 몽골 정보통신청에 노트북 300여 대를 전달했다. 몽골 울란바토르 시에 위치한 Skytel Plaza에서 진행된 기증식에는 사이한빌레그(Saikhanbileg) 몽골 정보통신청장, 부얀(Buyan) Sky C&C 사장, 안응희 Sky C&C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증된 노트북은 울란바토르 시내의 학교와 병원에 전달되어 그동안 정보화의 물결에서 소외되었던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SK C&C의 글로벌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IT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SK C&C의 몽골지역 자회사인 Sky C&C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IT 기반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SK C&C는 몽골 청소년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희망의 PC 기증식'을 갖고 몽골 정보통신청에 노트북 300여 대를 전달했다.

자원봉사 부문

발마사지·풍선아트 등 맞춤형 전문 봉사자 교육

SK C&C의 전문봉사단 중 하나인 '발마사지 봉사단' 회원들은 성남에 위치한 정성노인의집 및 중탑종합사회복지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를 펼치고 있다. 2007년 전문 발마사지 교육을 이수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2008년에 발족된 발마사지 봉사단은 생활시설 어르신 및 독거어르신에게 건강 발마사지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과 정서지원에 한몫을 하고 있다. SK C&C는 임직원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으로 활발한 봉사를 펼치고 있으며 사진, 발마사지, 풍선아트, IT전문가로 구성된 총 4개의 '전문봉사단'이 활동 중이다.

SK C&C는 임직원 자원봉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 그 첫 행사로 4월에 발마사지와 풍선아트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아동들과 함께한 한가위 맞이 행복나눔 봉사활동

SK C&C는 9월 10일 경기도 광주 소망의동산에서 장애아동들을 위한 '한가위 맞이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 윤석경 대표이사를 비롯 40여 명의 임직원들은 소망의동산 장애인들과 짝을 이뤄 송편을 빚고 동태전·호박전 등을 만들며 훈훈하고 넉넉한 한가위의 정을 나누었다. SK C&C는 또 장애인을 위한 목욕 봉사, 보육시설의 생활실·거실 등 주요 시설 청소, 무공해채소를 재배하는 텃밭 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윤석

SK C&C 윤석경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한가위 맞이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열고 장애인들과 더불어 한가위의 풍성함을 나눴다.

경 대표이사는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SK C&C는 '한가위 맞이 행복나눔 봉사활동' 행사로 10여 개의 봉사단이 참여하는 추석명절 음식 만들기, 민속체험, 마당놀이, 바자회 등의 활동으로 한가위 사랑을 전했다.

SK C&C 신입사원들은 한사랑마을과 한사랑장애영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SK C&C의 행복경영을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신입사원 자원봉사

SK C&C 신입사원 110명은 7월 5일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한사랑마을과 한사랑장애영아원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신입사원들은 장애인의 생활실과 거실 등 주요 시설물의 바닥을 물청소하고 환경미화, 목욕 봉사, 식사 및 산책 보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SK C&C는 2004년부터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에 독거어르신 돌보기, 장애인시설 생활 봉사 등을 포함시켜 SK 고유의 행복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008년 신입사원들은 앞으로도 사내의 28개 자원봉사단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보육기관 · 노인복지기관 등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다솜봉사단은 매월 예가원을 찾아 장애인들의 스포츠활동을 보조하는 한편 텃밭 가꾸기 등을 돕고 있다.

다솜봉사단 예가원 자원봉사

SK C&C 공공사업본부 다솜봉사단은 지적 · 발달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예가원을 매월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등반 · 볼링 등 스포츠 활동을 보조하여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텃밭 가꾸기 등의 농산물 재배를 통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봉사자가 장애인과 1대1 결연을 맺어 대인관계 기술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미드미봉사단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우리공동체를 방문하여 장애청소년들의 야외체험학습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미드미 봉사단 우리공동체 서울나들이

SK C&C SM사업본부 미드미봉사단은 10월 10일 성남에 위치한 우리공동체의 장애청소년들과 함께 서울랜드를 방문하여 국화꽃축제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005년부터 지적 ·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공동체에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드미봉사단은 요리교실, 야외체험학습 지원 등을 통해 장애청소년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발마사지 봉사단은 성남시 소재의 노인복지시설과 독거어르신 가정을 찾아 전문적인 발마사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발마사지 봉사단

SK C&C의 전문 봉사단인 발마사지 봉사단 회원 15명은 10월 20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중탑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발마사지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08년에 발족한 발마사지 봉사단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외에 정성노인의집 등 성남시에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독거어르신들을 방문하여 발마사지 봉사활동을 펼쳐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서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보태미봉사단이 펼치는 '행복한 밥상'

SK C&C 구매컨설팅본부 보태미봉사단은 매주 1회씩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직접 구입한 식재료들을 요리하여 '행복한 밥상'을 대접하고 있다. 특히 보태미봉사단은 자원봉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소규모의 복지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어 도움의 혜택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10월 16일에는 열린사랑의집을 방문, 행복한 밥상을 대접하고 지체장애인들의 나들이 활동을 도왔다.

자원봉사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규모 복지시설을 찾아 활동하고 있는 보태미봉사단이 열린사랑의집 지체장애인들의 나들이를 돕고 있다.

보치아 게임의 전도사 사랑누리봉사단

SK C&C 컨버전스사업본부 사랑누리봉사단은 성남에 있는 소망재활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청소년 뇌병변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치아 게임을 지도하고 있다. 사랑누리봉사단원들은 평일을 이용하여 매월 2~3회에 걸쳐 진행하는 보치아 게임 지도 외에도 주말을 이용하여 외부 활동체험 및 나들이 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랑누리봉사단은 성남 소망재활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치아 게임으로 원생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하사랑봉사단,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SK C&C 제조서비스사업본부 산하사랑봉사단은 1월 11일 새날복지회 부설 즐거운학교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과 함께 뮤지컬 '러브레터'를 관람했다. 이날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평소 경험하기 힘든 색다른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하사랑봉사단은 이외에도 수정노인복지회관과 산성종합복지회관의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산하사랑봉사단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인근 복지관 어르신들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어울림봉사단, 목련마을 은빛잔치 한마당 지원

SK C&C 컨설팅본부 어울림봉사단원 30명은 노인의 달을 맞아 10월 16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제12회 목련마을 은빛잔치 한마당'에 참가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경제적·정서적으로 소외된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어울림봉사단원들은 위문공연과 함께 먹을거리 마당을 준비하여 6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어울림봉사단은 성남시의 영구임대아파트 한마당에 참가하여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의 벗 예그리나봉사단

SK C&C 신규사업부문의 예그리나봉사단은 10월 14일, 50~60세의 지적·지체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소망의 동산을 방문하여 청소 및 목욕 봉사, 점심식사 준비, 식사 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장애인과 소외아동들의 일상생활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예그리나봉사단은 7월 29일에도 성남시에 있는 천사의집을 찾아 장마로 눅눅해진 생활실과 거실 등 주요 시설을 청소하고, 더러워진 벽지와 장판을 새것으로 교체했다.

예그리나봉사단은 장애인과 소외아동들이 거주하는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온누리봉사단은 우리공동체의 지적장애청소년들이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율봄식물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공공시설로 나들이를 진행하고 있다.

온누리봉사단,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SK C&C 텔레콤사업본부 온누리봉사단은 10월 15일 우리공동체의 지적장애청소년들과 함께 율봄식물원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나들이는 온누리봉사단이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장애인 사회적응 훈련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매월 1~2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온누리봉사단은 지역사회 안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방문하여 이용 방법을 지도함으로써 사회적응력을 키워 주고 있다.

SKforU봉사단은 정성노인의집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매월 2회씩 방문하여 미술·음악·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SKforU 봉사단이 전하는 행복한 노후

SK C&C 제조서비스사업본부 SKforU 봉사단은 매월 정성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생활관을 정리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미술작품을 만들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신체적으로 쇠약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어르신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2004년부터 미술·음악·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해 온 SKforU 봉사단은 매월 2회씩 정성노인의집을 방문하여 한지공예와 문화공연 관람 등을 함께 하며 어르신들의 벗이 되어 주고 있다.

햇살봉사단은 아산 피나클랜드와 외암리 민속마을에서 제4회 사랑의 발걸음 행사를 갖고,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여행의 기쁨을 선사했다.

햇살봉사단, 재가장애인 봉사활동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욕 서비스, 식사 보조, 생활환경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SK C&C 햇살봉사단은 6월 12일 장애인을 위한 테마여행인 '제4회 사랑의 발걸음' 행사를 가졌다. 아산 피나클랜드와 외암리 민속마을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평소 바깥나들이가 어려운 지체장애인들에게 여행의 기쁨을 선사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SK 건설

사회복지 부문
교육 · 장학 부문
환경보존 부문
글로벌 부문
자원봉사 부문

SK건설 자원봉사단은 2004년 발족하여 현재 4,000여 명의 본사 · 현장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보존, 환경 · 안전 교육, 글로벌, 취약계층 지원의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K건설은 전 임직원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활동

SK건설 건축주택부문 C/S본부는 2006년 4월부터 전국에 위치한 4개 고객센터(서울 · 수도권 · 중부 · 영남)를 중심으로 매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꾸준히 펼쳐 오고 있다. 각 지역 고객센터 직원들은 매월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하여 도배, 장판 및 바닥재 재시공, 지붕 보수, 싱크대 교체, 도장 공사 등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SK건설은 건설업체의 특성을 살려 2008년 12월까지 총 123가구의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깨끗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SK건설 건축주택부문 C/S본부 소속 4개 고객센터는 2006년 4월부터 매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벌이고 있다.

SK건설 마라톤동호회에서 실시한 행복나누기 자선레이스 행사로 마련된 행복기금으로 겨자씨사랑의집, 라파엘의집, 청운양로원 등에 물품을 지원했다.

SK건설 건축주택부문은 의정부와 화곡동 SK VIEW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행복나누기 행사'를 열고 다양한 행사로 행복지수를 높였다.

SK건설은 5월 가정의 달에, 매월 정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과 결연을 맺고 있는 시설에 생필품을 전달하여 함께 행복을 나누었다.

2006년부터 매년 겨울마다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SK건설은 2008년에도 서울 중계본동에서 9,000여 장의 연탄을 배달하여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도왔다.

행복나누기 자선레이스

SK건설 마라톤동호회는 2006년부터 매년 상 ·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행복나누기 자선레이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일정 기금을 기부하고, SK건설이 동일 금액을 매칭펀드로 기부해 마련한 행복기금은 연말에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2008년에는 3,600여 만 원의 행복기금을 마련하여 서울그린트러스트의 도심녹화사업을 후원했으며, 2009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활동 대상 가정에 기증할 농협상품권과 쌀을 구입했다. 또한 SK건설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인 겨자씨사랑의집(장애인생활시설), 라파엘의집(장애아동생활시설), 청운양로원, 송죽원(아동생활시설), 어린이 쪼물왕국, 몽골학교 등에서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 목욕의자 및 코너의자 등의 특수기구, 신발, 피아노 등의 물품을 지원할 때도 행복기금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 동네 행복나누기 행사

SK건설 건축주택부문은 12월 10일, 부가서비스 브랜드 VITAMIN SERVICE 중의 VITAMIN D '우리 동네 행복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의정부 SK VIEW와 화곡동 우장산 SK VIEW 입주민 총 1,222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직원과 입주민들이 참여하여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복나무 겨울나기, 단지 내 크리스마스 장식하기, 신년 소원 빌기 등의 다양한 행사를 함께 했다. 임직원과 입주민이 함께 담근 김치는 각 단지의 이름으로 저소득층에게 전달하였으며, 행복나무 겨울나기를 진행한 SK건설 임업부문 직원들은 단지 내 나무 가꾸기와 화단 청소 및 보수작업을 함께 전개했다.

가정의 달 복지시설 물품 지원

SK건설은 매년 5월 가정의 달에 각 복지시설에 생필품 등을 지원하며 행복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월 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복지시설(라파엘의집 · 송죽원)과 결연을 맺고 있는 시설(겨자씨사랑의집, 어린이쪼물왕국)에 의류, 장애인 용품, 의약품 등 필요물품을 전달하였다. SK가스 임직원들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작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을 전하며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나누었다.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SK건설 각 지역 고객센터에서는 연말 행복나눔 활동의 하나로 취약계층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월 6일에는 서울고객센터 및 C/S본부 임직원 약 30명이 참여하여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일대 50가구에 총 9,000여 장의 연탄을 배달하였다. SK건설은 2006년부터 매년 겨울,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시행하며 주위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장학 부문

어린이 환경사랑학교

SK건설은 5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서울지역 저소득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 환경사랑학교'를 개최했다. SK건설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진행한 어린이 환경사랑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태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환경사랑학교에 참여한 서울SOS어린이마을과 동명아동복지원의 아이들은 강화도 갯벌체험과 습지체험 활동을 하며 생태계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환경보호 방법 등을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서울SOS어린이마을과 동명아동복지원 어린이들은 강화도의 생태를 배우고 갯벌체험과 습지체험 등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안전환경 커뮤니티 공헌활동

2006년 4월 '안전환경 봉사단'을 출범시킨 SK건설은 본사와 현장 인근지역에서 품질안전환경본부 주관으로 안전환경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안전환경 커뮤니티 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 환경사랑 체험교육

어린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생태 체험기행(갯벌탐사)을 실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커뮤니티 공헌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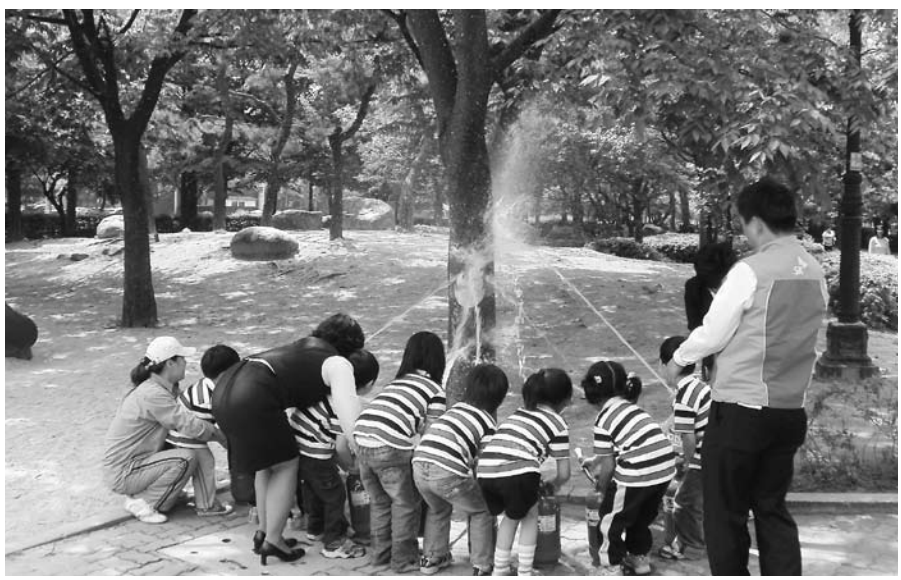
SK건설은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어린이 환경사랑학교를 열고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생태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안전 체험관교육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본사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안전사고(교통 · 소방 · 가정 등) 예방교육활동.

어린이 생활안전교육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 인근 초등학생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 지진 · 풍수해 등 각종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직접 체험하는 안전교육활동.



SK건설은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교통 · 소방 · 가정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환경문화를 정착시켜 가고 있다.

SK건설 임직원들은 매월 1회 서울숲을 방문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서울숲의 생태를 보호하고 있다.

SK건설은 임직원 가족과 함께 하는 친환경 봉사활동을 벌임으로써 가족애도 키우고 봉사활동 마인드도 고취시키고 있다.

의정부·광주·평택·포항 SK VIEW 4곳에서 우리 동네 행복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 단지마다 묘목을 심고 입주자들이 가져온 화분 흙을 갈아 주었다.

환경보존 부문

서울숲 가꾸기

SK건설은 2008년 1월, 행복나눔 자선레이스를 통해 마련한 '행복기금'으로 서울숲 시민조성 구간 내 'SK건설 나눔의 숲' 100평을 입양하였다. 임직원 자원봉사단은 매월 1회씩 서울숲을 방문하여 공원을 더욱 푸르게 가꾸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계절별로 습지생물관리, 열매줍기, 잡초제거, 낙엽쓸기, 월동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서울숲의 생태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친환경 봉사활동

SK건설은 바쁜 직장생활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임직원들을 위해 가족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08년에는 3차례에 걸쳐 임직원 가족과 함께 하는 친환경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6월과 11월에는 서울숲에서 벤치 칠하기, 피트모스(비료) 포설 등 서울숲 가꾸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 8월에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교남어유지동산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친환경 농작물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교남어유지동산은 지적장애인들이 농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가는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시설로,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 40여 명은 이곳 장애인들과 함께 500여 평의 텃밭에 약 2,000개의 배추 모종을 심고 방울토마토를 수확했다.

우리 동네 행복나무 심기

SK건설은 4월 3일, 기존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리 동네 행복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의 의정부 SK VIEW를 비롯해 광주 풍암동 SK VIEW, 평택 소사 SK VIEW, 포항 효자 1차 SK 아파트 4곳에서 열린 이 행사는 SK건설 임직원 80여 명과 각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 단지 내 중앙광장 등 대표 지역에 기념수와 메타세콰이어, 코니카 가문비, 벚나무, 철쭉 등의 묘목을 심었다. 또한 입주자들이 키우던 화분의 흙을 갈아 주는 행사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 동네 행복나무 심기는 2006년 일산 은행마을 SK VIEW를 비롯한 전국 11개 단지에서 시작되어, 2008년으로 3년째를 맞았다.

1산 1천 1로 가꾸기

SK건설 품질안전본부는 안전환경 커뮤니티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1산 1천 1로 가꾸기 활동을 펼쳐 자연환경 보존과 친환경적인 회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의 현장 임직원들은 현장 인근의 산과 하천, 가로 중에서 1개 장소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SK건설 각 지역 현장 임직원들은 1산 1천 1로 가꾸기 활동으로 자연환경 보존 및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글로벌 부문

쿠웨이트 한글학교 도서 기증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SK건설은 6월 24일, 현장 인근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및 교민 자녀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한국교민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쿠웨이트 한글학교에 〈먼 나라 이웃 나라〉, 황석영의 소설 〈바리데기〉 등 다양한 장르의 서적 900권을 기증하였다.

SK건설은 글로벌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및 교민 자녀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쿠웨이트 한글학교에 도서 900권을 기증했다.

태국 현장 인근 고아원 지원

SK건설 태국 THPP#3 현장 임직원들은 10월 16일, 현장 인근에 위치한 고아원(HUAYPONG HOME FOR CHILDREN)에 물품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SK건설 임직원들은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6~18세의 어린이 300명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며 꿈과 행복을 잃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아 줬다. 또한 열악한 원생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탁기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SK건설은 태국 THPP#3 현장 인근의 6~18세 어린이 300명이 생활하고 있는 고아원에 세탁기 등의 물품을 전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태국 쏭끄란 축제 지원

태국을 비롯해 해외 각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SK건설은 4월 13일, 한국 주재 태국대사관이 주최한 쏭끄란 축제에 필요 물품을 지원했다. 태국대사관은 2007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태국 고유의 설날인 쏭끄란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제1회 행사부터 후원해 온 SK건설은 태국대사관으로부터 감사패와 감사장을 받았다.

SK건설은 2007년부터 한국 주재 태국대사관이 주최하는 쏭끄란 축제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자원봉사 부문

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SK건설 자원봉사단은 매주 1회씩 노인과 장애인 ·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중증장애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집에서는 아이들 간식 먹여주기, 생활실 청소, 사직공원 산책하기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결손가정 아동시설인 송죽원을 방문하여 생활실 청소 및 아이들 돌보기 등의 봉사활동을,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청운양로원에서는 생활실 및 목욕실 청소, 어르신 말벗 되기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K건설 자원봉사단은 매주 1회 라파엘의집 · 송죽원 · 청운양로원 등의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에 필요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입사원 행복나눔 활동

SK건설 신입사원 82명은 7월 18일, 14개조로 나누어 특별한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신입사원들은 조별로 직접 봉사활동 테마를 정하고 계획하여 사회복지관 · 노인요양원 · 재활원 등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

SK건설 신입사원들은 SK 행복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봉사활동의 테마를 직접 정해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나 한강시민공원 · 남산 등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행복운동회를 열어 아이들과 함께 체육대회와 게임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복지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생필품 등을 전달하며 함께 행복을 나누었다.

SK건설 임직원들은 정기 자원봉사활동 외에 팀 · 부문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에는 20여 개 이상의 팀 · 부문 단위의 활동이 펼쳐졌다.

팀 · 부문 단위 봉사활동

SK건설 임직원들은 정기 자원봉사활동 외에 주말과 캠미팅을 활용하여 팀 · 부문 단위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약 20여 개 이상의 팀 · 부문에서 고궁, 국립공원, 인근 산 · 천 · 로 주변 등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하거나 해비타트, 사랑의 김장 나누기 활동 등을 직접 기획 · 진행하며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과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들과 행복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SK건설 현장 임직원들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횡단보도와 도로 등지에서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했다.

안전환경 Community 공헌활동

교통안전 봉사활동

출퇴근 시간대에 어린이와 현장근로자의 교통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인근 횡단보도 · 도로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활동.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인근 아파트단지 등의 어린이 놀이터시설 유지 · 보수 활동.

SK건설 현장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은 독거어르신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외로움을 달래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랑의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센터 및 지역구청과 연계하여 사회복지관 등에서 만든 도시락을 독거어르신 가정에 배달하여 어르신들과 시간을 함께하는 활동.

SK 해운

사회복지 부문
교육 · 장학 부문
문화 · 예술 · 체육 부문
글로벌 부문
자원봉사 부문

SK해운은 함께하는 마음이 모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복가치 극대화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해상운송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해양 · 하천 환경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실천하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

수상구조대, 장애우 한강 수상체험활동 실시

SK해운 수상구조대 봉사단은 9월 24일 한강시민공원에서 'SK해운과 함께하는 장애우 한강 수상체험활동'을 펼쳤다. SK해운 결연단체인 울타리공동체 장애우들과 광진학교 · 정문학교의 학생들을 초청하여 실시된 이 행사는 장애우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양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과 용기를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해상운송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수상구조대 봉사단과 사내 자원봉사자, 고등학교 자원봉사단 등 150명이 참가했으며, 장애우와 봉사자가 1대1로 한몸이 되어 모터보트 · 바나나보트 · 고무보트 · 카누 · 바이킹보트 · 고래보트 · 요트 등의 다채로운 수상활동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SK해운은 해상운송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년 장애우와 함께 수상체험활동을 실시하여 장애우들에게 사회와 당당히 맞서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매칭그랜트 활동

SK해운은 2005년부터 임직원들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회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08년에는 이 기금으로, 지속적인 결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주 울타리공동체와 국제적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월드비전을 후원했다. 또한 2005년부터 결연을 맺은 조손가정(2가정)에 매월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부대 위문

SK해운 이정화 사장과 임직원들은 설 연휴를 앞둔 2008년 1월 31일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했다. SK해운은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군부대 위문행사를 가져 왔다. 2006년 육군 수송사령부, 2007년 2함대 사령부 방문에 이은 2008년 해병대 제2사단 방문에서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체력향상과 활기찬 병영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바벨·덤벨 등의 체육기구를 지원했다.

교육·장학 부문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공부방 학습지도

SK해운 자원봉사단은 매주 화요일·목요일에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펼쳤다. SK해운 자원봉사단이 공부방을 찾은 지는 벌써 6년째. 배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지역 공부방인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어린이 사랑방'에서 봉사단원들은 초등학교 3~6학년 아동들에게 영어·수학 등을 지도하며 방과후 학습을 돕고 있다.

해양소년단 총재 찬조금 지원

이정화 SK해운 사장은 우리의 풍부한 해양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국내 유일의 해양 관련 청소년단체인 '한국해양소년단'의 총재를 역임하고 있다. 2008년에도 해양소년단원들이 바다에 대한 흥미와 중요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찬조금 및 각종 행사를 지원했다.

소년한국일보 지원

SK해운은 거제도 마전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다양한 정보를 매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년한국일보 구독을 지원했다.

2008년 5회째를 맞은 청소년 해양캠프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해양활동을 통해 호연지기를 길러 주는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

문화·예술·체육 부문

2008 청소년 해양캠프 개최

SK해운은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강릉청소년해양수련원에서 2008 청소년 해양캠프를 개최했다. 해양소년단이 주관하고 SK해운이 후원하는 청소년 해양캠프는 2008년 5회째를 맞아, 유락종합사회복지관·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초등학생과 초·중등 장애우 30여 명, 대학생 자원봉사자 80여 명을 초청, 참가자와 자원봉사자가 1대1로 한 조를 이루는 다양한 해양활동을 실시했다. 청소년 해양캠프는 2007년부터 참가대상을 장애

우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와 장애우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행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어린이 체험학습

SK해운은 8월 21일 유락복지관 공부방 어린이들의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했다. 어린이들은 이날 상암동의 스마트플렉스 영화관을 찾아 극장의 다채로운 시설들을 이용하며 재미있는 현장학습 시간을 가졌다.

유락복지관 공부방 어린이들이 상암동 스마트플렉스 영화관에서 극장시설들을 직접 사용해 보고 있다.

글로벌 부문

연변 제일중학교 장학금 지원

SK해운은 중국 내 조선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조선족 학생의 주요 대학 진학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1995년부터 14년째 연변 제일중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연변 제일중학교는 1952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설립과 동시에 건립되어 그동안 수많은 조선족 인재들을 양성해 온 유서 깊은 학교다. SK해운은 북경대 · 청화대 · 과학기술대 등 중국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제일중학교 졸업생들과,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는 교사 자녀들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하여, 매년 30여 명의 학생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원봉사 부문

SK 행복나눔 바자회와 함께한 벌룬아트

SK해운 벌룬아트 자원봉사단은 12월 12일 SK 행복나눔 바자회에 참가하여 SK해운 임직원들이 기부한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한편, 바자회에 온 고객들에게 다양한 풍선을 만들어 주며 즐거움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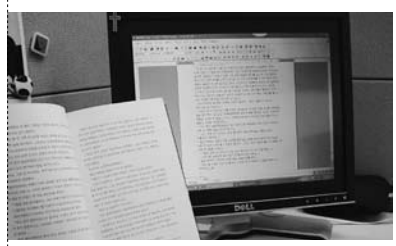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활동

SK해운은 기초수급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벽지 · 장판 등을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8년에는 2회에 걸쳐 서울 신당동의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도배작업을 실시, 어르신들이 좀 더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공간을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SK해운은 2008년에도 2차례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손가락출판사

SK해운 손가락출판사 자원봉사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 만드는 일에 동참했다. 시집 · 소설 · 월간지 등 장르에 상관없이 자원봉사팀이 한글(hwp) 파일로 입력한 책들은 변환프로그램을 통하여 음성도서로 읽혀지고 있다. 컴퓨터와 한글프로그램 그리고 책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SK해운의 많은 임직원들이 자신의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입력봉사에 동참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를 만들기 위해 SK해운 손가락출판사 자원봉사팀은 지속적으로 입력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벌룬아트 자원봉사 풍선 증정

SK해운은 4월 14일 장충동 국립극장 광장에서 열린 '2008 서울 사회복지걷기대회'에 참가하여 벌룬아트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자원봉사단은 대회에 참여한 장애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시민들과 함께 4.5km에 이르는 코스를 걸어가며 풍선이 있는 즐거운 풍경을 연출했다.

SK해운 벌룬아트 자원봉사단이 2008 서울 사회복지걷기대회에 참가하여 대회 참석자들에게 벌룬아트 풍선을 나눠 주고 있다.

11월 21일 이정화 사장과 임직원이 참여하여 용산구 후암동 저소득가정에 800여 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사랑의 연탄 나눔

SK해운은 11월 21일 이정화 사장을 비롯한 전 임원과 팀장 30여 명이 참가하여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갖고, 용산구 후암동 저소득가정에 800여 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소외계층과 행복을 나누고자 하는 SK해운 경영층의 솔선수범을 통해 경기불황으로 생활이 더욱 힘들어진 저소득가정에 따뜻함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로식당과 멀어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매주 1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SK해운 자원봉사단은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이 멀어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까지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주 1회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련한 도시락을 배달했다. 또한 사내에서 모금한 식권으로 빵과 음료 등의 간식도 지원했다.

SK해운은 울타리공동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6월에는 원생들과 더불어 MBC방송국을 견학했다.

울타리공동체 봉사활동

SK해운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장애인보호시설 울타리공동체를 방문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월에는 신입사원들이 방문하여 환경개선 자원봉사활동을 펼쳤으며, 6월에는 이들을 초청하여 MBC 방송국 견학, 12월에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함께 했다. 12월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원생들에게 개인 트레이닝복을 선물하고 케이크와 다과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이날 SK해운 임원들이 모은 사랑의 성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했다.

김장 나누기 행사

SK해운 자원봉사단은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6일 동안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가했다. 행사 기간에 담근 김장김치는 복지관 인근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몸 불편한 어르신 목욕봉사

SK해운 자원봉사단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목욕을 돕기 위해 매월 1회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인근 목욕탕에서 목욕 봉사를 실시했다. 어르신들에게 목욕 보조는 무엇보다 절실했던 것이기에,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SK증권

사회복지 부문
교육 · 장학 부문
환경보존 부문
자원봉사 부문

SK증권은 봉사하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 7월 20일 임직원의 참여 속에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연간 근무시간 1%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각 봉사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지원하여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SK증권은 SK 관계사와 함께 고객의 행복 창출에 기여하는 행복 파트너로 뿌리 내리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

저소득가정 아동 체험학습 프로그램

SK증권 상품본부와 Wholesale 사업본부는 2008년부터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만족지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품본부와 Wholesale 사업본부 구성원들은 본사 자원봉사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굿네이버스를 통해 25명의 아동과 결연을 맺고, 2달에 한 번씩 총 4회에 걸쳐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참가 아동들은 영종도 갯벌체험, 티셔츠 만들기와 패션쇼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집단에서 느낄 수 있는 소외감과 차별감에서 벗어나 행복한 웃음을 되찾았다.

SK증권은 굿네이버스를 통해 25명의 아동과 결연을 맺고 갯벌체험, 티셔츠 만들기, 패션쇼 등 총 4회의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조손가정 아동 후원하는 1인 1계좌 갖기

SK증권 임직원은 2007년 6월부터 조손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조손가정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빈곤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 정서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SK증권 임직원들은 국가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조손가정을 돕기 위하여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어 있는 서울 및 각 지역의 조손가정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500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2,000만 원의 기금을 마련, 전국의 조손가정 아동 77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대학로 노숙자 무료급식 지원

SK증권 종로지점은 대학로선교회와 공동으로 2005년부터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저녁에 노숙자를 위한 무료급식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본사 임직원들의 참여도 활발해져 대학로 내에서 SK증권의 고유한 자원봉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12월 15일에는 김우평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여하여 대학로선교회에 100만 원의 기부금과 양말 1,000켤레를 전달하고, 노숙자들에게 직접 배식을 하기도 했다. SK증권은 대학로선교회에 연간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SK증권 종로지점 임직원들이 대학로에서 노숙자 무료급식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학로선교회와 2005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다.

교육·장학 부문

찾아가는 청소년 경제교실 운영

2006년부터 청소년 경제교실을 운영해 온 SK증권은 2008년부터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청소년 경제교실'을 실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경제와 금융의 기초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 올바른 경제 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경제교실은 대구제일여자정보고, YWCA, 우면종합사회복지관, 흥주초등학교, 부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방문하여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SK증권의 8개 자원봉사팀이 참가했다. 특히 10월 22일 신정여상에서 열린 경제교실에는 이현승 대표이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3학년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증권회사와 종합주가지수의 의미', '주식투자와 펀드란 무엇인가' 등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들려줘 큰 박수를 받았다.

올바른 경제 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해 10월 22일 신정여상에서 열린 청소년 경제교실에 SK증권 이현승 대표이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했다.

환경보존 부문

여의도 한강 둔치 환경정화활동

SK증권 자원봉사단은 본사가 위치한 여의도 지역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1월 한 달 동안 한강 둔치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250여 명의 임직원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주 2km 구간의 한강 둔치를 깨끗이 청소했다. 이 활동은 평소 본사 임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아 온 한강 둔치를 자원봉사단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K증권은 한강 둔치 정화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참여도와 호응이 높음에 따라 2009년부터는 매월 실시되는 정기 봉사활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SK증권은 한강 둔치를 청소하는 활동에 대한 임직원 호응이 높아 2009년부터는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부문

임직원 1% 나눔 봉사활동

SK증권은 연간 근무시간의 1%(약 20시간)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1인 1봉사 운동을 전사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SK증권 임직원 자원봉사단은 본사와 지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사 · 서부지역본부 · 동부지역본부 · 영남지역본부 등 4개 지역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봉사단 산하에는 부서와 지점을 기본 단위로 하여 총 59개 봉사팀이 행복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헌신성과 진정성으로 무장한 SK증권 봉사단은 장애인 · 저소득층 · 조손가정 아동 등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SK증권은 정신지체장애시설인 교남소망의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식사 준비와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교남소망의집 자원봉사

SK증권의 봉사동호회인 나눔회와 리서치센터, 자산운용본부 직원들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교남소망의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저녁식사 준비와 배식 ·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연간 7회에 걸쳐 평소 외출이 어려운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나들이 도우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아동 목욕봉사

SK증권 수원지점 자원봉사단은 2006년부터 매월 수원시에 있는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복지관 아동들을 대상으로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에는 복지관 아동들에게 더 큰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 매월 생일파티를 열어 주는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수원지점 봉사단은 3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정 어린 봉사활동을 펼친 결과, 복지관 아동들과 한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SK증권 수원지점은 2006년부터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아이들에게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립영보자애원 지원

SK증권 IT지원실은 2001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정신지체 장애여성 복지시설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왔으며, 자원봉사단이 결성된 2004년 이후부터는 봉사단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IT지원실 봉사단은 2008년에도 매월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을 방문하여 청소 · 빨래 · 채소 경작 · 주변환경 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12월에는 온풍기 등의 물품을 기증했다.

SK증권 IT지원실은 장애여성시설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을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청소 · 빨래 · 채소 경작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SK증권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에게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배식하고 설거지를 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영등포 지역 무료급식 지원

SK증권의 기업문화실 · 리스크관리실 · 감사실 봉사단은 2008년 1월부터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서울 광야교회를 방문하여 무료급식지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야교회는 22년 전부터 영등포역 뒤편의 일명 '쪽방촌' 주민 500여 명에게 하루 세끼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무료급식 지원활동에는 매월 평균 10여 명의 SK증권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여 배식에서 설거지에 이르기까지 일손을 돕고 있다. 또한 무료급식을 위한 쌀을 매달 지원했으며, 3월과 12월에는 쪽방촌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양말을 선물했다.

SK증권 안산지점 임직원들이 소외아동과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사랑의집을 찾아 장작 나르기를 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사랑의집 지원

SK증권 안산지점은 2006년부터 아동복지시설인 사랑의집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지원하고 청소와 장작 나르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에도 10여 명의 직원이 총 4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2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사랑의집은 소외아동 18명과 장애인 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다.

WALKERHILL

사회복지 부문
교육 · 장학 부문
환경보존 부문
문화 · 예술 · 체육 부문
자원봉사 부문

워커힐은 '나누는 삶, 워커힐의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기업 특성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과 자연보호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

워커힐 사회봉사의 날

워커힐은 그룹 차원에서 실시하는 행복나눔 계절에 동참하기 위해 매년 특정 하루를 정해 집중적으로 전사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년에는 11월 7일을 사회봉사의 날로 지정, 지역 소재 의료봉사단인 혜민병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벌였다.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CEO와 임직원 자원봉사단의 중식 배식, 사물놀이 공연단원들의 공연, 혜민병원 의료봉사단의 의료검진, 구급약품 키트(Kit) 제공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 파주 양지무료노인복지원을 방문하여 쌀과 성인용 기저귀 지원, 구내이발소의 이발 봉사, 대청소, 전기시설 점검 등의 활동을 하며 소중한 하루를 보냈다.

워커힐은 '사회봉사의 날'을 정해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행복나눔 계절에 동참했다.

워커힐은 CEO와 임직원들이 1인 1후원계좌에 참여하여 모금한 성금을 광진노인종합복지관·화성영아원·하늘이네집에 후원하고 있다.

워커힐은 서울시 광진구의 65세 이상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료 미납부자를 지원한 공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사장 감사패를 받았다.

워커힐 외부사업본부는 여주군의 독거어르신 300명을 여주군 복지회관으로 초청,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다.

1인 1후원계좌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 화성영아원 · 하늘이네집 후원

워커힐 CEO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2007년 6월부터 1인 1후원 계좌를 통해 모금한 금액을 광진노인종합복지관 · 화성영아원 · 하늘이네집에 후원하여 소외 독거어르신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아동 ·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데 힘쓰고 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지원

워커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와 함께 서울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 취약계층 중 건강보험료 미납부자를 위한 월 3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08년 360만 원의 금액을 지원했다. 워커힐은 이 활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를 받았다.

스카이72 바다 클럽하우스에서 취약계층에 식사 대접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워커힐 외부사업본부 스카이72 바다 직원들은 8월 11일 인근지역 취약계층 40명을 스카이72 바다 클럽하우스(상하이룸)로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증정하는 등 여름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여주군 독거어르신 무료식사 대접

워커힐 외부사업본부는 5월 22일 여주군의 독거어르신 300명을 여주군 복지회관으로 초청하여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여,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다문화가정과 함께 나눈 행복

워커힐은 국내에 체류하는 다문화가정 34가족 68명을 대상으로 6월 9일 '워커힐과 함께 나누는 행복'을 개최, 고국에서와 같은 흥겹고 따뜻한 정을 선물했다. 이 행사는 그동안 단순 배식봉사에 그쳤던 활동을 워커힐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엔터테인먼트 수준에 맞게 전환시킨 것으로, 페이스 페인팅 및 티셔츠 핸드 페인팅, 케이크 트리 만들기, 사물놀이 축하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SK네트웍스가 단체 티셔츠 50벌, 협력업체인 오성주유소가 학용품 90세트, 동우회가 도서상품권을, 레크리에이션업체가 사회와 레크리에이션을 실비용으로 지원함으로써 '함께 나누는 행복'의 가치를 더했다.

워커힐이 주최한 '워커힐과 함께 나누는 행복'에 참석한 다문화가정 34가족 68명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연계기관의 어린이들을 워커힐로 초청,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쿠키 만들기, 미술사 공연관람, 레크리에이션을 함께하며 따뜻한 연말을 보냈다.

워커힐과 천사들이 함께하는 행복트리 만들기

워커힐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단체 어린이들이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힘이 되도록 초청 행사를 가졌다. 11월 24일 워커힐 코스모스룸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연계기관 어린이 55명, 선생님 12명이 참석하여,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쿠키 만들기, 마술사 공연 관람 및 레크리에이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린이들이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는 모금함과 함께 12월 25일까지 워커힐 로비에 전시되었으며, 여기서 모인 모금액은 하늘이네집 학자금으로 지원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참여

워커힐은 2004년부터 매년 광장동이 주최하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에 참여하고 있다. 2008년에도 경기침체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장학 부문

사랑의 도서 기증

워커힐은 9월 22일 리버파크 야외수영장 북카페에 기증된 도서 1,000권 중 500권을 선별하여 광진구청에 '사랑의 도서'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인터파크 도서와 공동협찬으로 진행됐다. 광진구청에 기증된 도서는 지역 22개 동사무소 내 새마을문고에 전달되어 방문고객들의 대기시간을 유익하게 만드는 마음의 양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워커힐은 인터파크 도서와 공동으로 광진구청에 사랑의 도서를 기증했다. 이 도서들은 22개 동사무소 내 새마을문고에 비치된다.

하늘이네집 사랑의 장학기금 전달

워커힐 유용종 사장은 SK 사회공헌활동사무국·기아대책의 지원과 임직원 공동모금운동으로 마련한 사랑의 장학기금을 하늘이네집에 전달했다. 사랑의 장학기금은, 하늘이네집 거주 아동이 대학에 합격해도 등록금이 없어 대학 입학을 포기하거나 미취학 시 하늘이네집을 나와야 하는 사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보존 부문

아차산 자연보호 캠페인

워커힐은 2002년 아사모(아차산을 사랑하는 모임) 창단을 시작으로 매년 3회 이상 아차산 자연보호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2006년에는 나무 뿌리 복토작업을 하고, 2007년에는 나비를 방생하는 등 쓰레기 줍기 차원의 자연보호 캠페인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년에도 유용종 사장과 임직원이 참가하여 아차산 생태공원 환경조성활동 등을 벌였다.

지역주민들의 휴식처인 아차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용종 사장을 비롯 임직원 100여 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고객과 함께 하는 그린 캠페인 실시

워커힐은 4월 7일 CEO를 비롯해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커힐 코스모스룸 · 현관 · 로비 · 광장 등에서 그린 캠페인(Green Campaign)을 실시했다. 그린 캠페인은 환경문제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워커힐을 방문하는 고객과 임직원이 함께 하는 캠페인이다. 이날 워커힐은 청정기업을 선포하는 한편,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는 일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셔틀버스와 고객 차량 등에 그린 캠페인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워커힐은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CEO와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 캠페인(Green Campaign)을 실시했다.

관악산 자운암 등산로 입구 청소

워커힐 외부사업본부 금룡 서울대점 직원들은 4월 30일 인근의 관악산 자운암 등산로를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자운암 등산로는 관악산 등산로 중에서도 전망이 좋아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금룡 서울대점 직원들은 전년도에 사용한 현수막을 재사용하는 등의 실천으로 봉사활동의 의의를 높였다.

워커힐은 그린 캠페인에서 청정기업을 선포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워커힐 외부사업본부 금룡 서울대점 직원들이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관악산 자운암 등산로를 청소하고 있다.

문화·예술·체육 부문

워커힐씨어터 민속공연단, 지역주민들에게 민속공연

워커힐 예능팀의 워커힐 씨어터(WTR:Walkerhill Theater) 민속공연단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경로잔치와 지역축제에 참여하여 수준 높은 민속공연을 선보여 많은 호응과 찬사를 받았다. 특히 WTR 민속공연단의 공연은 워커힐의 비즈니스 역량을 잘 살린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2008년에는 5월 8일 한강호텔 예식홀에서 실시된 경로잔치, 5월 17일 구리시 한강공원에서 열린 구리시 유채꽃축제, 10월 11일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를 무대로 한 아차산 고구려축제 등에서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여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워커힐 예능팀 워커힐씨어터 민속공연단이 구리시 아차산 고구려축제에 참가하여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자원봉사 부문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사랑 나누기

워커힐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의 진정성을 더하고 있다. 2008년에도 워커힐 W호텔 임직원들은, 저소득가정의 어린이를 위해 자신들의 어학 역량을 살려 매주 수요일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에게 영어학습을 지도했다. 8월 19일에는 호텔 야외수영장인 리버파크에 아이들을 초대하여, 물놀이와 함께 시원한 여름 한때를 보냈다. 또 면세사업본부는 매월 1회 화성영아원을 방문하여 청소와 빨래 등의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기업문화실 · 평강회, 하늘이네집에 지속적인 자원봉사

워커힐 기업문화실은 결연을 맺고 있는 하늘이네집을 위해 워커힐 직원식당 외식업체인 후니드의 협찬으로 주 1회 밑반찬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여직원 동우회 평강회는 하늘이네집을 월 1회 방문하여 청소 및 쇼핑과 영화관람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여름에는 워커힐이 제휴한 휴양지인 송지호해수욕장으로, 겨울에는 워커힐 아이스링크로 아이들을 초대하여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워커힐은 하늘이네집 · 화성영아원 ·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을 후원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반성과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인 '나누는 삶 워커힐의 행복'에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어르신들이 핸드벨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워커힐은 행복나눔 바자회에 식빵과 단과자빵을 기증하는 한편, 유용종 사장과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판매활동을 벌였다.

제4회 나누는 삶 워커힐의 행복 개최

워커힐은 2월 27일 임직원을 비롯 광진구청 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제4회 나누는 삶 워커힐의 행복을 개최하여,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북돋우는 한편 행복 추구의 의미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4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온 이 행사는 지난해를 정리하고 새해의 사회봉사활동을 기획하는 자리로, 저명인사 공연 및 강연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되어 임직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제4회 행사에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어르신들의 핸드벨(Hand Bell) 축하공연, 한비야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초청 강연 등이 진행되어, 2008년 봉사활동에 임하는 임직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짐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제공했다.

SK 행복나눔 바자회에 식빵과 단과자빵 기증

워커힐은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SK 행복나눔 바자회'에 워커힐 제품의 식빵과 단과자빵을 기증하여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데 동참했다.

SK E&S

사회복지 부문
교육 · 장학 부문
환경보존 부문
자원봉사 부문

SK E&S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게 최대의 행복을 제공하는 행복경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전 임직원 모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SK E&S의 자회사인 9개 도시가스 임직원 또한 전국에서 행복나눔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및 시설 지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 장학 사업, 환경정화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행복 온도를 높이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

1인 1후원계좌 갖기 참여

SK E&S와 9개 자회사 임직원은 월드비전과 연계해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8년에는 SK E&S와 자회사의 임직원 약 900명이 참여해 4,300여 만 원을 모금했으며, 모금액은 월드비전을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의 도시락 반찬 지원과 해외 아동 결연사업 후원에 사용됐다.

SK E&S와 자회사 임직원은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으로 모금한 금액을 월드비전을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의 도시락 반찬 지원 및 해외 아동 결연사업 후원에 사용했다.

행복나눔 바자회에 태안지역 농산품 기증

SK에서 주관하는 행복나눔 바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SK E&S는 2008년에 열린 바자회에 태안지역 농산품인 쌀 · 고구마 · 고춧가루 · 소금을 기증하고 SK E&S 구성원이 직접 기증품을 판매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는 원유유출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태안지역 농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SK E&S는 2008년 행복나눔 바자회에 태안지역 농산품인 쌀 · 고구마 · 고춧가루 · 소금을 기증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벌였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지원

SK E&S는 2008년 9월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주관한 '맛따라 멋따라 팔도기행'에 1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이는 2007년부터 자원봉사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계획됐다.

부산도시가스는 해운대·기장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 매년 쌀을 전달하고 배식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도시가스 – 저소득층에 사랑의 도시락·쌀·학용품 지원

부산도시가스는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정 중 거동이 불편한 10세대에 구내식당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매일 지원하고 있다. 3개조(2인 1조)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독거어르신 가정에 따뜻한 식사를 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매년 해운대·기장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300만 원 상당의 쌀을 전달하고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시작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08년에도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부산도시가스 구성원들이 부산시 수영구에 위치한 동산원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2곳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책과 장난감·스포츠용품 등을 선물로 전달했다.

충남도시가스는 사회복지시설에 도시가스시설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인 행복나눔터 4·5호를 각각 4월과 12월에 개소했다.

충남도시가스 – 도시가스시설 무료 지원

충남도시가스는 4월 14일과 12월 16일에 각각 대전 월평종합사회복지관과 판암사회복지관에 도시가스 배관과 보일러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행복나눔터 4·5호' 개소식을 가졌다. 행복나눔터는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기관에 도시가스시설(가스 시공·보일러·가스레인지)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영남에너지서비스는 행복나눔 계절을 맞아 결식아동을 비롯한 취약계층 100세대에게 선물과 간식을 나눠 주러 가기 위해 산타클로스로 분장했다.

영남에너지서비스 – 사랑의 김장 나누기 및 사랑의 산타 보내기

영남에너지서비스는 행복나눔 계절을 맞아 11월 29일 구미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3.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또한 12월 19일과 23일에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복장을 한 70명의 자원봉사자가 구미지역의 결식아동을 비롯한 취약계층 100세대를 방문하여 선물과 간식을 나눠 줬다.

충청에너지서비스 – 기초수급대상자 가스요금 지원 및 가스시설 무상 점검

충청에너지서비스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생활형편이 어려운 충북지역 기초수급대상자 100세대에 매월 10만 원씩 3개월 동안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했다. 또한 9월부터 2달 동안 청주지역 기초수급대상자 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무료 점검 및 교체·수리 활동을 진행했다.

포항도시가스 – 취약계층 무료 가스점검

포항도시가스는 7월 26일 포항시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가스점검 및 시설교체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복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봉사활동에서 포항도시가스 직원들은 포항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가정을 방문해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했다.

전남도시가스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혈 행사, 김장 나누기, 연탄 나눔 행사를 갖는 한편 광양YWCA를 통해 결식아동과 독거어르신 가정에 행복나눔 쌀을 전달했다.

전남도시가스 – 사랑의 헌혈 행사,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복나눔 쌀 지원

전남도시가스는 7월 4일 전 구성원과 서비스센터, 입주회사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나눔 헌혈 행사를 갖고, 가정형편 때문에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헌혈증서를 기증했다. 또한 11월 26일과 27일에는 순천YWCA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순천시 경로복지식당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담근 2,000포기의 김장김치는 결식아동과 독거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이 밖에도 12월 10일 전남 광양YWCA를 방문해 독거어르신에게 행복나눔 쌀 25포대를 전달했으며, 같은 날 순천시 상사면 일원의 독거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연탄 1,500장을 지원했다.

강원도시가스 – 사랑의 연탄 배달, 사랑의 김장 나누기

강원도시가스는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배달 및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사내 봉사동아리인 '함사모(이웃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난방비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연탄 2,000장을 배달했으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김장김치 200kg을 담가 결손가정 세대에 전달했다.

사랑의 연탄 배달,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에 참가한 강원도시가스 임직원들이 저소득가정에 2,000장의 연탄을 배달한 후 한데 모였다.

전북에너지서비스 – 가스 요금 지원 및 급식비 지원

전북에너지서비스는 2008년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시설에 가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초 · 중학생 50여 명에게 급식비를 후원하고 있다.

전북에너지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가스 요금 지원, 아동 급식비 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장학 부문

부산도시가스 – 장학금 모금 및 지원

부산도시가스 공무팀 직원 28명은 매월 1만 원씩 성금을 모금하여 부산 예문여고 학생들에게 분기별로 7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수혜 학생들의 담임선생님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비와 식비, 학용품비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충청에너지서비스 – 인재양성재단 후원

충청에너지서비스는 11월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를 통해 연말 소외아동을 위한 후원금 2,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12월 지역사회의 인재양성과 발전을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강원도시가스 – 산학협력 장학금 지원

강원도시가스는 지역사회의 인재를 육성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폴리텍Ⅲ 춘천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전북에너지서비스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전북에너지서비스는 2008년 저소득가정 자녀 43명에게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보존 부문

SK E&S는 태안군 가의도에서 기름제거활동을 펼치는 한편, 태안지역 특산물을 구입해 태안의 경제 살리기에 동참했다.

가의도 봉사활동

SK E&S는 4월 29일 봉사활동의 손길이 닿지 않는 태안군 가의도를 방문해 기름제거활동을 하고 태안 특산물을 구입해 태안 경제 활성화에 힘썼다. 이는 2007년 SK E&S 및 전 자회사가 태안 원유유출사고 직후 태안을 방문하여 활동을 펼친 것에 이은 2번째 활동이다.

부산도시가스는 맑은 사회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근 해수욕장과 등산로에서 매년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계산 환경정화활동

SK E&S 임직원은 10월 28일 서울 청계산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활동을 시행했다. 이 행사는 3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해 의미 있는 활동을 시행하고 구성원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임직원들은 약 4시간 동안 청계산 산책로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통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

부산도시가스 – 부산시 해수욕장 및 등산로 환경정화

부산도시가스는 매년 인근 해수욕장과 등산로를 방문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맑은 사회 깨끗한 도시 조성'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환경정화활동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전남도시가스는 순천시 버드네공원과 근린공원에서 정기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시가스 – 순천시에서 환경정화활동

전남도시가스는 환경보존을 위해 순천시 버드네공원과 근린공원 등에서 쓰레기 수거, 화장실 청소 등의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원도시가스는 4월 4일 전 임직원이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인근 후평공원에서 잡초와 쓰레기를 제거하는 활동을 했다.

강원도시가스 – 잡초제거 및 쓰레기 수거활동

강원도시가스 구성원들은 4월 4일, 1시간 일찍 출근해 회사 주변의 춘천시 후평공단에서 잡초 제거 및 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쳤다.

자원봉사 부문

SK E&S와 9개 자회사 공통 자원봉사 '우리 자녀 지킴이'

SK E&S의 자회사인 9개 도시가스사는 2008년 4월부터 사업장의 순찰차를 이용해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선도하는 '우리 자녀 지킴이' 자원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매일같이 도시가스의 안전을 점검하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획된 이 활동을 통해 SK E&S의 9개 자회사는 엽기적인 아동 관련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날로 커지고 있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9개 도시가스사는 해당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매주 혹은 격주에 한 번씩 패트롤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으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길을 지나야 할 경우에는 직접 동행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SK E&S는 2007년부터 매달 월드비전 일산지부 사랑의 도시락 나눔센터를 방문해 소외아동 140여 명에게 전달될 저녁 도시락 반찬과 밥을 만들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행복나눔 밥퍼

SK E&S는 2008년부터 인사동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매주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배식, 안경 세척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의 달을 맞아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라파엘의집 중복장애아동 식사 보조

SK E&S는 2008년부터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중복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인 라파엘의집을 매달 방문하여 저녁식사 보조, 목욕 및 청소 도우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복나눔 연탄 나르기

2007년부터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연탄을 지원해 온 SK E&S는 12월 17일, 구성원과 2009년 입사 예정인 신입사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독거어르신 5세대에게 1,500장의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부산도시가스 – 사랑의 연탄 나눔, 이동대상 봉사활동

부산도시가스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27일 부산시 남구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과 기초수급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이외에도 부산시 진구에 위치한 장애인보호시설인 신애재활원과 감만동 소재 아동보호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을 매주 방문하여 재활원 강당 및 숙소 주변을 청소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남에너지서비스 – 사랑의 연탄 나눔,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영남에너지서비스는 12월 31일 공급권역 내 소외계층 17세대에게 5,1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또한 매달 정신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사랑의쉼터를 찾아 교실 환경정리, 농장 운영, 울타리 조성, 휴게실 조성, 시설 개·보수 등의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거어르신 보호시설인 성심요양원·김천베다니성화원, 결손가정 어린이 보호시설인 상록모자원 등에서 일손 돕기, 나들이 보조, 숙소 환경개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K E&S와 9개 자회사는 매일같이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 특성을 살려,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여 아이들의 등·하교를 보호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SK E&S 임직원들이 월드비전 일산지부 사랑의 도시락 나눔센터를 방문해 소외아동에게 전달할 도시락과 반찬을 만들고 있다.

SK E&S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매주 점심 배식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SK E&S 자원봉사자가 혼자서는 식사를 하기 어려운 라파엘의집 중복장애아동에게 식사를 먹여 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도시가스는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을 배달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환경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또 시설 거주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행복을 전하고 있다.

충청에너지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인 은혜의집 · 베데스다의집을 찾아 목욕, 환경정리,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주 화요일에는 청주 가경교회를 찾아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항도시가스 임직원들이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독거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다.

포항도시가스 – 사랑의 연탄 나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포항도시가스는 12월 4일 포항YWCA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열고, 직접 담근 김치를 포항시내 독거어르신과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또한 다음날인 12월 5일에는 독거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3,000장의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강원도시가스는 지역사회의 복지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배식 봉사를 비롯하여 목욕 봉사, 청소, 시설 개·보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전남도시가스 – 행복도시락 · 연탄 나눔, 노인 · 장애인시설 봉사

전남도시가스는 5월 17일,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6호점에서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행복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2월 10일에는 행복나눔 계절을 맞아 순천시 상사면 일원의 독거어르신 및 기초생활수급자 5세대에 사랑의 연탄 1,500장을 배달했다.

또한 순천시 석현동에 위치한 향림실버빌과 광양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매화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식사 및 목욕 보조, 청소, 환경정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시가스 –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강원도시가스는 태양의집 · 나눔의동산 · 보금자리 등의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배식 봉사를 비롯 목욕 봉사, 청소, 시설 개 · 보수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SK 가스

사회복지 부문
교육 · 장학 부문
환경보존 부문
문화 · 예술 · 체육 부문
글로벌 부문
자원봉사 부문

지역사회 중심의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던 SK가스는 2004년 자원봉사단 출범 이후 보다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한편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K가스는 향후 중국 등 비즈니스 진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회복지 부문

임직원 매월 희망기부금 모금

SK가스 임직원들은 매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희망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2008년 12월 기준으로 매월 221명(약 80%)의 직원들이 희망기부금 모금에 동참하였으며 1년간 모금된 3,158만 원의 기부금은 매월 기지 인근 소년소녀가장 후원 및 자원봉사기관 물품 후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전사 헌혈행사

SK가스는 2004년부터 각 사업장별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33명의 구성원이 헌혈에 참여한 데 이어 2008년에는 본사, 울산기지, 중국 사업장에서 총 42명의 구성원이 헌혈행사에 참여했다.

임직원 마라톤 성금으로 홀트아동복지회 난방비 지원

SK가스는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뉴욕 마라톤에 참여한 SK에너지 신헌철 부회장과 SK에너지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의 완주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SK가스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마라톤 성금을 모금하였다. 회사 매칭펀드 금액을 추가한 모금액 전액은 12월 23일, 홀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영아 일시보호소의 난방비로 지원됐다.

동명복지재단 후원

SK가스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소재한 동명복지재단에 2007년 11월부터 약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또한 평택기지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동명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일누리보호작업장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7년 2월에 설립된 동명복지재단은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및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SK가스 직원들이 본사 앞에 마련된 헌혈 차량에서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본사와 더불어 울산기지 · 중국 사업장에서도 헌혈이 실시됐다.

SK가스는 홀트아동복지회를 방문하여 임직원이 모금한 마라톤 성금을 영아 일시보호소에 전달했다.

SK가스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회복지기관에 행복나눔 계절을 맞아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다.

행복나눔 계절 맞아 자원봉사기관 특별후원

SK가스는 행복나눔 계절을 맞이하여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하는 사회복지기관에 후원 물품 및 후원금을 전달했다. 임직원들이 매주 화요일 방문하는 청운요양원과 은평재활원에 약 1,340만 원 상당의 성인용 기저귀 및 화장지를 지원하였으며 울산지역의 나눔터 · 애리원 · 메아리학교, 디딤돌노인복지센터와 평택지역의 인수원, 열린재활원에 연말 후원금을 전달하여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디딤돌복지센터 독거어르신 봄나들이 차량 지원

SK가스는 울산기지 봉대산 산나물 행사의 수익금으로 디딤돌사회복지재단 디딤돌노인복지센터가 주관한 독거어르신 봄나들이 행사에 차량을 지원했다. 그동안 차량 여건이 여의치 않아 나들이가 어려웠던 디딤돌노인복지센터는 SK가스의 차량을 지원받아 온천과 수목원을 찾은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었다.

SK가스 임직원들은 포천 지동산촌마을을 방문하여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 수확 등 일손을 도왔다.

1사 1촌 자매결연으로 농촌사랑 실천

SK가스는 9월 18일 임직원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포천 지동산촌마을을 방문하여 1사 1촌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일손돕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1사 1촌 자매결연은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회사 구성원에게는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와 마을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다. SK가스 임직원들은 산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한편 직접 고구마 · 버섯 · 고추 등을 수확하며 일손을 도왔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은평구청장 표창 수상

SK가스는 9월 4일, 제9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된 '은평 주민서비스 박람회' 기념식에서 자원봉사단체 부문 은평구청장상을 수상했다. SK가스 직원들은 2006년부터 은평재활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식사보조 · 목욕 지원 · 나들이 보조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해 온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SK가스는 2004년 자원봉사단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제9회 사회복지의 날에 개최된 '은평 주민서비스 박람회' 기념식에서 SK가스는 은평재활원에서 정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로 자원봉사 단체 부문 은평구청장상을 받았다.

교육·장학 부문

울산·평택기지 인근 소년소녀가장 후원

SK가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소년소녀가장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SK가스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울산과 평택기지 인근의 소년소녀가장 19명을 선정하여 임직원 희망기부금으로 1인당 쌀 20kg과 학용품 구입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

울산·평택 결식아동 후원

SK가스는 울산·평택기지 인근의 울산 선암초등학교, 평택 원정초등학교, 평택 도곡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결식아동 16명에게 매월 쌀 20kg과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자매결연 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 지원

SK가스는 6월 울산 선암초등학교와 평택 원정초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했다. 2004년부터 LPG 저장시설이 위치한 기지 인근의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온 SK가스는 해당 학교에 매년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고려대 화학공학과 발전기금 지원

SK가스는 자연과학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고려대 화학공학과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소년소녀가장 대학 입학 장학금 및 교복 구입비 지원

SK가스는 회사 차원에서 후원하여 온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2008년에 대학과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후원금을 지원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대학에 입학한 4명의 학생에게 진학을 격려하는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교복 구입비를 전달했다.

SK가스는 자매결연을 맺은 원정초등학교에 발전기금을 지원하여 어려운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환경보존 부문

울산기지 회야강 정화 활동

SK가스 울산기지는 울주군 덕하리에 위치한 회야강과 회야댐 주변의 환경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지 임직원 및 가족들은 주말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고 강변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녹색정화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평택기지 1사 1연안 및 남양호 가꾸기

SK가스 평택기지는 1사 1연안 가꾸기의 일환으로 평택항과 당진항 인근을 방문하여 자연정화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평택기지 인근의 남양호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남양호 가꾸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SK가스 울산기지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회야강 주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체육 부문

SK가스배 신예프로 10걸전 후원

SK가스는 한국 바둑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 바둑기사 육성과 바둑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1996년부터 'SK가스배 신예프로 10걸전'을 후원하고 있다. 2008년 12회를 맞은 SK가스배 신예프로 10걸전은 참가 자격을 만 25세 이하, 5단 이하 기사로 제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신예프로 10걸전은 그동안 박정상 · 조한승 · 이세돌 9단, 강동윤 7단, 이영구 6단, 백홍석 5단(10기 우승자) 등 훌륭한 프로기사들을 배출하여 한국바둑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1996년에 시작되어 2008년 12회를 맞은 SK가스배 신예프로 10걸전은 그동안 한국바둑을 빛낸 프로기사들을 배출했다.

글로벌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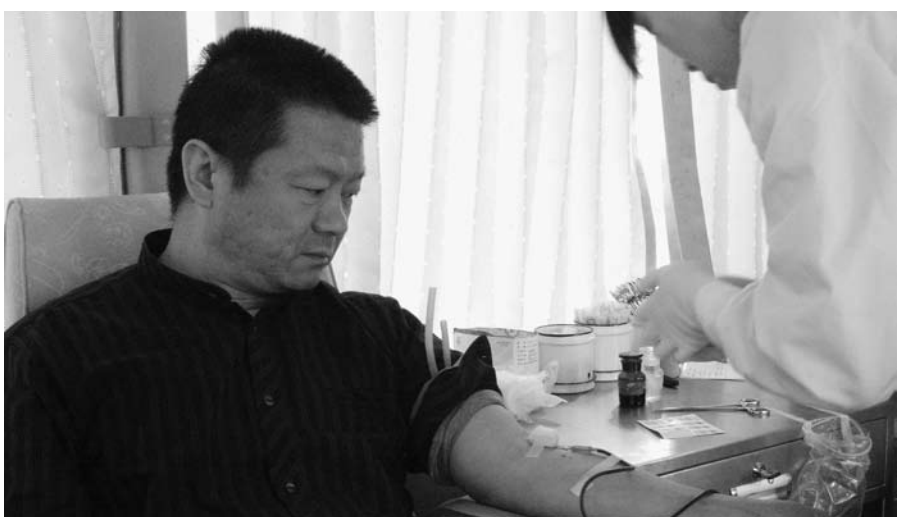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 성금 전달

SK가스는 지진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 쓰촨성 주민들을 위해 구호 성금을 전달했다. 지진 발생 직후 쯔보SK · 지린SK · 선양SK · 객운SK 등 SK가스의 6개 중국 현지 투자법인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2만 RMB의 성금을 모금하였으며, 본사도 매칭펀드를 통해 5만 RMB를 추가하여 구호 성금을 마련했다. SK가스 산동지사 김영석 지사장은 5월 23일 시아껑 칭다오 시장을 만나 칭다오시 민정국에 중국 현지 직원들과 본사 임직원이 함께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밖에 SK가스 랴오닝지사도 중국 심양시 소재 랴오닝성 홍십자회에 성금을 전달하였고, 지린지사 또한 중국 현지 기관을 통해 성금을 전달했다.

SK가스는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한 성금을 홍십자회에 전달했다.

중국 사업장 헌혈 행사

SK가스는 2004년부터 각 사업장별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 4월에는 중국 쯔보에서 근무하는 투자법인 직원 24명이 헌혈 릴레이 행사에 참가하여 글로벌 행복나눔을 실천했다.



SK가스가 2004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헌혈행사에 2008년에는 중국 투자법인도 동참했다.

자원봉사 부문

사랑의 연탄 나눔

SK가스는 12월 4일, 본사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대문구 현저동 일대의 독거어르신을 비롯한 불우이웃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또한 11월에는 SK가스 강원지사 직원들도 강원지역 SK 관계사 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2008년 신입사원 특별 자원봉사

2008년 SK가스 대졸 신입사원들은 7월 8일 은평재활원 원생들과 함께 재활원 인근으로 야외 나들이를 다녀왔다. 신입사원들은 평소 혼자서는 외출이 어려운 원생들의 이동을 보살피고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원생들의 안전한 나들이를 도왔다.

본사 임직원, 은평재활원 정기 자원봉사

SK가스 본사 임직원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은평구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인 은평재활원을 방문하여 점심 배식 · 목욕 봉사 ·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특히 12월에는 김치형 사장이 임직원 희망기부금으로 구입한 성인용 기저귀 및 화장지를 전달하고 직접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울산기지 정기 봉사활동

SK가스 울산기지는 전 직원과 가족들의 참여 속에 매월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울산시 언양에 위치한 지체장애인시설인 애리원과 사회복지시설 나눔터 등을 번갈아 방문하여 장애인 목욕 봉사, 시설 보수 및 청소, 잡초 제거, 페인트칠, 생필품 전달 등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운요양원 방문 자원봉사

SK가스 본사 임직원들은 2008년 4월부터 격주 화요일에 구기동에 위치한 청운요양원을 찾아 점심식사 보조 · 청소 · 놀이치료 보조 · 휠체어 산책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12월에는 임직원 성금으로 구입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송년행사를 가졌다.

SK가스 직원들이 서대문구 현저동 일대 독거어르신들에게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SK가스 신입사원들은 은평재활원 원생들의 나들이를 돕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SK가스 임직원들이 은평재활원을 방문하여 시설 청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SK가스 울산기지 직원들은 애리원에서 목욕봉사 및 시설 보수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SK가스 임직원들이 청운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있다.

SK가스 울산기지 축구동호회 회원들은 매월 한 차례 메아리학교를 방문하여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축구 등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SK가스 평택기지 직원과 가족들이 동명복지재단 일누리 보호작업장을 찾아 시설 청소를 하고 있다.

울산기지 운영팀 교대조, 독거어르신 방문

SK가스 울산기지 운영팀 교대조 직원들은 매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고 집안 청소 · 전기시설 정비 · 빨래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주고 있다

울산기지 축구동호회, 메아리학교 자원봉사

SK가스 울산기지 축구동호회 회원들은 2008년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청각장애인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메아리학교를 방문하여 함께 풋살과 축구 경기를 즐기며 1일 체육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학교시설을 청소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평택기지, 사회복지시설 방문 자원봉사

SK가스 평택기지 직원과 가족은 장애인복지시설인 열린재활원 · 안식의집 · 동명복지재단을 방문하여 원생들과 함께 축구 · 배드민턴 경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한편 시설 청소 및 정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08년 11월부터는 평택 소재 양로원인 인수원을 방문하여 벽지 도배를 돕는 등 기지 전 직원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하고 있다. 명절과 연말에는 회사 기부금으로 마련한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쑥쑥 자라는 행복과 희망의 자화상

행복은 내 안에 있을 땐 작지만, 베푸는 순간 커집니다.

따뜻한 말 한 마디, 사랑이 담긴 눈길 한 번, 따스한 손길 하나가 모여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킵니다.

한없이 커져만 가는 행복의 마력.

세상에 뿌려진 작은 나눔의 씨앗들이 꽃밭이 되고 숲이 됩니다.

나눔이 있어 세상은 아름습니다.

2008 SK 사회공헌활동 대외 수상 현황

	수상자	수여기관	포상명	수상사유
SK	SK	중국홍십자	중국홍십자 특별훈장	쓰촨성 대지진 재해복구활동에 적극 참여
		중국 부빈기금회	사회공헌우수기업 우수상	빈곤퇴치에 중요한 교육사업 및 환경보호에 앞장
		베트남 정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가우호훈장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을 비롯한 베트남 현지 사회공헌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상	태안지역 방제활동
SK 에너지	울산CLX 제품운영2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	사랑의 도시락 배달, 중증장애 목욕봉사 등 이웃돕기 활동
	울산CLX	울산광역시	사회공헌우수기업 울산광역시장상	울산지역 우수 사회공헌선도기업
		울산광역시장	감사패	울산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우수기업
SK 텔레콤	FMI	중앙일보	금상	다문화가정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초대 명랑운동회 개최 등)
		이범관 국회의원	표창장	이천지역 자원봉사활동 전개 (독거어르신 방문 가사지원활동, 녹색가게 지원활동, 여성쉼터 아이들 교육지원 등)
	동부마케팅본부	보건복지가족부	표창장	어린이 복지 향상에 기여
		대구광역시	표창장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대구남산복지재단	감사패	대구시 지체장애인 보조 활동 등 관련 기여, 대구 중구의 어려운 주민 돕기 및 행복한 중구 건설에 이바지
	서부마케팅본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장상	광주시 전역에서 계층별로 다양한 봉사활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광역시장상	이웃사랑으로 지역사회 양극화와 차별 줄이고 성숙한 공동체 만들기 기여
		하당노인복지관	감사패	배식봉사 및 독거어르신 사랑의 쌀 및 전기장판 전달
	동부네트웍본부	대구 동구청	감사패	대구 동구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구 부암초등학교	감사패	부암초등학교 결식아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구 서구청	표창장	대구 서구지역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
	서부네트웍본부	전주시장	표창장	인보노인복지센터 정기 자원봉사활동 4년, 지역 NGO 연합 활동 공로
	정보기술원	서울중랑노인종합복지관	감사패	지역사회 환경 개선, 도배, 외출 지원 정기 봉사활동
	중부네트웍본부	연탄은행	감사패	정기 봉사활동 4년,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 연탄 나눔 등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선정	원주시 우수 프로그램 공모 수상 (행복병원)
		충청북도	감사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엔젤 프로젝트 사업' 참여
	중부마케팅본부	정림사회복지관	표창장	지역 독거어르신과 결식아동들에게 행복도시락 나눔과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
		대전광역시의회	표창장	지역 독거어르신에 3년 동안 행복도시락과 연말 사랑의 쌀 배달
		대전광역시	감사패	드림화훼사업 관련 노숙자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자립 기반 구축
		대전광역시	우수기업 표창장	나눔과 사랑의 자원봉사로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 데 기여

	수상자	수여기관	포상명	수상사유
SK 네트웍스	서울봉사단	강남구자원봉사센터장	표창장	서울 양재동 인근 독거어르신에게 지속적인 도시락 배달
SK 케미칼	SK케미칼	온산농업협동조합	감사장	1사 1촌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장상	사회공헌활동
SKC	SKC	태안교육청	감사패	태안지역 청소년들에 장학금 전달
SK C&C	SK C&C	몽골 ICTA(정보통신청)	Certificate of appreciation	2008 해외 희망의 PC 기증
		경향신문	사회공헌대상	사회공헌활동 - 정보화부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대한적십자상 (2위)	사회공헌활동 -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경기도	경기도의회 의장상	지속적 자원봉사활동
		성남시	감사패	사회공헌활동 - 성남지역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감사장	지역사회 노인복지 기여
		삼육재활관	감사장	지속적 자원봉사활동 - 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MJ 뮤지컬 씨어터	감사패	문화예술 활성화 기여
SK 건설	SK건설	태국대사관	감사장	태국 쏭끄란 축제 지원
		수원시장	표창장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활동
		서울시 성북구청장	표창장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활동
		송정초등학교	감사패	어린이 교통봉사활동
		천안신천초등학교	감사패	어린이 교통봉사활동
WALKERHILL	워커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건강보험료 미납 어르신 지원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원 유공장 은장	후원금 지원
SK 가스		서울 은평구청장	자원봉사 단체 부문 은평구청장상	은평재활원을 정기 방문하여 식사보조, 목욕지원, 나들이 보조 등의 자원봉사활동

SK 주식회사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투명경영 실천하는 SK

→ SK주식회사는, 기간산업에서부터 차세대 핵심사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SK의 지주회사이면서 독립법인을 가진 단일회사로서 경영을 영위하고 있다. SK주식회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한 투명경영 실천으로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SK 에너지

지속가능경영으로 행복경영 실천하는 글로벌 에너지·화학기업

→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정유사로 출발한 SK에너지는 에너지 및 화학산업에 축적한 핵심역량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아시아 · 태평양지역 메이저 플레이어를 넘어 글로벌 컴퍼니로 도약하고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정유사업, 첨단소재부터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화학사업, 전 세계 17개국 32개 광구에서 진행 중인 자원개발사업, 기술경쟁력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기술서비스사업은 그 도약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확보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고객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SK에너지는 앞으로도 윤리경영 · 투명경영을 추구하여 고객과 주주 ·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SK 텔레콤

창조적 혁신으로 글로벌시장 주도하는 컨버전스 리더

→ 1984년 국내 최초로 아날로그 이동전화 시대를 개막한 SK텔레콤은 세계 최초로 CDMA(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 기술과 2.5세대 CDMA 2000 1X 서비스, 3세대 동기식 상용화에 성공하여 이동통신 시장을 주도하는 'World 1st 신화'를 창조해 왔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다양한 컨버전스 서비스를 개발해 왔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국내 시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과 베트남 · 미국 등의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SK텔레콤은 기존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인터넷과 미디어를 융합한 새로운 사업 기회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세계 IT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컨버전스 리더'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SK 네트웍스

세계 일류 통합마케팅회사로 도약하는 생활 속의 기업

→ 국내 최대의 마케팅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SK네트웍스는 50여 개의 상품군과 6,000여 개의 유통채널을 보유하여 2,500만 고객의 생활 속에 함께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판매의 정보통신사업, 자원에너지 · 화학 · 철강 판매사업이 통합된 무역사업, 생활의 필수영역인 석유제품판매사업, 전국 네트워크망으로 자동차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라이프사업, 고객의 패션 비즈니스를 위한 패션사업, OK마트 등 새로운 고객 편의를 돕는 생활서비스사업 등으로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해 SK네트웍스는 새로운 사업영역과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고객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할 것이다.

SK 케미칼

정밀화학 · 생명과학 분야의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기업

→ 1969년 선경합섬으로 창립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밀화학회사로 성장해 온 SK케미칼은, 2000년 이후 정밀화학사업과 생명과학사업 중심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다. 정밀화학사업은 고기능성 수지인 PETG수지 및 환경소재와 IT 소재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에서도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신약을 포함 3개의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생명과학사업은 혈액제제 · 백신제제 부문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혀 가고 있다. SK케미칼은 현재 치매치료제 · 당뇨병치료제 등 천연물신약과 바이오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토털 헬스 케어 컴퍼니로서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친환경 화학제품을 만들어 갈 것이다.

SKC

필름 · 화학으로 첨단정보통신시대의 동력을 제공하는 기업

→ 필름 · 화학 분야의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SKC는, 30년 이상 필름 가공 · 코팅 분야에서 축적해 온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저장미디어 중심의 사업구조를 정보통신 첨단소재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PI필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차세대소재 경쟁에서 선두를 확보하는 한편, 화학사업의 첨단소재인 PU(Polyurethane)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21세기 아시아 PU 사업의 리더로 나아가고 있다. SKC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 글로벌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와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지속성장해 나갈 것이다.

SK C&C

고객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1991년 창립된 SK C&C는 통신, 에너지 · 화학, 공공 · 금융, 제조 · 물류 ·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IT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와 기업의 IT 경쟁력 제고와 선진화를 주도해 왔다. 또한 검증된 IT 기술력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문화, 고객사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고객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IT서비스 제공'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고 있다. 나아가 SK C&C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중국과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고, 향후 IT의 본고장인 미국 · 유럽 등에 진출해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IT 리딩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SK 건설

앞선 기술과 풍부한 경험으로 건설의 역사를 다시 쓰는 기업

→ SK건설은 1977년 창립 이후 앞선 기술과 우수한 매니지먼트 능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주택사업은 조형미학과 공간미학을 도입한 SK VIEW로 각광받고 있으며, 건축사업은 기능과 미학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건축을 선보이고 있다. 토목사업은 사회간접자본사업을 비롯한 토목 전 분야에 대한 설계 · 시공 ·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저장기지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플랜트사업은 원자력 · 화력 발전소 등의 산업플랜트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밖에 통신분야의 노하우를 이용한 u-사업, 임산자원을 활용한 임업사업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SK건설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를 넘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SK 해운

글로벌로 나아가는 아시아의 자원수송 전문회사

→ 1982년 창립한 SK해운은 20여 년간 국가 전략자원인 에너지 원료의 도입과 경제의 바탕이 되는 기간산업재의 수출입에 안정적인 수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석유제품 · LNG · LPG · 철광석 · 석탄 · 곡물 등 수송사업을 다각화하고, 벙커링 등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아시아 최고의 자원수송 전문회사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SK해운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고 있다. SK해운은 단순히 고객의 화물을 수송하는 것에 머물거나 만족하지 않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키우기 위하여 기업시민에 요구되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SK 증권

차별화된 금융솔루션 제공하는 자산관리특화 금융투자회사

→ SK증권은 1955년 설립 후 50여 년 동안 증권금융업과 함께 성장해 온 증권회사로서, 전국 59개 지점과 베트남 호치민사무소 등 국내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자산관리사업, IB, Wholesale, 자산운용 등의 분야에서 개인 및 법인고객의 니즈에 맞는 금융투자상품과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증권은 향후 고객의 금융 니즈에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프리미엄 자산관리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탁업 등 신규사업 진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베트남 ·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전문화된 IB와 자산관리사업을 전개하며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WALKERHILL

고객 행복을 추구하는 호텔산업의 엔터테인먼트 리더

→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W서울 워커힐, 워커힐 면세점 그리고 인천공항 환승호텔로 대표되는 외부사업 등을 영위하며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워커힐은 국내 호텔산업의 리더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 쉐라톤과 W라는2개의 호텔 브랜드가 제공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와 시설 외에 공연 전문극장 '워커힐 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면세점 등을 갖춘 차별화된 입지로 그 명성을 더하고 있다. 인천공항 환승호텔과 인천공항 내 6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있는 외부사업본부는 이외에도 스카이72 등 6개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운영하며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워커힐은 고객의 상상력을 실현하는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국내 호텔산업을 리드해 나갈 것이다.

SK E&S

도시가스 · 집단에너지 · 전력 · LNG 사업 수행하는 종합에너지 서비스 기업

→ 국내 최초의 순수지주회사인 SK E&S는 1999년 SK와 미국 엔론 사의 공동출자기업인 SK엔론으로 출범하였으나, 2005년 호주투자은행인 맥쿼리 사가 새로운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현재의 사명을 갖게 됐다. 국내 8개의 도시가스회사와 LNG 복합발전사업을 수행하는 1개의 자회사를 포함해 총 9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 합자투자회사 4개 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SK E&S는 기존사업인 도시가스사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집단에너지 · 전력 · LNG 분야에서 미래 신규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SK E&S는 기업의 경제적 ·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SK 가스

탁월한 역량으로 LPG마케팅 · 트레이딩 분야 리드하는 LPG기업

→ 1955년 설립된 SK가스는 국내 LPG 공급량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LPG기업이다. 단일 지하암반 저장형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울산기지와 평택기지를 기반으로 260여 개의 충전소를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가정용 · 상업용 · 차량용 LPG를, 주요 산업체에 연료용 · 원료용 LPG를 공급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저장기지 운영 노하우, 리스크관리 역량,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등을 갖춘 글로벌 트레이더로서 안정적으로 LPG를 수입하고 있으며, 전 세계 거래처와의 트레이딩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1999년에는 국내 LPG기업 최초로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LPG 충전소와 복합주유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성장을 위해 LPG사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석유개발사업(E&P)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08년 해양심층수 개발업체인 울릉미네랄을 인수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했다.

2008 사회공헌활동 백서를 세상에 내보내며

→ 태안 가는 뱃길에서 뵈었던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봉사에 대한 설렘과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으로 함께했기에 출렁이는 뱃속에서도, 기름범벅이 된 그 바닷가에서도, 밝은 얼굴로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년차로 접어든 SK주식회사의 봉사활동은 변함없는 진정성과 남을 위해 흘릴 수 있는 땀으로 다시 한 번 보람찬 2009년을 만들고자 합니다. 경제위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없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기쁨을 곱하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처럼 더 많은 것을 베풀겠습니다. SK주식회사 사회공헌사무국이 멋지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9 SK 사회공헌활동 백서〉에는 2008년보다 더 나은 SK주식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큰일부터 작은일까지 수고하시는 그룹사회공헌사무국 여러분과, 귀찮은 요청에도 항상 친절히 도와주시는 SK에너지 사회공헌팀 여러분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문성준 PL | SK주식회사 CR실

→ 지난 한 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나눔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했던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경제 위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소외이웃들에게는 더없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옛말에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들에게 손 내밀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다가가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 주는 자원봉사자가 더욱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2009년 한 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우리의 자원봉사를 통해 함께 좀 더 행복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준연 부장 | SK에너지 사회공헌팀

→ 〈2008 SK 사회공헌활동 백서〉에는 각 사에서 한 해 동안 진행한 많은 활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활동들 하나 하나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위안인 것은 없었는지…. 더러는 시행착오를 겪는 활동도 있었겠지만, 행복나눔을 실천하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만큼은 확고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SK 구성원들이 사회와 나눈 마음들을 백서에 모아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던가요? 부디 2009년에는 더 큰 행복이 사회 속으로 퍼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 SK 구성원이 있을 것입니다.

류윤경 매니저 | SK텔레콤 CSR 담당

→ 〈2008 SK 사회공헌활동 백서〉가 나오게 되어 무엇보다 기쁜 마음입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활동한 우리의 행복나눔 자료들이 모여 하나의 책자로 엮여 사회공헌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생각하니 힘들었던 기억도 소중한 추억으로 저의 곁에 각인되었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사회공헌 지식으로 계획한 대로 잘 안 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열정과 신념만큼은 오래 기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없었다면 〈2008 SK 사회공헌활동 백서〉가 나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열심히 뛰어 준 사회공헌 담당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인규 사원 | SK네트웍스 홍보팀

→ 처음 장애우 목욕 도우미로 나섰던 날. 속옷 바람으로 목욕을 돕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도 그 생각은 별로 변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이 실제로 얼마나 공헌이 될지, 행복나눔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행복을 나눌 수 있을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무언가를 나누고 싶다는 우리의 작은 마음이, 정성이, 그리고 그 온기가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들이 전혀 의미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SK의 행복 도우미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보시지요. 끝이 보일 때까지 말입니다.

김성우 차장 | SK케미칼 홍보팀

→ SK 사회공헌 발대식을 한 지도 어느덧 5년, 2004년 백서 제작을 지원하던 그때가 까마득하네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각 관계사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백서 제작으로 자료 정리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활동을 했었구나,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어? 등등 지난 한 해 사회공헌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회공헌 담당자님들, 2008년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 함께 할 2009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행복합니다.

이신영 대리 | SKC SKMS 지원팀

→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SK 구성원들에게도,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지금의 행복'을 주는 사회공헌활동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장보은 대리 | SK C&C SUPEX추진팀

→ 연말 연초 가장 정신 없을 때쯤 백서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살짝 마음의 짐이 되곤 했습니다. '지난해 백서 정리한 게 한 두 달 전인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났구나' 새삼 느끼며 1년간 활동한 자료들을 뒤적이며 하나씩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쁘게 달려온 만큼 우리 구성원들이,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그만큼, 아니 그 이상 행복해졌으리라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곤 합니다. 담당자들에겐 어느덧 행복지침서가 된 〈SK 사회공헌활동 백서〉. 책상 위에 나란히 꽂혀 있는 4개의 백서를 보며, 다섯 번째 행복지침서가 도착할 날을 새삼 기다려 봅니다.^^

정지선 사원 | SK건설 홍보팀

→ SK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손길을 나눌 수 있어서 2008년 한 해도 가슴이 따뜻했던 행복한 한 해로 기억됩니다. 책 한 권에 몇 줄 글자로 기록될 뿐이지만 함께 했던 분들의 가슴속에만은 언제까지 잊혀지지 않을 추억으로 새겨졌으면 합니다. 2009년에는 5주년을 맞는 SK자원봉사단이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활동으로 1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넘어서까지 더 큰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원성경 사원 | SK해운 SKMS팀

→ 매년 초 발간되는 백서를 보고 있자면 지난 한 해 동안의 사회공헌 활동들이 눈앞에 아른아른합니다. 특히 2008년 활동 중에는 서해안 기름제거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연초부터 찬바람 맞아 가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구성원들 모두 무척 열심히 참가했었지요…. 이 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한 해 사회공헌활동을 되돌아보고, 정리해보고 또 자랑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SK 구성원 여러분 행복하세요. ^^

이의혁 과장 | SK증권 인력관리팀

→ 지난 한 해 참여했던 모든 봉사활동이 새록새록 기억에 새롭지만 특히 다문화가정과 함께한 '워커힐과 함께 나누는 행복'은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한 모든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남을 위해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살찌우게 하는 아름다운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CEO와 임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홍의승 대리 | 워커힐 총무팀

→ 개인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하면서 나비효과에 대한 체험을 경험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지원했던 작은 도움들이 어느덧 그들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사람이란 존재는 돈이나 명예가 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과 목적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날갯짓이 우리에겐 미미할지 모르지만 저 너머 그 누군가에게는 강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 믿는다. 삶의 이유가 될지 모르는 영향력을.

성지현 매니저 | SK E&S CR 지원팀

→ 지난 한 해 동안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며 몇 번이고 백서를 뒤적여 볼 만큼 〈SK 사회공헌활동 백서〉는 관계사 사회공헌 활동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습서 같은 존재입니다. 백서 자료를 취합하면서 접한 사회공헌 현장 사진에서 웃음과 여유가 가득한 구성원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저 또한 신이 났습니다. 단순히 사회공헌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것 이상으로 구성원들이 주변 이웃들과 소통하며 느낀 행복한 마음까지 백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혜란 매니저 | SK가스 SKMS팀

SK 사회공헌 관련 웹사이트

SK(주)	http://www.sk.co.kr
SK에너지	http://www.skenergy.com
SK텔레콤	http://www.sktelecom.com
SK네트웍스	http://www.sknetworks.com
SK케미칼	http://www.skchemicals.com
SKC	http://www.skc.co.kr
SK C&C	http://www.skcc.com
SK건설	http://www.skec.co.kr
SK해운	http://www.skshipping.co.kr
SK증권	http://www.priden.com
워커힐	http://www.walkerhill.com
SK E&S	http://www.skens.com
SK가스	http://www.skgas.co.kr

한국고등교육재단	http://www.kfas.or.kr
행복나눔재단	http://www.happynanum.org
아트센터 나비	http://www.nabi.or.kr
장학퀴즈	http://www.janghakquiz.com

2008 SK 사회공헌활동 백서

발행처 SK자원봉사단

연락처 100-99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1

발행일 2009년 2월 27일

발행인 김신배 SK자원봉사단 단장

편집 및 진행 SK텔레콤 법무실 CSR 담당

www.sk.co.kr

SK

함께하는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

본 인쇄물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의해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친환경 종이(FSC 인증)를 사용하였습니다.

FSC Mixed Sources
Product group from well-managed forests, controlled sources and recycled wood or fiber
www.fsc.org Cert no. SGS-COC-005559
© 1996 Forest Stewardship Council